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이매창과 유여시의 한시 비교연구



2013년 7월

부경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적시문

문학석사 학위논문

이매창과 유여시의 한시 비교연구

지도교수 고 순 희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7월

부경대학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적시문

적시문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7월 26일



주심 문학박사 곽진석 (인)

위원 문학박사 고순희 (인)

위원 문학박사 송명희 (인)

목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3
3. 연구사 검토.....	3
II. 이매창과 유여시의 삶과 사랑.....	7
1. 이매창.....	7
2. 유여시.....	23
III. 이매창과 유여시의 시세계.....	40
1. 이매창.....	40
가. 신분에 대한 한탄.....	40
나. 진정한 임을 향한 갈망.....	45
다. 자연의 이치와 운명에 대한 순응.....	53
2. 유여시.....	57
가. 신분에 대한 한탄.....	60
나. 이별에 대한 숙명적 고뇌.....	64
다. 자연에 순응하는 여류의 감정.....	71
라. 우국우민의식.....	78
IV. 이매창과 유여시의 작품 비교.....	81
1. 신분에 대한 한탄.....	84
2. 사랑과 이별.....	87
가. 이별의 슬픈.....	88
나. 사랑의 충정.....	91
다. 재회의 바람.....	95
3. 자연과 시인.....	99
4. 종합적 비교.....	104

V. 결론.....	106
VI. 참고문헌.....	108



이매창과 유여시의 한시 비교연구

적시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요약

본고는 한·중의 대표적인 여류시인인 이매창과 유여시의 시가에 드러난 봉건적 사회에 대응하는 여류의 시대의식을 비교분석 했다. 이매창과 유여시 공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류로써 개인의 감정과 시대적 사상을 투영하는 온도 차이를 집중적으로 비교하였으며, 이에 대한 각기 다른 사회를 향한 외침을 연구했다. 이매창은 유교적인 사회상에 순응하는 온건적 여성상의 중심인 반면, 유여시는 사회를 향한 비판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개혁적 여성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에 대한 한탄으로 시작된 두 여류시인의 공통점은, 당시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등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형성되어가는 부분을 이들이 쓴 시가를 통하여 연구했다. 더불어 이들이 생존했던 사회상은 유교적인 사상이 중심이었다는 점과, 임진왜란이라는 전란과 명·청이라는 국가존립의 교체시기라는 공통적으로 어지러운 시기라는 점 등이 맞물려진다. 여류라는 신분으로 이러한 신분의 구속과 시대의 난국 속에서 이들이 바라 본 사랑, 사람, 사회를 향하여 작성했던 시가들을 분석하면서, 각기 다른 국가와 시대에서 이들의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정확히 짚어 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체인 이매창은 애환적, 보수적 정서를 가진 여류라면, 유

여시는 비교적 낙관적, 진취적인 정서의 주인공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다른 두 여류의 산물인 시가를 분석하면서 이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그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여류문학의 비교작업의 일환으로 이매창과 유여시를 연구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초위에서 한국과 중국의 여류문학, 나아가서는 여성문학의 전반적인 비교가 심도있게 이루어져 한·중 문학사에 더욱 의미있는 연구가 되길 바란다.



Lee mae chang and Liu rushi,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inese poetry

Zhai Shi We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aster of Art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gisaeng*'s consciousness of the times that coped with to feudal society - shown in Lee, Mae-chang and Yoo, Yeo-si's poems who were the representative Korean and Chinese *gisaeng* poets. As *gisaengs* (both Lee, Mae-chang and Yoo, Yeo-si) who were the most popular in their generations, the difference in their attitudes in which they projected their personal emotions and thoughts on the times they lived were compared; their voices towards each different society - resulted from these differences - were examined.

While Lee, Mae-chang showed a moderate woman's image that conformed to the Confucian society, Yoo, Yeo-si showed the consciousness of a reformist woman who could make outspoken criticisms towards society. Through their poems, I have studied how the two *gisaeng* poets' common points - which began with lamenting their given social status - had been formed in different directions - such as in their willingness to live in those times and their perspectives on society. Furthermore, the social situations of the times they lived coincided in that the Confucian ideology was the center of their times and it was a turbulent period - i.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Korea and the transition period of two countries (between the Ming and Ching Dynasty) in China.

By analyzing their poems written towards the love, people and society they looked at under the restraint from their social status - as *gisaengs* - and difficult times of their eras, I intend to point out exactly how they communicated with the world, each living in the different country and era. While Lee, Mae-chang,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a *gisaeng* with melancholy and conservative sentiment, Yoo, Yeo-si was a character who had relatively optimistic and progressive sentiment. By analyzing the poems which were the pieces of work by the two *gisaengs* - who seemed similar but different at the same time, it could be found how they looked at and communicated with the world.

This study examined Lee, Mae-chang and Yoo, Yeo-si as a part of comparison work for *gisaeng* literature of Korea and China. On

the basis of this study, I hope that comparison work between the Korean and Chinese *gisaeng* literature – further overall comparison of female literature in both countries – will be conducted in depth in the future so that they will be more meaningful studies in the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 history.



서론

1. 연구목적

한·중 고전문학 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와 작가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나 작가별 연구의 경우 대체로 남성작가 위주로 행해졌다. 이는 여성작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 그들의 작품이 소실되어 많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도 대부분 남성들의 작품이라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고대 사회는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이 강했다. 여자의 독립적인 인격이나 사상은 용납되지 않았으며, 전통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경제적, 사회적 부속품으로 취급받았다. 또한 ‘삼종지덕(三從之德)’이라 하여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에게 차례로 종속되는 과정을 인생의 미덕으로 교육받아 왔고, ‘여자무재변시덕(女子無才便是德)’이라는 가르침 속에 사회 활동에서 소외당하는 처지였다.¹⁾ 한국의 조선시대 또한 유교사상이 지배하던 봉건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띤 시대로 특히 여성에게는 봉건윤리가 강요되던 시대였다. 봉건윤리는 여성들로 하여금 사랑의 자유, 교육의 기회, 자아실현의 기회 등을 빼앗아가 여성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²⁾ 단지 남성을 보조하는 객체로만 여겨졌다.

이매창(李梅窓 1573~1610)과 유여시(柳如是 1618~1664)는 각각 조선중기(朝鮮中期)와 명말청초(明末清初)라고 하는 봉건윤리가 지배하던 시대에 살았던 여인들이다. 李梅窓의 작품은 《매창집(梅窓集)》이 있으며, 그가 정을 주던 학자 유희경(劉希慶)과 이별하면서 지은 시조가 《청구영언(靑丘永言)》 등에 실려있고, 이능화(李能和)의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에도 시조 10수가 전한다.

1) 張宏生, 張雁 編, 『古代女詩人研究』, 湖北教育出版社, 2001, p.1

2) 崔在錫, 「韓國文化史大系, 風俗, 藝術史(上)」, 「韓國家族制度史」,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82, p.511.

유여시는 문학과 예술재능이 훌륭해서 사람들이 진회팔염(秦淮八艷 : 진회라는 기방의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난 여덟 명의 기녀)중에 으뜸이라고 했다. 그녀는 기녀라서 음악, 춤, 그림에 뛰어났다. 그리고 유여시의 작품집으로는 『호상초(湖上草)』 『동산수화집(東山酬和集)』 『척독(尺牘)』 『무인초(戊寅草)』 등 많은 작품이 있어, 수록작품 뿐만 아니라, 여성시인의 작품을 수록한 『렬조시집·운집(列朝詩集·閩集)』과 『고금명원시사선(古今名媛詩詞選)』 등 시집에 그의 시가 다수 실려있다. 그리고 당시 유여시의 남편 전겸익(錢謙益)은 청(淸) 정부에 투항하지만, 그녀는 반청복명활동의 의사이기 때문에 남편 전겸익(錢謙益)은 후대에 까지 책망을 받지 않는다. 후인들이 그녀를 가리켜 “규방의 장부(閨中丈夫)”나, “두건 쓴 영웅(巾幗英雄)”으로 부르듯이, 그녀에게는 과연 장부의 기질이 있었다고 칭할 만하다.

이매창과 유여시는 모두 기녀의 신분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성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는 그녀들의 삶과 문학은 대부분의 조선시대와 당대 여인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과격적이고 능동적인 것들이다. 그들이 지녔던 뛰어난 문학적 소질, 빼어난 용모, 절창 등은 여러 남성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었고, 당시의 유명한 문사들과의 문학적 교류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이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상으로도 가깝고 같은 한자 문화권이기에 문학적으로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상존한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기녀문학을 비교문학의 차원에서 연구한 업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매창과 유여시는 시대적으로는 70년의 시간적 차이와, 지역으로는 한국과 중국이라는 공간적 거리가 있다. 또한 유여시와 이매창은 기녀라는 신분, 탁월한 재능, 문학성 등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한국과 중국의 이매창과 유여시, 이 두 기녀시인의 생애와 문학의 대한 비교는 한·중 기녀문학을 깊이 이해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며, 또한 여성문학의 한·중 고전문학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조선중기의 이매창과 명말청초의 유여시를 비교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여류 문학 자체의 흐름으로 보면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여류문학이 최고봉에 달했을 때 활동한 가장 뛰어난 여류시인이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이매창과 유여시 작품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매창과 유여시의 작품은 주로 당시 여성의 생활이나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이매창의 시는 사대부와의 교감으로 이루어진 산물이므로 사랑과 이별이 주류를 이루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하여 유여시는 이매창의 시류를 포함하는 것 뿐만아니라 반청복명(反淸復明)의 활동에 기인하여 우국애민(憂國愛民)의 사상이 깃든 작품도 있다. 본고는 여성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그 중 뛰어난 작품을 생산했던 여류문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모든 여류작가들의 작품을 다루는 것은 필자의 역량과 현실적 조건상 어려운 일이므로, 그 중 한중 여성문학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표적인 여류시인인 이매창과 유여시 두 사람을 특정하여 비교하고 나아가 두 시인을 통해 한중 여류 문학의 공통점과 상이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매창과 유여시의 시가에 대한 문학사적 의의를 정리하여 결론을 추출하고자 한다.

3. 연구사 검토

이매창과 유여시 문학의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우선 이매창에 대한 선행연구를 알아보기로 한다.

金智勇³⁾은 「매창문학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에서 이매창과 유희경과의 관계를 살펴 이것을 바탕으로 이매창 문학의 세계와 특징을 밝혔는데 이 논문에

3) 김지용, 「매창문학연구」, 『세종대학교 논문집』 6, 세종대학교, 1974. p.42

서 김지용은 매창 문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그의 문학 속에는 멋진 기교가 있고, 아울러 정이 넘쳐흐르는 인간미를 듬뿍 느낄 수 있다. 그의 생활이 그러했듯이 그의 작품 속에는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인간과의 정의를 오히려 중시하는 고요한 감정이 흐르고 있다. 이기적인 것보다 양보와 관용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조하는 태도는 인류평화의 근원적 태도요, 사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매창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는 한문학연구의 영역을 넓혔다는 단순한 의의 이외에도, 여류문학과 여류문학을 분류하여 연구할 수 있는 경지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전원범⁴⁾의 「매창연구」는 매창의 한시를 형식적 성격과 내용적 성격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형식적 성격으로는 6가지의 특성을 들었는데, 절구를 즐겨 사용한 것, 압운이 되어 있고 평성운(平聲韻)의 正格을 지켜 시의 율격에 대한 노력이 보인 점 등을 설명하였다. 내용적 성격으로는 전편(全篇)을 주정시(主情詩)로 보고 회상과 그리움의 시정(詩情), 정과 기다림, 한 등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매창 한시의 성격을 결론 지운다면 절제된 짧은 시형에 우리 한시의 전통적 정서인 기다림의 정과 한을 형상화시켰으며 자칫 빠지기 쉬운 감상적이고도 섹슈얼한 취약성을 극복하여 그리움과 고독을 도피적인 방향이 아닌 신선사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선지⁵⁾는 「매창 한시의 이미지 분석」은 한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논문으로 이매창 한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전에 매창문학의 특징으로 알려진 정한, 별한, 애상, 고독 등은 가장 문학성이 낮은 제이유형(第二類形)과 제삼유형(第三類形)의 작품에 부합되는 결론이며, 이미지의 질, 구조의 긴밀, 다양한 배열 등이 뛰어났던 제일유형(第一流形)의 작품은 그 어휘들이 각각 높은 상징을 띠었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 과정에 반드시 이미지의 접근을 통한 파악을 거쳐야겠다.”

4) 전원범, 「매창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78, p.26

5) 문선지, 「매창한시의 이미지 분석」,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81, p.59.

유여시에 대한 선행 연구는 근대 유명한 역사학자인 진인각(陳寅恪)⁶⁾(1890-1969)의 노력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그는 「유여시별전(柳如是別傳)」을 작성하였는데, 유여시의 문학 활동에 대한 치밀한 고증과 재평가를 통하여 유여시를 부활시켰다. 아울러 유여시의 뛰어난 문학 성취와 애국심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진인각을 따라 중국에서 유여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강정만(姜正萬)⁷⁾은 「유여시의 애정시를 통해서 본 그녀의 생애연구」라는 논문에서 ‘그녀는 봉건 시대의 전형적인 순종의 여인은 아니었으며, 성격이 호방하고 사내들과 더불어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여걸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평가하였다. ‘몰락한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유여시는 아주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여자였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인생의 반전을 도모했다. 그녀의 초기 행적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시문에 능했으며, 의리를 숭상하고 구속을 싫어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유여시가 다른 여류 문인들과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고 평가하였다.

이군(李君)⁸⁾은 「柳如是詩詞創作的美學風貌及其成因」이라는 논문에서 유여시의 작품을 분석하여, 고독감과 표박감을 표현한 동시에 속세에서 벗어난 독특함도 드러난다고 하였다. 유여시 작품의 미학 형성 원인은 바로 그 당시에 발달한 상품 경제, 활발한 정치적인 요소와 문화 사조(思潮) 등이고 분석하였다.

손춘영(孫春榮)⁹⁾은 「柳如是作品的自我形象」이라는 논문에서 유여시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그녀가 진자룡(陳子龍), 전겸익(錢謙益) 등과 교류를 통하여 명

6) 진인각(陳寅恪), 『유여시별전(柳如是別傳)』, 上海古集出版社. 1980.

7) 강정만, 「유여시의 애정시를 통해서 본 그녀의 생애연구」, 『중국학논총 제12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01.

8) 李君, 「柳如是詩詞創作的美學風貌及其成因」, 『河北師範大學學報』 제4집, 河北師範大學學報會, 2008.

9) 손춘영(孫春榮), 「柳如是作品的自我形象」, 『長江大學學報』 제7집, 長江大學學報會, 2000.

말청초에 가장 뛰어난 여류시인이라고 평가하였다.

하초(賀超)¹⁰⁾는 「論柳如是作品中獨特的精神內涵」이라는 논문에서 서구 여성주의 문학 비평 관점을 이용해, 유여시의 여류라는 신분을 중시하지 않고 시 작품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독특한 문학 세계를 밝혀내었다. 특히 유여시의 작품에 드러난 애국적인 감성을 중요시하고 후세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이려추¹¹⁾의 「한중 여류시인 김운초와 유여시 비교연구」라는 논문도 있는데, 역시 한중 양국의 여류시인에 대한 비교연구 논문으로 이매창과 설도의 비교연구¹²⁾도 발표하였다. 그는 김운초와 유여시의 한시 연구를 통하여 두 시인 자의식으로 중심으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앞에서 언급했던 선행 연구와 두 시인의 문학적인 평가에 대해의 비슷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두 시인의 성격, 그들의 작품에 대한석에서 차이가 난다. 이매창과 유여시에 대한 각각의 선행 연구는 많은데, 시인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가치가 매우 크다 본다. 앞에 언급했던 선행연구에서는 김운초와 유여시를 비교하였지만, 이매창과 유여시의 경우 그 성격상 비슷한 점이 더 많다고 보았다. 물론 차이점도 있는데 이는 한중 당시의 사회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전에 이매창과 유여시는 각각 다른 여류시인과 비교한 연구가 많다고 보았다. 사실 여류시인은 문학상 성취뿐만 아니라 성격상 비슷한 점이 많아서 비교할 만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였다.

10) 하초(賀超), 「論柳如是作品中獨特的精神內涵」, 『贛南師範大學學報』 제2집, 贛南師範大學學報會, 1999.

11) 이려추, 「한중 여류시인 김운초와 유여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9.

12) 이려추, 「중한 여류시인 설도와 이매창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3.

Ⅱ. 이매창과 유여시의 삶과 사랑

1. 이매창

매창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그의 시집인 『매창집(梅窓集)』 「발문(跋文)」과 그의 비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각각 출생연대를 다르게 밝혀놓고 있다. 따라서 현대에 매창을 다루는 서적에서도 어느 기록을 따르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매창집의 발문」

桂生의 자는 천향인데, 스스로 매창(梅窓)이라고 호를 지어 불렀다. 부안현의 아전이던 이탕중(李湯從)의 딸이다. 만력 계유에 나서 경술년(1610)에 죽으니 나이 서른여덟이었다. 평생 노래 부르기와 시 읊기를 잘 했으며, 당시 수백편이 한 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더니, 지금은 거의 흩어져 없어졌다. 승정후 무신년(1668) 10월에 아전들이 외우며 진하던 여러 형태의 시 58수를 얻어 개암사에서 목판에 새긴다. 절의 중들이…… 무신년 12월 개암사에서 개간한다.¹³⁾

묘창무덤의 비석 앞에는 ‘명원이매창지묘(名媛李梅窓之墓)’라고 새겨져 있고, 왼쪽에는 “세정사삼월일부풍시사수(歲丁巳三月日扶風詩社暨)”라고 씌어 있다. 뒷면에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 다음과 같다.

13) “桂生字天香，自號梅窓，縣吏李湯從女也。萬曆癸酉生，庚戌死，得年三十八。平生善吟詠，有詩累百餘首膾炙一時，而今幾散失，崇禎後戊申十月日，得於吏輩之傳誦各體并五十八首，鍼梓于開巖寺寺僧……，甲申 十二月 開刊于 開巖寺”

위의 발문 마지막 부분 가운데 ‘梓于開巖寺寺僧’은 간송문고본에는 탈락되어 없고 하버드대학본에만 기록되어 있으며, 반대로 ‘甲申 十二月 開刊于 開巖寺’는 간송문고본에는 있으나 하버드대학본에는 없다.

매창의 기록에 대한 번역은 계속 『梅窓時選』, 허경진 옮김, 평민사, 1986.에서 인용하였다.

「매창 무덤의 비문」

여인의 이름은 향금이요, 호는 매창인데, 정덕 계유년(1513)에 태어났다. 자라면서 시와 문장을 잘했고, 그 문집이 간행되어 세상에 전한다. 가정 경술년(1550)에 죽었는데, 만력 을미년(1595)에 비석을 세웠다. 삼백년의 세월이 지나자 글자의 획이 벗겨지고 떨어졌으므로 다시 고쳐 돌을 세우고 거듭 그의 행적을 적는다.

이렇게 두 기록상으로는 출생연대가 무려 한 갑자, 즉 60년의 차이를 보인다. 한 사람의 출생을 놓고서 이렇게 엇갈린 기록이 있었던 이유는 이비석이 처음 그대로 보존된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다. 약 삼백년 뒤인 1917년 비석을 다시 세우면서 干支만을 정확히 확인했을 뿐, 그 연호는 짐작으로 잘못 적어 넣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생긴 것이다.¹⁴⁾ 또한 그와 가깝게 지냈던 유희경(1545~1636) · 이귀(1557~1633), 허균(1569~1618)의 생몰연대를 함께 비교해 보아도 비문보다는 매창집 발문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문에 소개된 대로 매창은 부안의 아전인 이탕종의 딸로 태어났다. 예전의 여성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계생’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가 계유년에 태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 외에 천향(天香), 계량(桂娘)으로도 불렸으며, 비문에서 보듯이 향금이라는 이름도 있었다. 또한 그의 작품에도 자주 등장하는 매화를 자신의 호로 삼기도 하였다. 부안에서 전하는 이야기로는 매창이 아버지 이탕종에게 한문을 배웠다는데, 워낙 재주가 뛰어나 시문과 거문고를 곧 익혔다고 한다.¹⁵⁾

그가 어떠한 연유로 여류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인지 알려주는 정확한 기록은 없다. 허미자는 그를 서녀로 보아 출신성분 상 자연스럽게 여류가 되었다¹⁶⁾고 하는 반면 김지용은 고을 태수인 우관 서진사(雨觀 徐進士)가 권력으로 매창의 정조를 빼앗았으며, 그를 따라 서울로 갔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안으로 내려온 뒤 여류가 되었다고 말한다.¹⁷⁾ 두 가지의 추측을 모두 종합해 볼 때

14) 허미자, 『이매창 연구』, 성신여대 출판부, 1998. p.353.

15) 위의 책, p.354..

16) 위의 책, p.62.

매창은 어떤 이유로든 양반가와 혼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류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의 문학작품의 곳곳에 여류 신분에 대한 부끄러움과 한탄이 배어있는 것도 바로 이에 기인한 것이다.

매창은 서울이 아닌 부안에 있으면서도 명성이 자자하여 서울에까지 이름을 떨쳤다고 한다. 그는 많은 문사들과 교류하였으며 그들의 개인문집에도 이름이 거론되기에 이른다. 이수광(李睟光)의 『지봉류설(芝峰類說)』 卷14 「기첩(妓妾)」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계랑(桂娘)은 부안의 친한 여류로 스스로 매창이라 호하였다. 일찍이 지나는 손이 있어 그 소문을 듣고 시로써 매창에게 덤뵈더니 계랑이 시로써 응답하기를,

“평생에 떠돌며 밥 얻어먹는 것은 배우지 않고
오로지 매화나무 창가에 비치는 달 그림자만 사랑하노라.
고요히 살려는 나의 뜻을 그대는 알지 못하고,
뜬구름이라 손가락질하며 알지 못하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서운한 표정으로 사라져 버렸다 한다. 계랑은 평소 거문고를 잘 타고 더불어 시를 잘 썼는데, 그가 죽었을 때 거문고도 함께 묻었다고 전한다.¹⁷⁾

위의 기록에서는 매창을 ‘천창(賤娼)’ 즉, 친한 여류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의 조용하면서도 굳은 지조와 유한한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있다. 조선 시대 여류의 생활상을 살펴보면 여류들은 관기에 예속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정작 국가에서 생활보장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여류의 수입원에 대해서 전하는 정확한 문헌은 없으나, 여류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데다 스무 살만 넘으면 퇴물 취급을 당하였기 때문에 사대부 양반의 첩으로 들어가거나 자신 밑에 어린 여류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밖에 없었다.

17) 김지용, 「매창문학연구」, 『세종대학교 논문집』 6, 세종대학교, 1974.. p.554.

18) 桂浪者 扶安賤娼 自號梅窓 嘗有過客 聞其名以詩挑之 娘卽次韻曰 平生不學食東家 只愛梅窓月影斜 詞人未識幽閑意 指點行雲枉自多 其人悵然而去 娘平日喜琴興詩 死以琴殉葬云. 『芝峰類說』 卷14 「妓妾」

따라서 여류들은 권력과 부를 갖춘 사대부들을 따르기 마련이었다. 그렇지 않고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제대로 영위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매창은 여류로 살면서도 아무에게나 정을 주지 않으며 사군자의 매화처럼 절개있는 고요한 삶을 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류로 살면서 ‘고요히 살려는 뜻’을 품은 매창은 현실에서 상처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매창은 수작을 걸어오는 이 같은 남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경거망동하지 않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거절의 뜻을 전하던 그는 유희경을 만나면서 사랑의 감정에 휩쓸리게 된다. 유희경은 자가 응길(應吉)이며 호는 촌은(村隱)이다. 인품이 높아 상례(喪禮)와 시문에 뛰어났다. 『촌은집(村隱集)』 부록에 실려 있는 여러 기록을 통하여 그의 신분과 생애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촌은은 근본을 잘 알 수 없는 한미한 상천출신 신분으로 가정은 가난하였고 노예와 같은 천한 업에 종사하여야 했다. 그러나 촌은은 타고난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고 학문에 임하는 자세가 남달랐다. 1557년 13세 소년이었던 촌은은 아버지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매일 조석으로哭泣하고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고 올에서 그의 효성을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이러한 소문은 당시 禮學에 밝기로 유명한 남언경(南彦經)(1528~1594)에게까지 들렸다. 촌은은 그 때부터 남언경에게 예문에 다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으며, 당시 남언경과 교유하던 사대부들에게 축망을 받게 되었다. 촌은은 그 후로부터 평민과 사대부의 상에 반드시 지례자(執禮者)가 되게 하였고, 뒤에는 국상(國喪)에까지 불려가게 되기도 하였다. 한편 그는 시학에 정진하여 장년이 되면서는 차츰 詩文으로 이름을 드날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맥대봉(白大鵬)과 더불어 ‘유백(劉白)’이라 호칭되기도 하였다. 명문 사대부가의 사람들과 어울리곤 하였다지만 그 역시 매창과 다름없는 천민 출신이었다. 매창이 천민 출신인 유희경과 사랑하게 된 것은 물질적인 필요 이상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던 신분상의 고통과 애환이 있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에 까지 그 이름을 날렸던 매창은 그 동안 높은 신분의 문사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작 처음의 정인으로 천민 초은을 택했다. 당시 초은은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천민이라는 이유로 버

슬을 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매창은 이렇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을 것이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유희경은 천민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의병을 모으고, 적세를 탐지하는 등 국난 극복에 많은 공을 세웠는데, 매창을 만나게 된 것도 바로 그때쯤이다. 그가 매창과 처음 만났을 때를 전하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젊은 시절에 부안읍에 노닐었는데, 그 곳의 유명한 여류 계생은 촌은이 서울 서시로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손이 문기를 劉와 白의 어느 분이냐고 했었는데 이때 유희경과 백대봉의 이름이 벌써 이곳 멀리까지 소문나 있었던 까닭이다. 촌은은 일찍이 여류를 가까이 한 것이 없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파계했다. 그리하여 서로 풍류로써 즐겼는데, 계생 역시 한시를 잘했다, 세상에 『매창집』이 간행되고 있다.¹⁹⁾

이 기록에서는 촌은이 매창을 만난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젊은 시절이라고만 적어 놓고 있으나, 대략의 시기를 짐작해 볼 수는 있다. 백대봉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순변사 이익(李鎰)을 따라 상주싸움에 참가했다가 전사하였다고 하니 매창이 두 사람 중 어느 분이시냐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적어도 1591년 이전에 만난 것이어야 한다. 촌은의 명성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던 매창은 촌은을 만나자 마자, “유(劉)와 백(白) 중 어니 분이시냐?”라고 물었다. 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컸던 매창이 직접 그들 중 한 명인 촌은을 만났을 때에는 그 기쁨이 상당했을 것이다. 촌은 역시 매창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음이 동하기는 마찬가지였다.

「贈癸娘」

曾聞南國癸娘名 남국의 계랑 이름 일찍이 알려져서

19) 少遊扶安邑，有名妓癸生者，聞君爲洛中詩客，問曰，劉白中誰也 蓋君及大鵬之名動遠邇也 君未嘗近妓，至是，破戒，蓋相與以風流也 癸亦能詩 有梅窓集刊行
유경희(편저자), 유자국(수집), 김창협(선정), 유태웅 『村隱集』, 「行錄」, 1707년.

詩韻歌詞動洛城 글 숨씨 노래 재주 한양에까지 올렸어라.
 今日相看眞面目 오늘에사 참모습을 대하고 보니
 却疑神女下三清²⁰⁾ 선녀가 떨쳐입고 내려온 듯하여라.

위 시는 촌은이 매창을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이 시에서 보면 촌은 역시 매창의 글재주와 노래 숨씨를 익히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촌은은 매창을 처음 본 순간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하다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유희경은 매창에게 여러 편의 시를 지어 주면서 사랑을 전했는데 특히 다음 시에서는 매창과 희롱하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戲贈癸娘」
 柳花紅艷暫時春 버들 꽃 붉은 몸매도 잠시 동안만 봄이라서
 撻髓難醫玉頰頰 고운 얼굴에 주름이 지면 고치기 어렵다오.
 神女不堪孤枕冷 선녀인들 독수공방 어이 참겠소.
 巫山雲雨下來頻 무산에 운우의 정 자주 내리세

이 시에 대해 박천규는 “일찍이 여류와의 기록이 없었던 촌은은 계량과 破戒까지 하는 사이가 된다.”²¹⁾라고 평하고, 김지용은 “이 시는 매창과 만나서 운우의 정으로 즐기며 회작한 시이다. 즐거움은 이때가 절정이었으리라.”²²⁾라고 말했다. 촌은이 매창과 만나는 동안 ‘운우의 정’에 빠져 있었음을 쉽게 추측하게 해준다.

「山中秋夜」
 白露下秋空 흰 이슬은 가을 하늘에 내리고
 山中桂花發 계화는 산중에 활짝 피었어라.

20) 『村隱集』 권1.

21) 박천규, 「촌은 유희경의 시세계」, 『한문학문집』 제6호, 단국한문학회, 1988. p.37.

22) 김지용, 앞의 논문, p.12.

折得最高枝 높은 가지 한 송이 꺾어 들고서
歸來伴明月 명월과 짝하고 밤중에 돌아오네

위의 시는 계랑에게 주는 시라고 밝혀 있지는 않으나 역시 위의 시와 일맥상통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계화(桂花)’가 계랑을 뜻한다고 본다면, 가장 높은 가지 하나를 꺾어 들었다는 것은 곧 매창을 처음 만나 만족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매창 역시 춘은을 만나는 동안 사랑의 즐거움을 노래한 시를 지었는데 그 양상은 춘은의 시와 사뭇 달라 흥미롭다.

「登龍安台」
雲是長安一代豪 이를 일러 장안의 으뜸가는 호걸이라네
雲旗到處靜波濤 구름 깃발 닿은 곳에 물결은 고요해라.
今朝部話神仙事 오늘 아침 입을 모셔 신선 얘기 들었는데
燕子東風西日高 제비는 동풍 맞아 지는 해에 높이 떴어라.

매창이 유희경을 처음 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그가 ‘장안의 일대 호걸’처럼 보였다. 그와 만나서 아침부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은 구름 깃발이 닿은 곳에 물결도 고요하여 평화롭지 이를 데 없다. 또 매창은 유희경을 만나서 신선 얘기 즉, 선(仙)이나 도에 대하여 학문적인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해 괴장히 설레어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매창은 학식이 뛰어났던 춘은을 처음 존경의 마음으로 사모했을 것이다. ‘제비는 동풍을 맞아 지는 해에 높이 떴다’는 것은 매창이 유희경과의 학문적인 교류와 사랑을 통해 거듭난 한껏 고양된 즐거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시에 의하면 유희경은 매창과 선이나 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유희경은 그저 매창의 얼굴에 주름이 지기 전에 운우지정이나 즐겨보려는 마음을 한시 속에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반면 춘은은 매

창과 달리 남성적이고 육체적인 욕구에서 매창을 곁에 두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매창에 대한 촌은의 사랑을 한 단면만을 보고 일방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상당 부분 매창의 생각과 대치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희경이 자신을 정신적·학문적 교류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주었다고 믿었던 매창의 생각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 듯하다.

「贈別」

嵎嗟時事已如此	세상형편 이러하니 어찌하면 좋을른가
半世功夫學畫油	반평생 배운 것이 그림 공부뿐이라네
明日浩然歸去後	내일 아침 훌쩍 떠나가 버린 뒤에
不知何地又羈遊	어디선가 또다시 호탕하게 노닐 테지

이 시에서 보듯이 매창은 이별하는 임에게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워할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 않는다. 유희경이 결코 자신을 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떠나가는 임은 금세 나를 개의치 않고 호탕하게 놀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평생 배운 그림 공부에나 정을 붙이고자 한다. 따라서 후에 매창이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기다렸던 임은 첫 연인이었던 촌은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촌은은 많은 작품에서 그것이 매창을 위한 것임을 제목을 통해 밝히고 있으나, 매창은 단 한편의 시에서도 촌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즉, 매창이 평생을 그리워 한 님은 촌은뿐이었다기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인격체로 대해주는 진정한 임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사랑을 나누었던 두 사람은 촌은이 서울로 올라가면서 이별을 맞게 된다. 촌은은 곧 이어 발발한 임진왜란에서 의병활동에 나서게 되고 매창과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그 후 매창은 깊은 고독에 빠지게 되고 그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시를 수없이 짓게 된다. 그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연인이었던 유희경에 대한 미련은 쉽게 처음 쉽게 떨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가곡원류』에는 매창이 지은 「이화우(梨花雨)」라는 시조와 함께 간단한 가사가 함께 적혀 있다.²³⁾

梨花雨 흘날일 제 울며 잡고 離別한 님
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헛더라

계량(桂娘)은 부안 명기이며, 능히 한시를 잘하여 『매창집』을 출간했다. 촌은(村隱) 유경희(劉希慶)과 더불어 사랑하는 사이인데, 촌은이 서울로 돌아간 뒤에 소식이 없었으나, 매창은 이 노래를 부르며 수절했다.²⁴⁾

이 기록은 「이화우(梨花雨)」라는 시조가 유희경을 위해 지어진 것임을 확실히 하고 있으며 매창은 오직 그만을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가곡원류』 속의 기록이 얼마나 사실과 가까운가는 의문이 든다. 매창의 시조를 기록하면서 매창의 삶에 대한 부분도 그 시대 지배계층의 윤리에 맞도록 적어놓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본다. 여류인 매창이 수절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그런 배경에서 가능한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로 올라간 유희경도 「증계량(贈癸娘)」, 「회계량(懷癸娘)」 등 15편의 시를 지어 매창을 그리워하며 가슴 아파 하기는 했지만 다시 만나게 되는 1607년, 약 15년 동안 단 한번도 매창을 찾아오지는 않았다.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 그는 의병활동으로 공을 세워 정3품 당상관의 벼슬을 받게 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며, 결국 명목상이긴 하지만 사대부 당상관으로 어느 정도의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된다. 또한 침류대라 불렸던 그의 집에는 당대 내노라하는 문인들이 드나들면서 교류를 하고 시단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매창과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촌은으로서는 마음으로만 매창을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할 수는 있었

23) 가곡원류에는 매창의 시조 10수가 수록되어 있지만 이 중 매창의 작품으로 확실한 것은 「梨花雨」단 한 수뿐이다.

24) "桂娘扶安名妓 能詩出梅窓集 與劉村隱希慶故人 村隱還京頓無音信 作此而守節." 『가곡원류』

어도, 자신의 일을 뒤로 한 채 선불리 찾아갈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원래부터 유교적인 예학에 밝았던 촌은은 매창과 다시 재회한 순간에도 너무나 보고 싶었다는 말 대신 다른 변명을 덧붙인다.

「重逢癸娘」

從告尋芳自有時 예부터 님 찾는 것은 때가 있다 했는데
樊川何事太遲遲 시인께선 무슨 일로 이리로 늦으셨던가
吾行不爲尋芳意 내 온 것은 님 찾으려는 뜻만이 아니고
有趣論時十日期 시를 논하자는 열흘 기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시에는 ‘매창이 자신에게 10일만 더 묵으면서 시를 논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기에 이렇게 쓴 것²⁵⁾이라는 註가 붙어 있다. 매창과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는 애간장이 끓어질 것 같다며 매창을 그리워하던 그가 정작 대면한 순간에는 그 감정을 토로해내지 않은 것이다. 촌은은 너무 늦게 찾아온 것에 대해 미안하기도 할 테고 또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 보았자 자신이 책임질 수도 없었기에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매창에게 있어 촌은과의 만남은 사랑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좌절이었고, 그의 문학작품에 끝없는 번뇌를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촌은이 서울로 떠난 뒤 10여년을 외롭게 살던 매창은 이웃 고을 김제에 군수로 내려온 이귀(李貴)(1557~1633)를 만나게 된다. 허균(許筠)은 『정소복부고(惺所覆瓿稿)』 「조관기행(漕官紀行)」에서 매창과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였는데 여기서 이 글귀가 언급되고 있다.

신축년(1601년)…… 7월8일 정유에 벼슬을 내어놓고 아침 동작나루를 건너다. ……壬子(7월 23일)에는 부안에 도착했는데 비가 쏟아져서 그 곳에 머물렀다. 생원 고흥달이 찾아왔으며, 여류 계생과 만났는데 그는 옥여(玉汝)(이귀)의 정인이다. 거문고를 끼고 시를 읊는데 그 인물은 비록 뛰어나지 않았지만 재주가 있고 정이 많은 여자이어서 가히 종일토록 더불어 시와 노래로서 함께 주고 받으며

25) 余在完山時 娘謂余曰 願爲十日論詩 故云

어울려서 즐길 수 있었다. 저녁에는 그 조카를 나에게 찜찜시키고 자기는 슬쩍 피해 버리더라.²⁶⁾

이귀는 1567년에 명문가에서 태어나 자는 이율곡, 성혼 등에게 글을 배운 사대부였다. 이귀는 1601년 3월 21일에 과직될 때까지 약 3년을 김제 군수로 있었으며 그 동안 매창과 만남을 가졌다. 촌은이 떠난 후 버려진 매창은 현실적으로 소식마저 끊겨버린 촌은에 대해 굳은 절개만을 노래하면서 살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가곡원류』에는 촌은이 떠나자 매창은 수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앞서 말하였듯이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여류는 존재 이유가 없으며, 달리 살아나갈 방도도 없다. 여류이었던 매창은 촌은 대신 또 다른 연인을 찾아야 했고, 이번에는 가난과 천한 신분과는 거리가 먼 권력이 이귀를 택한 것이다. 물론 매창이 이귀를 택했다기보다 이귀가 김제 군수로 재임 시에 명기인 매창의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 교유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똑같이 천한 출신으로 동병상련을 느끼며 사랑했지만 결국은 그 임에게조차 버림을 받았던 매창은 곁에 다가온 이귀에게 권력 때문이었든 사랑 때문이었든 인연을 맺어야 했다.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허균이 매창에 대하여 ‘이귀의 정인’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둘의 관계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으며, 공식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허균이 매창을 처음 만난 것은 1601년이다. 이때 매창의 나이는 28세이고, 허균은 32세로 두 사람은 처음 만남에서부터 서로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성소복부고(惺所覆瓿稿)』 「조관기행(漕官紀行)」에서 살펴보았듯이 허균은 매창과 처음 만난 날 그의 재주와 정취를 높이 평가하고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시로써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허균은 알려진 대로 여류들과 노는 것을 즐겼다. 황해도사로 있을 때에 서울의 창기들을 데려갔다가 과직까지 당했으며²⁷⁾, 여행할 때마다 몇몇의 여류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는 그들의 이름을

26) 辛丑……七月初八日 丁酉辭朝渡銅雀浦……壬子到扶安 雨甚留 高生弘達來見 倡桂生李玉汝情人也 挾瑟吟詩 貌雖不揚 有才情可與魚終日觴詠相和 夕納其姪於寢爲遠嫌也. 『惺所覆瓿稿』 「漕官紀行」

27) 황해도사 허균은 서울에서 창기들을 데려다가 모아놓고, 따로 관아를 만들었습니다.

지 기행문에다 뿔뿔하게 밝혀 놓았다. 심지어는 의주에서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한 여류가 열두 명이나 된다²⁸⁾고 자랑삼아 늘어놓기도 했다.

그러한 허균이 매창과는 끝내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은 특이할 만하다. 처음에 매창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자신의 친구 이귀의 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그 후에도 남녀의 정욕을 초월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허균이 매창의 재주와 기예뿐만 아니라 매창의 가치관과 심성까지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그는 후에도 매창과 시문과 가금을 즐기고 자연을 관조하며, 참선과 신선 사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10여 년간 관계를 유지했다. 허균은 매창과 편지도 주고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두 편이 전해진다.

계랑에게

계랑이 달을 바라보면서 거문고를 뜯으며, 「산자고새」의 노래를 불렀다니 어찌 그윽하고 한적한 곳에서 부르지 않고 부윤의 비석 앞에서 부르시어 남들의 놀림 거리가 되셨소. 석자 비석 옆에서 시를 더럽혔다니 이는 낭의 잘못이요, 그 놀림이 곧 나에게 돌아왔으니 정말 억울하외다. 요즘도 참선을 하시는지. 그리움이 몹시 사무친다오.²⁹⁾

- 기유년(1609) 정월

허균은 1609년 정월에 쓴 이 편지에서 매창의 행동 때문에 오해와 소문으로 놀림을 받게 된 것을 원망하고 꾸짖고 있다. 매창이 허균을 그리워하여 달밤에 비석 옆에서 거문고를 뜯으며 구슬픈 노래를 불렀다고 소문이 났던 것이다. 허균은 그의 문집 『성소시화(惺叟詩話)』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다.

황해도와 관리와 백성들 가운데 그를 비웃거나 꾸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청컨대 그의 파직을 명하소서. 『선조대왕실록』 卷 120, 기해년(1599) 12월19일, 허경진, 『허균』, 평민사, 1983, p.142.

28) 府娼悉在羅跪以見, 汝人數之, 曾來汝訪者凡十二人. 『惺所覆瓿稿』 卷19, 「乙酉西行紀」.

29) 娘望月揆瑟而謳山鷓鴣 不於閑處密地乃碑前鑿齒所觀 汚詩於三尺去思石此娘之過也 歸於僕冤哉 近亦 參禪否 相想耽切 『惺所覆瓿稿』 卷21 「漕官紀行」

부안의 여류 계생은 시를 잘 짓고 노래와 거문고를 잘 하였는데, 그와 가깝게 지낸 태수가 떠나간 뒤에 고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서 그를 사모하였다. 어느날 달도 밝은데 계생이 비석 옆에서 거문고를 뜯으며 긴 노래로 하소연하였다. 李元亨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시를 지었는데 다음과 같다.³⁰⁾

一曲瑤琴怨鷓鴣	한 곡조 거문고를 뜯으며 자고새를 원망하는데
荒碑無語月輪孤	거친 비석은 말이 없고 달마저 외로워라.
峴山當日征南石	현산에 세웠던 남녁정벌의 비석에도
亦有佳人墮淚無	그 또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 눈물 흘렸던 일이 있었나.

이 기록을 보면 매창이 부안의 어떠한 태수와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태수가 누구인지는 다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매창이 그를 기리기 위해 세워 놓은 비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거문고를 연주했다는 것을 보면 두 사람 사이는 매우 가까웠던 듯 하다. 그런데 이 광경은 사람들 사이에서 ‘매창이 허균을 그리워하여 달밤에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식의 소문으로 번지게 되었으며, 허균은 이에 대하여 항의의 뜻을 담아 매창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허균과 매창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허균은 편지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매창의 근황을 물어보고 그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친다고 전한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보낸 편지를 통해서 매창과 함께 한 시간들을 되짚어 보며 그리움을 전하기도 한다.

계랑에게

30) 扶安倡桂生工詩，善謳彈，有一太守狎之去後，邑人立碑思之，一夕佳月，生彈琴於碑石上，遡而長歌，李元亨過而見之，作詩曰，『惺所覆韻稿』 卷25，「惺叟詩話」.

봉래산의 가을빛이 한창 짙어가니, 돌아가고픈 생각이 문득문득 난다오. 내가 자연으로 돌아가겠단 약속을 저버렸다고 계량은 반드시 웃을 거외다. 우리가 처음 만난 당시에 만약 조금치라도 다른 생각이 있었더라면, 나와 그대의 사귀어 어찌 10년 동안이나 친하게 이어질 수 있었겠소. 이젠 진회해(秦淮海)를 아시는지. 선관(禪觀)을 지나는 것이 몸과 마음에 유익하다오. 언제라야 이 마음을 다 털어 놓을 수 있으리까. 편지 종이를 대할 때마다 서글퍼진다오.³¹⁾

이 편지는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보내는 글처럼 편안함이 느껴진다. 허균이 말했듯이 두 사람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연인관계는 아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신적 교류를 통하여 서로를 깊게 신뢰하고 아껴온 사이였다. 위의 편지에서 보면 그리움에 사무친다거나, 자신의 마음을 언제라야 다 털어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허균이 매창에게 단순한 우정 이상의 감정을 갖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매창이 세상을 떠나자 그를 추모하는 시를 짓기도 한 허균은 다음 해 직접 부안땅에 내려왔다.

또한, 허균은 매창에게 불법의 진리와 참선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매창의 정신세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매창은 참선을 통해 현실의 고달픔을 초월하고자 하였고, 이는 그의 작품 세계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즉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초월하고 관조하는 자세를 보이는 시들이 바로 그것이다.

춘은이 이매창과 남녀간의 사랑을 나누었다고는 하나 매창에게 남겨 준 것은 사랑과 이별의 아픔뿐이었다. 매창은 춘은과의 이별을 통해 여류로서의 자신의 삶이 그러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자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허균은 매창의 삶과 가치관에 긍정적인 변화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으며 끊임없이 정신적인 교감과 우정을 나누었다. 허균은 매창을 친한 여류로서가 아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벗과 같이 여겨 주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

31) 蓬山秋色方濃 歸興翩翩 娘心笑 惺惺翁負丘壑盟也 當時若差一念 則吾與娘交安得十年 膠漆 乎. 到今知秦淮海非夫 而禪觀之持有益身心矣. 何時吐盡 臨楮惺然 『惺所覆韻稿』 卷21, 「己酉九月」

동안 한결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며, 매창 역시 허균의 그러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의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매창은 1610년 서른여덟의 아까운 나이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매창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기록은 없어 매창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허균이 몸조리를 잘하라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사고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의하면 매창의 육신은 그의 유언대로 거문고와 함께 쓸쓸히 묻혔다고 한다. 그의 무덤은 부안 읍에서 2km 쯤 떨어진 봉덕리 교동마을 공동묘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지방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어 있다.

매창이 죽은 뒤 45년만인 1655년 그의 무덤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고, 그로부터 13년만에 시집이 출판되었다. 매창이 수백편의 시를 지었다지만 다 없어지고, 그때까지 부안의 아전들이 전해 외우던 58편을 모아서 목판에 새긴 것이다. 그뒤 300년의 세월이 흘러 비석의 글자들이 이지러졌으므로, 1917년에 부안 시인들의 모임인 부풍시사(扶風詩社)에서 비석을 다시 세웠다. 부풍시사에서 매창의 무덤을 돌보기 전에는 자손이 없는 매창을 위해 마을의 나무꾼들이 해마다 서로 벌초를 해왔다고 하며, 남사당이나 가극단, 유랑극단이 들어올 때에도 읍내에서 공연을 하기 전에 이곳 매창의 무덤을 찾아와서 한바탕 굿판을 벌였다³²⁾고 한다.

촌은과 허균은 각각 매창의 죽음을 추모하는 시를 지었는데 우선 촌은의 시는 다음과 같다.

香魂忽駕白雲去	향그러운 넋이 상여를 타고 백운 위로 갔으니
碧落慙茫歸路賒	푸른 하늘 아득히 돌아 올길 멀고 멀어라.
只有梨園餘一曲	오직 한 곡조 이원에 남았으니
王孫爭說玉眞歌	왕손들은 다투어 옥진가를 부르누나.

이 시 속에 나타나는 양옥진, 즉 양귀비는 곧 매창을 가리킨다. 촌은은 매창

32) 허미자, 『이매창 연구』, 성신여대 출판부, 1998. p.372.

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향그러운 혼’이 흰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에 비유하여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한편 허균은 매창의 죽음을 애도하며 읊시 두 수를 남겼는데, 주를 붙여 매창의 사람됨과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록해두었다.

「哀桂娘」

妙句堪擒錦	아름다운 글귀는 비단을 펴는 듯하고
清歌解駐雲	맑은 노래는 구름도 멈추게 하네.
偷桃來下界	복숭아를 훔쳐서 인간세계로 내려오더니
竊藥去人群	선약을 훔쳐서 인간무리를 두고 떠났네.
燈暗芙蓉帳	부용꽃 수놓은 휘장엔 등불이 어둡기만 하고
香殘翡翠裙	비취색 치마엔 향내가 아직 남아 있는데
明年小桃發	이듬해 작은 복숭아가 열릴 때쯤이면
誰過薛濤墳	그 누가 설도 ³³⁾ 의 무덤 길을 찾아오려나.
淒切班姬扇	저절하여라, 반첩여 ³⁴⁾ 의 부채여
悲涼貞女琴	슬프기만 해라, 탁문군 ³⁵⁾ 의 거문고일세
飄花空積恨	흘날리는 꽃잎은 속절없이 시름만 쌓고
衰蕙只傷心	시든 난초 볼수록 이 마음 더욱 상하네.
蓬島雲無迹	봉래섬엔 구름도 자취가 없고
滄溟月已沈	푸른 바다엔 달마저 벌써 잠가었으니
他年蘇小宅	이듬해 봄이 와도 소소 ³⁶⁾ 의 집엔
殘柳不成陰	남아있는 버들로는 그늘 이루지 못하리라.

33) 당나라 중기의 이름난 여류. 음률과 시에 뛰어나서 언제나 백낙천, 원진, 두목지 등의 시인들과 시를 주고받았다.

34) 班婕妤는 漢 나라 成帝의 후궁이다. 성제의 사랑을 받다가 조비연에게로 총애가 옮겨가자 참소를 당하였다. 長信宮으로 물러나 태후를 모시게 되었는데, 이때 자기의 신세를 쓸모 없는 가을 부채에 비겨 시를 읊었다.

35) 卓文君이 과부였을 때 사마상여의 거문고 소리에 반해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뒤에 사마상여가 무릉의 여자를 첩으로 삼자. 탁문군이 白頭吟을 지어서 자신의 신세를 슬퍼하였다.

36) 南齊 때의 이름난 여류. 뜻이 바뀌어서 여류의 범칭으로도 쓰인다.

계생은 부안의 여류이다. 시를 잘 짓고 글도 알았으며, 노래와 기악금도 또한 잘 하였다. 성품이 또한 깨끗해서 음란한 짓을 즐기지 않았다. 내가 그 재주를 사랑하여서 거리낌 없이 사귀었다. 비록 우스갯소리를 즐기며 가까이 지냈지만, 어지러운 지경에까지 이르진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가 오래 되어도 시들지 않았다. 지금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한 번 울어주고 울시들을 지어 슬퍼한다.

허균은 매창을 대함에 있어 외모를 떠나 시문에 능한 재주를 먼저 칭송하고 그의 품성을 깨끗하다고 평하였다. 허균은 매창을 하늘에서 잠시 내려온 선녀로 표현하는가 하면 매창의 글귀가 구름까지 멈추게 한다는 최대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또한 허균은 매창을 ‘반첩여의 부채, 탁문군의 거문고’로 비유하며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이를 보면 허균은 매창이 여류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한을 지니고 있었는가 하는 것까지를 짐작할 만큼 그를 깊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유여시

유여시(柳如是: 1618-1664년)는 어렸을 때의 성은 ‘양(楊)’씨이고, 이름은 애(愛), 운(雲), 운연(雲娟), 영련(影憐) 등으로 불렸다.³⁷⁾ 후에 성을 ‘유(柳)’씨로 개명한 뒤, 첫 이름은 ‘은(隱)’(일설에는 隱雯), 자(字)는 ‘미무(靡蕪)’이었는데, 이후 다시 또 이름을 ‘시(是)’로, 자(字)는 ‘여시(如是)’로 바꾸었다고 한다.³⁸⁾ 이

37) 유여시의 이름 가운데 ‘影憐’은 유여시의 ‘소자(小字)’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清 王 沄의 『輞川詩鈔』의 「虞山柳枝詞」 14수 가운데 첫 수에 대한 부주(附注)로 “姬少吳中大家婢，流落北里，楊氏，小字影憐”라는 기록이 보이고, 胡文楷도 「柳如是年譜」(范景中 · 周書田編 『柳如是事輯』 p.456.)에서 유여시의 ‘어렸을 때의 자(小字)’는 ‘影憐’이라 하였다.

38) 楚欣은 「且說柳如是」라는 글에서 유여시가 신기질(辛棄疾)의 “我看青山皆嫵媚，料

외에도 불교 경전에 보이는 “여시아문(如是我聞)³⁹⁾이란 말에서 스스로를 ‘아문거사(我聞居士)’로 부르기도 했으며, 전겸익(錢謙益)과 결혼한 후에는 유씨가 하동(河東)의 군망(郡望)이라는 사실에서 하동군(河東君)이라 불렀다.⁴⁰⁾ 그녀에게는 20여개에 이르는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데⁴¹⁾, 그것은 어릴 때의 불행과 이후 성장하면서 기루출신(妓樓出身)으로서의 인생역경이 일반인과는 달리 매우 많은 곡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여시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행하였다. 그가 태어난 곳은 절강(浙江) 가흥(嘉興)인 것으로 여겨지나, 강소(江蘇) 오강(吳江)이라는 설도 있다. 주채천(周采泉)은 『유여시잡논(柳如是雜論)』의 「유여시동년지추측(柳如是童年之推測)」에서 명말 사회환경과 생활습관을 근거로 하여 ‘유여시는 사대부 가문 출신이나 4,5세에 가문의 몰락으로 인하여서 인신매매 상인에 의해 가흥에서 오강으로 유괴되어 왔다가 기루로 팔려 갔다.’고 하였는데, 남아 있는 자료의 부

靑山看我應如是(내가 보기에 청산은 모두 아름다우니, 짐작컨대 청산도 나를 보면 응당 그러하리라.)”라는 구에서 ‘如是’라는 ‘자(字)’를 취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

39) 부처의 10대 제자 가운데 아난(阿難)의 기억력이 가장 좋았다. 부처가 열반에 드실 때, 곁에 지키고 있던 아난이 조용히 다음과 같이 물었다 :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누굴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어디에 안주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악인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경전(經典)의 결집은 어떻게 해야 비로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부처가 아난에게 대답하기를 “계율(戒律)을 스승으로 삼고, 사념처(四念處)에 안주하고, 악인을 만나면 그와 쟁변하거나 다투지 말고 침묵으로 대하고, 불경을 결집할 때는 경전의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如是我聞)’로 시작하여라.”고 말씀하셨다. 후에 부처의 경전을 결집할 때에 아난이 여러 사람들의 추송을 받았다. 『長阿含』, 『中阿含』, 『雜阿含』, 『增一阿含』, 『譬喻經』, 『法句經』과 같은 최초의 경전은 모두 제1차 경전결집대회(經典結集大會)에서 아난이 외워낸 것이다. 경전을 결집할 때에 아난은 부처의 분부대로 경전의 첫머리에 ‘如是我聞’ 4자를 썼는데, 이후로 ‘如是我聞’ 4자는 경전(經典) 경문(經文)의 시작하는 부분의 상용어로 쓰여왔다.

40) 유여시가 전겸익을 처음 만나서 시를 주고 받을 때 전겸익의 「冬日同如是汎舟有贈」시에 답하며 지은 「次韻奉答」시 말미에 “莫爲盧家怨銀漢，年年河水向東流”란 말이 보인다. (이 두 작품은 모두 『東山酬和集』에 실려 있다. 『東山酬和集』은 『柳如是詩文集』과 『柳如是集』에 부록형식으로 실려 있다.) 유여시 시의 말미에 보이는 그 두 구는 梁 武帝의 「河中之水歌」에 나오는 “河中之水向東流，洛陽女兒名莫愁”를 응용한 것인데, 전겸익이 유여시를 ‘하동군(河東君)’이라 칭한 데에는 그녀의 군망(郡望)을 취한 것 이외에도 이 구절의 뜻을 암용한 것이기도 하다. ‘郡望’은 우리나라의 ‘본관(本貫)’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41) 劉燕遠 『柳如是詩詞評注』, 「芳菲悱惻總關情」, 北京古籍出版社, 2000년, p.1.

죽으로 그 정확한 경과를 알 수는 없다.⁴²⁾ 유여시가 팔려간 곳은 오강 성택진(盛澤鎮)의 기원(妓院)인 귀가원(歸家院)으로서 이곳의 주인은 양(楊)씨 성을 가진 여인이었다. 유여시는 바로 이때부터 양모(養母)의 성을 따라서 유씨에서 양씨로 성을 바꾸었다고 한다.⁴³⁾

성택진 귀가원에서 여류애미로서 유여시를 관리한 이는 절강지방의 명말 명기였던 서불(徐佛)이었다. 이 여인은 거문고와 바둑에 정통하였고, 시문서화(詩文書畵)에도 뛰어나서 당시의 명사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다. 어린 유여시는 서씨의 훈도 아래 시문서화를 배울 수 있었으니, 이것은 그녀의 성품과 인격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당시의 일류 문사들과 교류를 하는 데에도 지적인 바탕이 되었다.

1631년 유여시는 그녀의 나이 14세에 재상을 지내다 낙향한 오강의 주도등(周道登) 집안에 주씨집 노모의 시종으로 팔려갔다. 그런데 얼마 뒤 주도등에 의하여 강제로 그의 첩이 되었다. 주도등은 집안에서 항상 나라의 정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는데, 충명하기 이를 데 없었고 배우길 좋아하였던 유여시는 그 집에 있으면서 정치적 견문을 크게 넓힐 수 있었다. 그러나 주씨 집에 있길 채 일년이 되지 못하여서 여러 첩의 참언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위기를 경험하고, 다시 귀가원으로 되팔려 오게 되었다.

귀가원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한때 재상집의 첩이었다(相府下堂妾)’는 신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1632년 그의 나이 15세를 전후하여 화려한 배를 한 척 구입하여 오월(吳越)을 떠돌아다니는 유기(遊妓) 생활을 하면서 송강(松江) 명사들과 긴밀한 교류를 가졌다.⁴⁴⁾ 이해 11월 유여시는 진계유(陳繼儒)의 75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송강 여산(佘山)에 있

42) 유여시가 사람에게 속아서 오강의 성택진으로 팔려간 것은 승정 원년(1628년) 그녀의 나이가 11세 전후되던 때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卞敏의 「柳如是是秦淮妓嗎?」(『南京史志』 제3집, 1998년.) 참조요.

43) 劉燕遠 『柳如是詩詞評注』, 「柳如是年譜」, 北京古籍出版社, 2000년, p.279. 이와 달리 진조오(錢肇鰲)는 『質直談異』 권7의 「柳如是軼事」(『柳如是別傳』上 p.48)에서 ‘유여시가 주도등의 집에서 쫓겨나 다시 귀가원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성을 유씨에서 양씨로 바꾸었다’는 취지로 기술하였다.

44) 錢肇鰲의 『質直談異·柳如是軼事』: “扁舟一葉, 放浪湖山間, 與高才名輩相遊處.”

는 그의 산방(山房) ‘만향당(晩香堂)’으로 갔는데, 이곳에는 당시 유명하였던 명사재자로 진자룡(陳子龍), 송징여(宋徵輿), 이대문(李待問), 이문(李雯), 송징벽(宋徵璧) 등이 있었고, 미녀여류로 왕수미(王修美), 설림(雪林) 등이 있었다. 당시 이곳에 모인 이들 명사는 모두 기사(幾社)의 주요 인물이었다. 기사는 명말에 장부(張溥)가 복사(復社)를 창립한 것과 같은 시기에 진자룡이 창립한 문학사단이었다. 이들은 전후칠자(前後七子)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공안파(公安派)와 경릉파(竟陵派)를 반대하였지만, 그러나 이들은 현실정치의 기초 위에서 존고복고(尊高復古)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시정(時政)의 혼탁함이나 민생의 질고에 대한 폭로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는 명대 말기로서 당쟁이 매우 격렬하였기 때문에 기사의 이념도 정치적 현실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고무하면서 나라와 백성을 구해내는 영웅관을 형성해내고 있을 때였다. 유여시가 송징여와 진자룡을 처음 만난 곳은 바로 이 만향당(晩香堂)이었다.

유여시가 기사(幾社)의 명사 가운데 가장 가깝게 지낸 이들은 송징여, 이대문, 진자룡 이 세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들과 교유하면서 시문 방면의 조예가 꾸준히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정(時政)을 논하는 그들의 열정과 자세에 영향을 받았다. 그녀 역시 마침내 시사(時事)에 관심을 갖고 격양강개하면서, 민족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강인한 정신을 형성하게 되었다. ‘천하의 흥망에는 아낙네에게도 책임이 있다(天下興亡匹夫有責)’는 생각은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하겠다.

송강의 여러 재상 가운데 유여시와 가장 먼저 사랑에 빠진 이는 명문대족 출신으로 진자룡, 이문과 함께 ‘운간삼재자(雲間三才子)’의 한 사람으로 불려졌던⁴⁵⁾ 송징여이었다. 1633년 유여시의 나이 16세를 전후하여 유여시와 송징여는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송징여의 어머니는 송징여가 ‘떠돌이 여류(流妓)’과 사귀다고 그를 극렬하게 꾸짖고, 송강부 관청에서도 송모(宋母)의 요청을 받아서, 풍속을 해치는 일이라고 유여시를 책망하면서 기한을 주고 그곳을 떠나도록 명령하였다. 유여시는 송징여를 만나서 책상 위에

45) ‘雲間’은 강소성(江蘇省) 송강현(松江縣)의 옛 이름이다.

고금(古琴)⁴⁶⁾과 일본칼(倭刀)을 올려놓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마음이 유약한 송징여는 유여시에게 “잠시 예봉을 피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말을 들은 유여시는 크게 화를 내면서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지만, 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당신과 결별입니다.”고 말하면서, 책상위에 놓인 고금을 일본칼로 내리쳐서, 고금의 일곱 줄 모두를 한 칼에 잘라버렸다. 송징여는 이에 깜짝 놀라서 나가버렸는데, 이후로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되었다.⁴⁷⁾

1633년 봄 무렵 유여시는 진자룡⁴⁸⁾과 사랑에 빠진다. 진자룡은 유여시를 위하여 7언절구 「청루원(靑樓怨)」 2수를 짓는다. 가을에는 진자룡이 회시(會試)를 위하여서 상경하는데 유여시는 이때 그를 위해 5언율시 「送別」 2수를 짓고, 진자룡은 「록별(錄別)」 4수로 증답하였다. 이듬해 봄, 진자룡은 회시에

46) 고금(古琴-중국의 옛 악기)

47) 錢肇鰲, 『質直談異七·柳如是軼事』: (與宋轅文)情好邃密. ……爲太婦人所怒,跪而責之. ……轅文由是稍疏,未幾,爲郡守所驅,如之請轅文商決,案置古琴一張,倭刀一口,問轅文曰,‘爲今之計,奈何?’轅文徐應之曰:‘姑避其鋒,’如之大怒曰,‘他人爲此言,無足怪,君不應爾,我與君自此絕矣.’持刀砍琴,七絃俱斷,轅文駭愕出. * 원문의 ‘如之’는 모두 ‘如是’의 잘못으로 여겨진다.

48) 陳子龍(1608-1647)은 명말의 대표적인 애국충신으로서 시문가(詩文家)이자 사인(詞人)이다. 자가 와자(臥子)이고, 호가 대준(大樽)이며 송강 화정(松江 華亭: 지금의 상해시 송가현) 사람인데, 당시 사람들은 그를 “운간수호(雲間繡虎)”라 높이 불렀다 한다. 송정 10년 진사급제하여, 소흥추관(昭興推官)에 임명되었으며, 병과(兵科) 급사중(給事中)으로 발탁되었다. 명이 멸망한 후에 반청의사들을 규합하여 송강에서 의거를 일으켰지만 실패하여, 가흥(嘉興)의 수월암(水月庵)에 몸을 숨겨서 스님이 되었다. 청(淸)의 순치(順治) 3년에는 진진(錢旃), 하완순(夏完淳) 등과 다시 의거를 도모하다가 일이 발각되어서, 남경으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물에 투신하여 순국하였다. 그의 문학 주장은 진후칠자를 계승하였으니, 시(詩)·부(賦)·문(文)은 위진(魏晉)을 모범으로 하여야 하며, 작품은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지실한 감정을 펼쳐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윤이(夏允彝) 등과 함께 ‘고학(古學)을 부흥한다.’는 구호를 내세워서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기사(幾社)’라는 시사(詩社)를 창시하기도 하였다. 청나라 군대가 남하한 뒤에 지은 시가는 시대 상황을 마음아파하고 이에 분개하는 작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진자룡의 시는 어렵긴 하지만 비참한 사회생활을 제재로 하고 있어, 무겁고 비분한 정감이 넘친다. 『기사고(幾社稿)』, 『진이창화집(陳李倡和集)』, 『평로당집(平露堂集)』, 『백운초(白雲草)』, 『상진각고(湘眞閣稿)』, 『삼자시고(三子詩稿)』 등의 시문 이외에도 서부원(徐孚遠)과 함께 『황명경세문편(皇明經世文編)』 500여 권을 편찬하였으며, 저서에 『진충유공전집(陳忠裕公全集)』 (30권)이 있다. 대표적인 작품에 「삼주가(三洲歌)」를 비롯해 「추일잡감(秋日雜感)」, 「매아행(賣兒行)」, 「소거행(小車行)」, 「요사잡거(遼事雜居)」, 「전당동망유감(錢塘東望有感)」 등이 있다.

서 실패하고, 낙향하여서는 빈객의 방문을 사양하고 주연을 멀리하면서 두문불출하였다. 그러나 이때도 유여시와는 여전히 창화하는 작품이 적지 않았다. 늦가을 무렵에 유여시는 「남락신부(男洛神賦)」를 지어서 진자룡에게 바치며 그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고, 진자룡은 「채연부(採蓮賦)」로 응답하였다.

1635년 그녀의 나이 18세에 유여시는 진자룡과 재능이나 성격이 서로 비슷하였고, 의기도 서로 투합하였기에 이해 봄에 진자룡과 송강 남원(南園)의 작은 누각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이곳은 송강성 남문 안에 있는 친구 서무정(徐武靜)의 별장으로서 진자룡은 이 누각을 남루(南樓)라 이름을 지었다. 당시 진자룡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여시에 반해서 집을 나와 그녀와 동거를 하였던 것이다. 이해 여름 진자룡의 본처인 장유인(張孺人)이 조모 고안인(高安人)과 계모 당의인(唐宜人)의 지시를 받고 남원으로 와서, 두 사람이 헤어지도록 압박하였으니, 유여시는 더 이상 진자룡과 함께 있지 못하고, 그와 헤어진다. 유여시는 그러나 진자룡과 헤어지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와 많은 시를 주고 받았다.

1637년 그녀의 나이 20세에 진자룡이 송강을 떠난 이후부터 1640년 유여시가 23세의 나이로 전겸익(錢謙益)과 관계를 가지기까지 유여시의 삶은 문헌의 부족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그녀가 승정 11년~12년의 2년동안 왕연명(汪然明)과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서 그간의 그녀의 생활의 일단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⁴⁹⁾ 왕연명은 항주(杭州)의 부옹(富翁)으로서 서호(西湖) 주변 횡운산(橫雲山)에 별장과 대형 유람선 몇 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계원(不係園)’이라 불린 이곳은 화려하고 웅장하기 이를 데 없었다. 왕연명은 이때 오중(吳中) 명기 임천소(林天素)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유여시는 임천소와 교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연명과도 친숙하게 지냈으므로, 유여시는 항주에 오면 바로 그의 횡산산장에서 거주하였다. 유여시와 왕연명과의 편지 내용으로 보아서 그녀는 이때 송강, 소주, 항주, 가정(嘉定) 등을 왕래하면서 평생을 의탁할 짝을 찾았다

49) 왕연명의 본이름은 왕여겸(汪汝謙)이고, ‘연명(然明)’은 그의 자(字)이다. 유여시가 왕연명에게 보낸 편지로 남아 있는 것은 31통인데, 모두 『柳如是尺牘』이란 이름으로 그녀의 문집에 실려 있다.

니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왕연명도 그녀가 짝을 찾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여시는 이때 자신의 짝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첫째 문재(文才)가 있어야 하고, 둘째 정치적 지위가 있어야 하고, 셋째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⁵⁰⁾ 1638년 유여시는 그녀의 나이 21세 때 왕연명의 소개로 사삼빈(謝三賓)을 알게 된다, 사삼빈은 재물을 믿고서 그녀를 급히 취하려 하였지만, 1640년 봄, 유여시는 그의 인품이 비열하다 여기고 그와 절교한다. 이때 병이 생겨 각혈하게 되자, 항주를 떠나 가흥(嘉興)으로 피해가서 양병(養病)하면서 오래(吳來)의 작원(勺園)에 머물다가, 한 달여 뒤에 다시 성택진(盛澤鎮)의 귀가원(歸家院)으로 돌아간다. 이 일로 유여시와 왕연명과의 관계도 끝이 난다. 1640년 그녀의 나이 23세가 되는 그해 초겨울 11월에 유여시는 왕연명(汪然明)의 소개로 남장을 한 채 배를 타고 상숙(常熟) 우산(虞山)의 반야당(半野堂)으로 전겸익(錢謙益)을 찾아간다.⁵¹⁾ 전겸익(1582~1644)은 명말의 문단의 태두이며 동림당(東林黨)의 영수이다. 유여시는 오래 전부터 이미 그의 학문과 명성을 흠모해왔었다. 유여시는 의도적으로 전겸익에 접근하면서 「경진년 경월에 반야당으로 목재 선생님을 방문하여서, 장구의 시를 바친다(庚辰仲冬訪牧翁於半野堂奉贈長句)」는 시를 한 수 전달한다. 그녀는 이 시에서 전겸익의 학문을 동한(東漢)의 경학대사인 마융(馬融)에 비견하면서도 오히려 마융의 재학(才學)을 능가함이 있다는 뜻을 암시하였고, 동진(東晉)의 현상(賢相)인 사안(謝安)의 전고를 가지고서 전겸익이 동남 인물의 으뜸이라고 추송하였다. 그녀는 전겸익을 동산(東山)에 은거하며 재기를 도모하던 동진의 사안에 비유함으로써 당시 정치적으로 좌절하고 있던 전겸익의 마음을 달래주었을 뿐

50) 蘇同炳, 『中國名女人』(百花文藝出版社, 2000.5, 天津) p.189.

51) 錢謙益: 강소성(江蘇省) 상숙(常熟) 사람으로서. 자(字)는 수지(受之)이다. 호(號)로는 목재(牧齋), 몽수(蒙叟), 동간노인(東澗老人), 어초사(漁樵史), 우산종백(虞山宗伯) 등이 있는데, 학자들은 그를 우산선생(稱虞山先生)이라 칭하였다. 청초 시단의 맹주이었다. 만력(萬曆) 38년(1610년) 진사시(進仕試)에 급제한 뒤 승지를 거둬서 예부상서(禮部尙書)가 되었으나, 1645년 청나라의 군대가 강남(江南)을 공략하였을 때 청군에게 항복하여 예부우시랑(禮部右侍郎)이 되었다. 그러나 곧 병을 빙계로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죽었다. 그의 처세에는 절조가 결여된 면이 있었으나, 시작(詩作)에는 뛰어난 솜씨에 막힘이 없었으며, 그의 박학은 불전 연구에까지 미쳤다. 저서로 『초학집(初學集)』, 『유학집(有學集)』 등이 있었으나, 건륭제(乾隆帝) 때 그의 변절이 크게 문제되어 일체의 저작이 금절(禁絶)되었다.

만 아니라, 자신의 방문을 후한(後漢)의 순상(荀爽)이 이옹(李膺)을 배알하는 것에 비유하여 그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만들었다. 유여시가 남장을 하고 전겸익을 찾아간 것은 자신의 미모나 여색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시재로서 그를 감동케 하려는 것이었다.

전겸익은 유여시의 시에 답하여서 「유여시가 산방을 방문하여서 시를 보내 주었는데, 말이 매우 장중하며 고상하기에, 이에 보내온 운에 따라서 즉시 차운하여 답하노라(柳如是過訪山堂, 枉詩見贈, 語特莊雅, 輒次來韻奉答)」는 시를 지어서 그녀를 전한(前漢)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부인인 탁문군(卓文君)에게 비유하여 그녀를 추켜 세우면서, 그녀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전겸익은 이후에 별도로 다시 유여시에게 「겨울 날 유여시와 함께 배를 띄우고 지은 시를 보내노라(冬日同如是泛舟有贈)」는 시에서도 그는 유여시에 대한 애모의 정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유여시는 이에 대하여 다시 「차운봉답(次韻奉答)」 시를 보내는데, 전겸익은 이 시를 읽고서, 그녀의 빼어난 재능과 아름다운 문체, 오묘한 전고운용과 심오한 비유구사 등이 “시에서는 이백과 두보와 같다(詩中李杜)”는 칭호는 받던 자기 자신도 흉내내지 못할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마침내 그녀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버린다.⁵²⁾ 전겸익은 그녀를 위하여 ‘아문실(我聞室)’을 짓고, 그녀로 하여금 그곳에 거처하게 하였다.

1641년 6월 7일, 유여시는 그녀의 나이 24세 되던 해에 전겸익과 부용방(芙蓉舫)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전겸익은 이때 정실부인이 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매인을 넣어서 정실부인을 맞이하는 예를 취하여 유여시와 결혼식을 거행했는데, 이 일은 당시 사대부들에게 많은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유여시는 전겸익과 함께 강운루(絳雲樓)에 거처하면서, 서로 시문을 음창하며 매우 달콤한 결혼생활을 영위하였다. 이해 11월 유여시는 전겸익과 함께 진강(鎮江), 소주(蘇州) 등으로 놀러 갔다. 소주에서는 남송의 항금(抗金) 명장 한세충(韓世忠)과 그의 처 양홍옥(梁紅玉)의 묘를 배알하였고, 진강에서는 금산(金山)과 초

52) 蘇同炳, 『古代名女人』, 「文采風流柳如是」(故宮出版社, 2011년.) p.194~197과 姜正萬의 『中國學論叢』第12輯「柳如是의 애정시를 통해 본 그녀의 生涯 研究」(한국중국문화학회, 2001년) p.69~70. 참조요.

산(焦山) 두 산을 돌아 보았다. 유여시는 병중에서도 금산의 옛 전장터를 회고하면서, 금나라 군대에 항거하던 남송 병사들에게 북소리로 사기를 올려주었던 양홍육의 기개를 흠모하기도 하였다.

1644년 유여시의 나이가 27세 되던 그해 3월에 이자성(李自成)의 농민군이 북경을 점령하고 숭정 황제는 매산(煤山)에서 목을 매고 자살한다. 4월에는 청나라 군대가 산해관을 넘어서 북경을 점령한다. 명의 조정이 무너지고, 오삼계(吳三桂)는 청에 투항하고, 청(淸)의 군사들이 북경을 점령하였다는 소식이 남경에 전해오자, 남경을 지키던 문무대신들 간에는 새로운 군주를 세우는 문제로 의론이 분분하였다. 내내 집에서 한거하던 전겸익은 이때 유여시를 데리고 남경으로 간다. 유여시는 이때 머리 위 관(冠)에 꿩깃을 꽂고, 군장을 갖추어 말을 타고서 전겸익 바로 뒤를 따라갔으니, 그 모습은 길을 가던 사람들 사이에 일시의 미담으로 전하기도 하였다. 남경에 도착한 뒤 전겸익은 동림당(東林黨)에서 차지하고 있던 자신의 지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하여서 사가법(史可法) 등 조야(朝野)의 실력과 인물들과 결탁하여 새로운 군주를 세우는 일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마사영(馬士英) 등이 먼저 선수를 쳐서 복왕(福王) 주유송(朱由松)을 남경으로 호위해 와서는 남명(南明) 조정을 건립하였다. 얼마 뒤 실권을 움켜쥔 마사영 등은 측근인 완대성(阮大鍼)을 병부상서로 추천하고, 전겸익이 예부상서를 맡게 한다.

유여시가 남명 조정의 예부상서 부인이 된 일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영예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개인의 은원득실을 따지지 않고, 당파간의 정쟁에 초연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완대성은 환관 위충현(魏忠賢)이 중심이 된 환관당(閹黨)의 잔당세력으로서 당시 평판이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문재(文才)는 있어서 『연자전(燕子箋)』 등의 명곡을 지었고, 유여시의 「무인초(戊寅草)」와 「호상초(湖上草)」 등의 시작품에 대하여서 극히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전겸익이 술자리를 마련하고 완대성을 초대하였는데 유여시도 그 자리에 있었다. 술자리에서 유여시는 『연자전(燕子箋)』의 곡을 노래불렀는데, 완대성은 마치 지음(知音)을 만난 듯, 그녀에게 진주를 장식한 순금 봉황관(赤鳳凰冠)을 선물하였다.

완대성은 어느 하루 병부상서로서 장강 가의 수비상황을 순시하러 가면서, 유여시를 청하여 함께 방어진을 순시하면서 군사들을 위로케 하였다. 이날 유여시는 남송 명장 한세충의 부인 양홍옥의 모습대로 분장하고, 성대한 군장을 갖추어, 아주 큰 검붉은 말을 타고서 완대성의 동행 하에 변방부대의 제일 앞에서 영웅스런 모습으로 열병하며 나아갔다. 일행이 연자기(燕子磯)에 이르렀을 때 강에는 적지 않은 전선이 정박해 있었고, 연자기 꼭대기에는 많은 화포가 놓여 있었다. 완대성과 유여시는 연자기 꼭대기의 성에 올라서 강에서 맹세하는 장중한 의식을 거행하였다. 완대성은 유여시가 여장부 양홍옥(梁紅玉)으로 자처하길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녀를 청하여서 전선들이 연습할 때에 북을 두드리며 위세를 돋우게 하였다. 유여시는 군사들의 환호소리에 감동을 받은 뒤 군사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하여 양홍옥이 금병(金兵)에 대항하며 북을 두드리던 격정으로 전고(戰鼓)를 크게 울렸다. 순간 전고의 북소리와 전사들의 함성소리가 강물 위로 크게 울려 퍼지니, 그 모습은 대단한 장관이었다. 『하동군전(河東君傳)』의 작자 고령(顧苓)이 쓴 「도중에 전겸익 선생님에게 보내다(道中寄錢謙益先生)」는 이에 “그때 남경에서의 일을 말씀하지 마세요, 부인에게서 직접 군중에서 북을 두드렸답니다(莫說當年南渡事, 夫人親自鼓軍中.)”는 시구가 있는데, 이는 유여시가 전선에서 군사들을 위무한 그 일을 크게 칭상한 것이다.⁵³⁾

청 순치(順治) 2년이자 남명(南明) 홍광(弘光) 원년(1645년), 유여시의 나이 28세가 되는 해 4월에 청의 군사들은 사기법이 홀로 지키던 양주성(揚州城)을 깨트리고 5월에 남경에 이르렀다. 성이 함락이 위기에 처하자 홍광제와 마사영, 완대성 등은 길을 나누어서 도망을 갔다. 유여시는 이때 전겸익에게 자결을 권하나, 전겸익은 이를 거절한다, 이에 유여시는 스스로 연못에 빠져 죽으려 하였으나 주변위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전겸익은 남경에 주둔한 청군의 사령관 대탁(大鐸)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한다.

1646년 유여시의 나이 29세가 되는 해 정월, 청의 조정은 전겸익을 예부시랑

53) 卞敏 「柳如是是秦淮妓嗎?」(『南京史志』 제3집, 南京市地方志編纂委員會, 1993.) p.1~12.

으로 임명하여 비서원(秘書院) 일을 관장케 하고, 『명사(明史)』 편수의 부책 임자로 임명한다. 청 조정의 규정대로라면 남명정권에서 항복한 신하들은 모두 북경으로 북상하여 청 황제를 알현한 뒤에 정식으로 관직을 임명받아야 하고, 처첩들도 모두 남편을 따라 함께 와야 했다. 그러나 유여시는 항복한 시하의 부인임을 부끄러워하여, 전겸익이 몇 차례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남경에 남아서 청의 조정이 멍한 부인이 되길 원치 않았다.

전겸익이 혼자 북경으로 간 뒤에 유여시 혼자 남경에 남았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병을 얻고 쓰러져서 문밖을 전혀 출입하지 않았다. 이때 남경의 수서문(水西門) 부근에는 약국 겸 병원을 열고 있던 정(鄭)씨 성의 의원이 관저나 귀족의 집을 출입하면서 그 집안의 부인이나 처첩들에게 의술을 행한다는 명목으로 그 여인들과 사통을 즐겨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서문의 정씨(西文鄭)’라는 별호가 씌워져 있었다. 이때 유여시가 ‘서문의 정씨’를 청하여서 병을 치료하고 있다는 소식은 남경의 상류사회에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남녀간의 염문(艷聞)으로 소문나게 되었다. 전씨 집안에서 집안일을 관리하고 돌보던 전증(錢曾)이 이 소문을 전겸익 고향인 상숙(常熟)의 진부인(陳夫人)에게 편지로 전하고, 전겸익은 진부인의 편지를 받고서 집안에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일신상에 병이 생겼다는 핑계로 사직을 신청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쉴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였다. 조정에서는 비록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전겸익은 북경에서 겨우 반년만 머문 뒤에 남경으로 돌아가서, 유여시와 함께 상숙으로 돌아갔다. 그는 유여시 인품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유언비어로 말미암은 것이라 생각하였다. 청나라에 항복하여 선비로서의 절개를 잃었다는 회한(悔恨)을 지니고 있던 그는 오히려 유여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반청복명(反淸復明)의 결심을 키우게 되었다.⁵⁴⁾

사실 남경의 복왕(福王)정권은 거의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러나 그 사이 화중지방 백성들의 저항은 극렬하였다. 그것은 청조에 의한 변발(辮髮)의 강제였다. 청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10일 이내에 변발을

54) 卞敏 「柳如是是秦淮妓嗎?」(『南京史志』 제3집, 南京市地方志編纂委員會, 1993년) p.1~12.

해야 했는데 이는 한(漢) 민족의 민족적 자긍심을 매우 손상시키는 일이었다. 양주에서는 사가법이 청조의 투항권고를 거부하고 “성이 망하면 함께 망한다”고 선언하여 죽임을 당했으며, 양주거리는 10일만에 걸쳐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강음(江陰)에서는 청조가 파견한 관리를 살해하고 자신들이 세운 관리를 선출하여 81일간 투쟁을 벌였다. 이기간 동안 청군에 의해 살해된 사람은 17만 명인데, 살아서 투항한 사람은 겨우 53명 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대부와 민중의 저항운동에 고무되어 절강에서는 노왕(魯王)을 섭정으로 하는 정권이, 복건에서는 당왕(唐王) 정권이, 광둥에서는 계왕(桂王) 정권이 차례로 성립되었다. 앞의 복왕정권과 합해 이들을 남명(南明)이라 부르는데 이 남명정권들은 내부의 부패와 권력투쟁으로 모두 단명하였고, 오직 계왕 정권만 15년에 걸쳐 저항하였다. 농민군의 지원과 청군의 투항으로 한때 상당한 세력을 회복하기도 하였던 계왕정권은 운남의 곤명(昆明)으로 피해가지만, 그러나 계왕 영력제(永曆帝)는 산해관(山海關)을 열고 청조를 영입한 같은 한족출신인 오삼계에 의해 미안마까지 도망갔다가, 마침내 곤명으로 붙잡혀 와서 살해되면서 반청복명활동도 막을 내리게 된다.⁵⁵⁾

그러나 유여시가 전검익과 함께 남경에서 상숙으로 돌아갈 때만 하여도 반청복명활동은 남경에서 남쪽으로 옮겨가서 절강에서는 노감국(魯監國)이, 복건에서는 용무제(隆武帝) 당왕(唐王)이 굳건한 반청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였다. 상숙으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자 성 안에서 장강 곁 백묘진(白茆鎮)의 홍두산장(紅豆山莊)으로 옮겨 거주하면서, 해상(海上)의 소식과 반청지사(反淸志士)와의 연락에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646년 겨울에 강음(江陰)의 반청의사(反淸義士) 황육기(黃毓祺)가 눈보라를 무릅쓰고 홍두산장을 방문하였는데, 유여시는 이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에게 모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거를 위한 준비활동에도 참여하였다. 1647년 3월 유여시는 군사들을 음식으로 위로하기 위하여 해상(海上)으로 가다가 회오리바람을 만나는데, 다행히 난은 당하지는 않았다. 이해 황육기의 의거활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

55) 谷口規矩雄 著 · 鄭盛一 譯, 『아시아역사와 문화』 제4집, 신서원, 1997년. p.160~162.

듬해인 1648년 황육기는 체포된다. 전겸익도 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관병들이 반야당(半野堂)으로 전겸익을 체포하러 왔을 때 집안사람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일대 혼란이 일어났으나, 오직 유여시만은 병중임에도 몸을 깨끗이 세우고 나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겸익을 수행하였다. 전겸익은 남경의 형부(刑部) 감옥에 구금되었고, 유여시는 그를 구해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유여시는 먼저 진회하(秦淮河) 주변의 친구 집에 머물면서, 전겸익의 친구와 문생들을 찾아가서 남편을 구출할 수 있는 윗선을 찾고자 하였다. 전겸익은 당시 비병사(備兵史)에 임명된 양신가(梁愼可) 집안과는 3대에 걸쳐 내왕이 있었고, 유여시도 지난날 양신가의 모친인 오(吳) 부인으로부터 크게 환심을 받기도 하였다. 양신가는 홍승주(洪承疇 : 1593~1665년)와는 과거시험 동여류인 데다가, 당시의 홍군 막부는 그의 측근이었다. 유여시가 양신가 집에 가서 보여준 바, 자신의 죽음으로써 남편을 구하겠다는 정신은 양씨의 모친을 크게 감동시켰다. 양씨의 모친은 유여시를 청하여서 조릉장(雕陵莊)에 거주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자식의 아들에게 전겸익을 구해낼 방법을 찾아보라고 여러 차례 간곡히 당부하였다. 유여시의 이러한 다방면의 중재노력을 통하여서 전겸익은 압송된 지 40여 일 후에 마침내 석방을 얻게 되었다. 전겸익은 황육기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유여시의 지혜와 용기에 의하여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명조를 회복하려는 두 사람의 의지는 이 일로 인하여서 결코 좌절되지도 않았다. 이후로 유여시가 다시 남경으로 간 적은 없었다.⁵⁶⁾ 두 사람은 소주(蘇州)의 출정원(拙政院)에 잠시 머물렀고, 유여시는 이해에 딸을 한 명 낳았다.

1649년 유여시의 나이 32세가 되는 해, 두 사람은 소주에서 상숙으로 돌아와서 처소를 홍두산장으로 옮겼다. 전겸익은 이해 명조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열조시집』을 편찬하였는데, 유여시는 그를 도와서 그 가운데 「규수(閨秀)」를 교감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이 시기에 중국에서 유행한 조선의 여류문인 허난설헌(許蘭雪軒)의 시집을 읽고 난설헌 시의 표절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기도 했다.⁵⁷⁾

56) 卞敏 「柳如是是秦淮妓嗎?」(『南京史志』 제3집, 南京市地方志編纂委員會, 1993년) p.12.

황육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유여시 부부의 반청복명 결심은 전혀 좌절하지 않았다. 1650년 유여시의 나이 33세 되던 해, 그해 3월에는 황종희(黃宗羲)가 상숙으로 와서 전겸익의 강운루(絳雲樓)에 머물면서 함께 반청복명의 계책을 논의 하였다. 전겸익은 심야에 백은 7량을 노자 돈으로 주면서 그것이 유여시의 뜻이란 것을 전하였다. 이해 5월에 전겸익은 절강의 금화(金華)로 가서 절강총병 마진보(馬進寶)로 하여금 반청활동에 참여하도록 권고한다. 그리고 상숙으로 돌아온 전겸익은 이듬해에 황종희의 종생 황종염(黃宗炎)을 대신해 편지를 써서 다시 금화로 가서 마진보와 연락한다. 사실 당시 청조에 대하여 가장 큰 위협세력은 바로 정성공(鄭成功)의 해상군대이었는데, 정성공은 동남일대의 해안에 근거를 두고 순치 7년에는 급기야 하문(廈門)을 점령하고 다시 동남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복주(福州), 대주(臺州) 등을 점령하였다. 그의 해상부대가 양자강 하구에 이르렀을 때 황종희를 중심으로 하는 명조의 유민세력은 양자강 어귀를 지키고 있던 청조의 금화총병 마진보를 설득하여, 정성공의 해상부대와 연합작전을 펴는 것을 최후의 희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황종희는 전겸익을 찾아와서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다시 유여시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황종희에게 주어서라도 반청활동을 돕고자 한 것이다.

1652년 겨울 요지탁(妖志卓)과 주전고(朱全古)가 홍두산장을 찾아와서 정성공의 밀함(密函)과 이정국의 납서(蠟書)를 가져왔다. 당시 정성공이 반청 해상세력의 대표였다면, 이정국은 광서(廣西), 광둥(廣東), 호남(湖南) 일대 내륙에서의 반청세력 중심이었다. 1653년에 항청명장인 장명진(張名振)의 수군이 백

57) 허난설현(許蘭雪軒 : 1563-1589년)은 조선 중기의 여류시인으로서 허균(許筠)의 누이이다. 그녀는 이달(李達)에게 시를 배워 천재적인 시재(詩才)를 발휘했으며, 1577년(선조 10년) 김성립(金誠立)과 결혼했으나 원만하지 못했다고 한다.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시작(詩作)으로 달래어 섬세한 필치와 여인의 독특한 감상을 노래했으며, 애상적 시풍의 특유한 시세계를 이룩하였다. 작품 일부를 동생 균이 명나라 시인 주지번(朱之蕃)에게 주어 중국에서 시집 『난설현집(蘭雪軒集)』이 간행되어 격찬을 받았고, 1711년 분다이야 지로(文臺屋次郎)에 의해 일본에서도 간행되어 애송되었다. 허난설현 시에 대한 표절문제 제기는 錢謙益의 『列朝詩集小傳』(상해고적출판사 1983) p.813의 「許姝氏」에 보인다. 范景中 · 周書田의 『柳如是集』(中國美術學院出版社, 1999.12)의 「柳如是詩文拾遺」 p.179에도 실려 있다.

묘항(白茆港)을 지나가자, 유여시는 전겸익과 함께 술과 음식을 가져가서 군사들을 위로하였다. 1654년 4월 전겸익은 금화로 가서 마진보의 40세 생일을 축하할 기회로 다시 그를 설득하고 돌아온다. 8월에는 요지탁이 다시 홍두산장으로 와서 도움을 청하자, 유여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털어서 오백 명의 신무군(神武軍)을 무장시킨다. 1657년 전겸익은 남경으로 가서 정성공이 남경을 공략할 수 있도록 반청인사들을 규합하였다.

순치 년간은 청조가 명조의 잔존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시기였는데, 유여시가 거주하던 홍두산장은 이렇게 해상의 항청복명 세력과 여락하는 비밀 거점이 되었다. 비록 정성공의 해상부대가 남경전투에서 청군에 패하여 대만으로 철수하였긴 하지만, 당시 정성공의 해상부대가 동남일대를 장악하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 남경을 포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전겸익과 유여시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⁵⁸⁾

전겸익이 절개를 굽혀 청조에 항복하였을 때 유여시는 전겸익이 나라의 운명을 따라서 자결하도록 권하였지만, 순국하려고 하였으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겸익은 동립당의 영수이긴 하지만, 그 의지와 식견은 유여시보다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유여시는 확실히 그 지혜로움이나 의지가 남을 뛰어넘는 점이 있었다. 그녀는 단지 언어문자로만 비분강개하였던 것이 아니라, 실제의 행동에서도 거침없이 나아갔다. 후인들이 그녀를 가리켜 “규방의 장부(閨中丈夫)”나, “두건 쓴 영웅(巾幗英雄)”으로 부르듯이, 그녀에게는 과연 장부의 기질이 있었다고 칭할 만하다.

1648년에 정성공은 청군에 격파당하고 복건으로 회군하게 되자 유여시의 반청복명의 대망은 실현될 날이 요원해졌다.

대세가 기운 것을 느낀 유여시는 가망 없는 반청복명의 꿈을 표기하고 남편과 함께 강운루에 은거했다. 두 부부는 문을 닫아걸고 종일 책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명사(明史)를 편찬했다.

58) 劉燕遠의 「柳如是年譜」(『柳如是詩詞評注』, 北京古籍出版社, 2000년) p.288~290과 姜正萬의 「柳如是의 愛情詩를 통해서 본 그녀의 生涯 研究」(『中國學論叢』第12輯, 한국중국문화학회, 2001년) p.79 참조.

1650년 10월 둘째 날 밤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그들의 어린 딸 희희(嬉戲)가 뛰어놀다가 실수로 잘라버린 촛대가 종이더미에 떨어졌고 이것이 큰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강남 최고의 장서각과 진귀한 장서 1만여 권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책을 아꼈던 두 사람은 매우 가슴 아파했고 공들여 편찬하고 있던 역사서도 끝을 보지 못했다.

생계가 막막해진 부부는 그나마 온전하게 보존된 책들을 저당 잡혀 겨우 먹고 살았다. 가산과 권력을 모두 잃은 전겸익의 집안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빚 독촉을 해왔다. 결국 강희(康熙) 3년 5월24일, 전겸익은 가난과 병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만다.

유여시는 나이 선에 남편과 사별했다. 가장을 잃은 집안에 액운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전겸익이 병으로 누워 있을 때, 고을의 악질 토호 전조정(錢朝鼎)의 패거리가 들이닥쳐 이들은 제멋대로 집안의 재물을 강탈해갔다. 전겸익의 관 뒤에 모셔놓은 효막(孝幕)까지 침범했다. 그들은 상중인 유여시를 능욕하고 그나마 남아 있던 세간까지 긁어갔다. 심지어 유여시의 면전에서 가솔들을 묶어놓고 마구 두들겨 패며가산을 내놓으라고 욕박질렀다. 고인을 모신 영당(靈堂)은 순식간에 형당(刑堂)으로 돌변했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했다.

전조정은 전겸익의 옛 친구를 사주하여 유여시에게 관가의 돈을 빌려주고 거짓 계약서를 쓰게 만들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에서 전가의 가솔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었다. 게다가 유여시를 오랫동안 증오했던 진씨 부인을 포함한 전겸익의 후실들은 매일 대문 앞에 모여서 듣기에도 민망한 욕을 해댔다. 성격이 불같았던 유여시지만 머리끝까지 치민 분노와 비통함을 억누르며 조용히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 또 딸아이의 후사를 안배해놓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죽음으로 끝을 맺으려고 했다.

근 한 달이 지난 후 전조정과 부하들은 진씨 부인의 명을 받들어 재산을 몰수하러 왔으며 큰소리를 쳤다. 전조정의 무리들은 집안의 기물을 뒤집었고 깨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유여시는 공손한 말투로 거짓 승낙을 하였고 전조정은 유여시의 말을 믿고 돌아갔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유여시는 내실로 들어가 피를 토하며 유언을 남긴 뒤 상복 끈을 끄른 후 들보에 목을 매달았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비참함에 눈물을 흘렸다. 희대의 재녀 유여시가 전겸익이 사망한 지 2개월 만에 한 많은 인생을 마감한 것이다.

그녀의 딸과 사위는 모친의 유언을 따라 전겸익의 생전 친구를 찾아가 대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다. 그 친구는 왕년의 우정을 저버리지 않고 이 사건을 법정에 고발했고 음모에 가담했던 전씨 가족과 전조정의 패거리들은 모두 수치스러운 처벌을 받았다.

유여시는 죽어서도 남편과 함께 묻히지 못했다. 전가(錢家)의 선산에서도 쫓겨났다. 유여시의 묘지는 우산(虞山) 기슭에 있는데 외로운 무덤 앞에는 1미터가 조금 넘는 비석 위에 ‘하동군지묘(河東君之墓)’라고 새겨져 있다. 유여시의 묘에서 100보 떨어진 곳에는 전겸익과 조강지처가 함께 묻혀 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유여시를 잊지 않고 그녀의 묘를 늘 청소하고 제사를 올렸지만 전겸익의 묘는 아무도 찾지 않는 황무지가 되어 잡풀만 무성했다. 후일 상속에 부임해온 현령이 전겸익을 가련하게 여기고 묘지를 수리하여 비석을 세워주었지만 전겸익의 이름을 비석에 올릴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동간노인지묘(東澗老人之墓)’라고 글자만을 새겼을 뿐이었다.

Ⅲ. 이매창과 유여시의 시세계

1. 이매창

지금까지 정확하게 매창의 작품으로 전해져 오는 것은 한시 57수와 시조 1수이다. 『매창집』에서는 총 58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나 「윤공비(尹公碑)」라는 시는 매창의 작품이 아니라 이원형(李元亨)의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이는 작품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가. 신분에 대한 한탄

매창의 신분은 여류였기 때문에 다른 아녀자들처럼 한 남자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없었다. 대신 매창을 찾아온 무수한 남자들을 상대하여 그들 놀음의 대상이 되어야 했으며, 놀음이 끝나면 같이 잊혀져야 하는 존재였다. 그러한 운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매창 자신이 잘 알고 있었으며,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한스러워 하였다.

매창은 서울까지 이름을 날리던 명기였으므로 무수한 남자들이 그를 보기 위해 찾아왔을 것이다. 그 중에는 술에 취해 함부로 행동하는 이들도 많았으나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매창에게 그런 일은 일상이었고 그것이 곧 여류의 삶이었다.

「贈醉客」

醉客執羅衫	취한 객이 나삼을 잡아
羅衫隨手裂	나삼이 손을 따라 찢어졌네
不惜一羅衫	나삼 하나야 아까울게 없지만

但恐恩情絕 단지 두려움은 은정이 끊어지는 것이네.

취한 손님이 다짜고짜 덤비며 명주저고리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진다. 매창의 재주와 실력을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허균과 같은 인물도 있었으나, 이렇게 추태를 부리는 손님도 있기 마련이다. 매창은 그런 손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당신이 찢어 놓은 명주저고리 짚은 아깁지 않으나 이러다가는 우리가 쌓은 온정까지도 찢어져버릴까 그것이 걱정이라며 은근히 타이르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더 이상 추태를 부리기란 멋적어서도 못할 일이다.

여류이면서도 당당하고 품위 있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줄 알았던 매창이었지만 마음속에서 깊이 서러움이 밀려드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

「自恨」

春冷補寒衣	봄날이 차서 얇은 옷을 꿰매는데
紗窓日照時	사창에는 햇빛이 비치고 있네.
低頭信手處	머리 숙여 손길 가는 대로 맡긴 채
珠淚滴針絲	구슬 같은 눈물이 실과 바늘 적이누나.

매창은 봄날 햇빛이 밝게 비치는 사창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삶이 서러워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린다. 만물이 생동하는 따뜻한 봄도 매창에게는 차가운 계절이다. 이것은 물리적인 추위가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다. 사랑하는 님도 곁에 없이 이렇게 홀로 외롭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따뜻한 봄과 햇빛도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다. 얇은 옷을 꿰매려고 든 바느질도 나중에는 손길 가는 대로 움직일 뿐 어떤 목적이 없다. 그저 들고 꿰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햇빛 좋은 봄날 홀로 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처지란 더욱 쓸쓸하고 외롭다.

매창이 이렇게 기박한 운명과 천한 신분에 대해 서러워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은 다른 작품들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彈琴」

幾歲鳴風雨 몇 해 동안이나 비바람 소리를 내었던가.
 今來一頭琴 여지껏 지너 온 작은 거문고.
 莫彈孤鸞曲 외로운 난새의 노랫랑 뜯지를 말자더니
 終作白頭吟 끝내 백두음 가락을 스스로 지어서 타네.

매창의 곁에는 항상 거문고가 함께 했다. 언제고 떠나버리는 님과는 달리 매창 곁에서 함께 하며 그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런데 그런 거문고가 몇 해 동안 아름다운 연주가 아닌 비바람 소리를 내며 울었다는 것은 곧 그의 삶이 세찬 비바람 속에 놓여있었음을 뜻한다. 매창은 짝을 잃은 외로운 난새의 노래를 뜯지 말자했건만 끝내 ‘백두음’을 타고 만다. ‘백두음’이란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처인 탁문군(卓文君)이 읊은 노래로 탁문군의 고사가 전하는 작품이다.⁵⁹⁾ 매창 역시 끝내 스스로 백두음을 연구하게 된 것은 자신의 처지가 탁문군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매창이 사랑했던 님들은 즐거운 한때만 곁에 있어주었을 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떠나버리기가 일쑤였다. 매창은 평생 탁문군처럼 금새 맘이 변할 임을 바라보며 붙잡지도 못하고 살아 가야 하는 운명인 것임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彈琴」

誰憐綠綺訴丹衷 거문고로 속마음을 하소연해도 누가 가엾게 여기랴?
 萬恨千愁一曲中 만 가지 한, 천 가지 시름이 이 한 곡조에 들었대요.
 重奏江南春欲暮 강남⁶⁰⁾곡을 다시 타는 동안 봄도 저물어 가는데

59) 사마상여는 가난한 시절 탁문군을 아내로 두었다. 그런데 그는 子虛賦(자허부)로 출세한 직후 아내 탁문군을 곁에 두고도 무릉인을 첩으로 삼으려 하였고, 이를 괴로워한 탁문군은 이 글을 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60) 강남은 중국의 文士(문사)들이 즐겨 놀았던 양주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몹시 흥청거리는 환락지여서 ‘江南曲’이란 용어까지 생겨났다. ‘江南曲’은 규원을 다룬 악부체 시가로서 ‘采蓮曲’과 마찬가지로 男女 相思의 내용을 읊은 것이며, 악곡의 명칭이기도 하다.

오순자, 「이매창시문학론」,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p.25.

不堪回首泣東風 봄바람 맞으며 우는 것일랑 차마 못하겠어라.

강남(江南)은 중국의 문사(文士)들이 즐겨 놀았던 양주(揚州)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몹시 흥청거리는 환락지여서 ‘강남곡(江南曲)’이란 용어까지 생겨났다. ‘강남곡’은 규원을 다룬 악부체 시가로서 ‘채연곡(采蓮曲)’과 마찬가지로 남녀 상사(相思)의 내용을 읊은 것이며, 악곡의 명칭이기도 하다.⁶¹⁾ 이 시에서 ‘강남곡’은 남녀상사의 노래이다. 매창을 찾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의 곁에 영원히 남아준 님은 없어 평생이 외롭고 한스러웠다. 그러한 속마음을 거문고 연구로 하소연해도 님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헤아려주지 않는다. 눈물을 흘리며 보낸 봄도 이제는 다 저물어 가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매창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다만 홀로 거문고를 타고 동풍을 맞으며 눈물짓는 일이었다.

또한 매창은 여류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고통에 부딪쳐 괴로워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愁思 二」

平生耻學食東家	떠돌며 밥 얻어 먹기를 평생 부끄럽게 여기고
獨愛寒梅映月斜	달빛이 비치는 차가운 매화를 혼자서 사랑하네.
時人不識幽閑意	그윽한 내 뜻을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고
指點行人枉自多	행인들 지나다니며 손가락질하네.

「自恨 二」

交人高金刀	옛사람은 돈으로 사귀다가
金刀多敗裂	돈으로 깨어진 이들이 너무 많아라.
不且金刀盡	돈이 다 떨어지는 건 아깝지 않지만
且恐交情絕	정분까지 끊어질까 그게 두려워라
悖子賣庄土	패륜자식 전답 팔아 주색에 빠지더니
庄土漸扯裂	전답은 차츰차츰 찢어 없어지네.

61) 오순자, 「이매창시문학론」,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p.25.

不借一庄土 전답뿐이라면 아까울 게 없지만
只恐宗祀絕 조상 제사 끊어질까 그게 두려워라

「수사(愁思)」를 보면 매창은 평생 남의 밥을 얻어먹고 살아야하는 천한 신분이라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류로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운명인 이상 타고난 신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삶을 살아가는 자세만큼은 지조 있고 품위 있게 지나고자 노력했다. 일반적으로 여류가 생활을 해 나가려면 그들을 찾는 남자들에게서 돈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여류가 되어 남자에게 삿갓을 씌우지 못하면 명기(名妓)가 아니다.”⁶²⁾라는 속담이 있었다고 한다. 명기라면 남자가 의관을 갖추지 못하고 삿갓을 쓰게 만들 만큼 그의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 남자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 써버린다는 것은 어쩌면 잔인한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생활 방안을 생각할 수 없는 여류로서는 살아남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매창은 그러한 일반적인 여류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돈과 전답보다는 사람 사이의 정분을 지키는 것,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더욱 높게 생각하고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다.

「자한(自恨)」을 보면 좀 더 매창의 실제 삶의 모습은 천하고 비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의 내면에는 이러한 가치관과 기품이 잠재해 있었으니 매창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러한 두 가지 인식이 충돌하면서 탄식을 자아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매창의 이러한 생각을 알아주지 않았다. 돈과 전답을 팔고 주색에 빠져 사는 탕아들을 오히려 걱정하곤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의 뜻을 몰라주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했다, 그래서 매창은 홀로 차가운 매화 가지에 비치는 달만 바라보며 괴로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여류의 신분으로서 그런 생활을 아예 벗어날 수 없는 것도 괴로웠지만 세상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의 시선도 매창에게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다음의 시도 매창의 그런 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62) 이능화, 『朝鮮解語花史』, 이재곤 옮김, 동문선, 1992. p.238.

「病中 二」

誤被浮虛說 잘못은 없다지만 뜬소문 도니
還爲衆口喧 여러 사람 입들이 무섭기만 해라.
空將愁與恨 시름과 한스러움 날로 그지없으니
抱病掩紫門 병난 김에 차라리 사립문 닫아 걸리라.

매창은 유명한 여류였던 만큼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있을 것이다. 매창의 작은 행동 하나도 사람들의 오해와 추측이 덧붙여지고 그것은 다시 돌고 돌아 매창의 귀에도 들어왔을 것이다. 사람들이 재미 삼아 주고받는 이야깃거리가 매창에게는 두려움과 큰 상처로 남아 병이 될 지경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일일이 변명을 할 수도 없어 답답한 그는 아예 사립문을 닫아걸고 세상과 담을 쌓아 버린다.

「病中愁思」

空閨養拙病餘身 병들어 빈방에서 본분 지키며
長任飢寒四十春 가난과 추위 속에 40년 일세.
借問人生能幾許 인생이 산다 하면 얼마나 되나
胸懷無日不沾巾 근심으로 울지 않은 날이 없다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매창은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길을 되돌아 본다. 평생 여류로 살면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던 매창은 가난과 추위, 그리고 세상의 오해에 점점 시들어 갔다. 춘은을 비롯하여 몇몇 남성들과 만남을 이어왔지만 병든 몸 홀로 빈방을 지키고 있을 뿐 덧없기만 하다. 길지 않은 사십년 세월을 돌아보면 한숨짓는 매창의 가련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나. 진정한 임을 향한 갈망

이별의 한과 임에 대한 갈망은 매창의 작품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작품은 매창의 유일한 시조이며 가장 유명한 작품이기도 한다.

梨花雨 흘날일 제 울며 잡고 離別한 님
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헛더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조는 매창이 유희경을 떠나보내고 지은 것이라고 한다. 따뜻한 봄에 임과 이별하는 순간에 하얀 배꽃들은 비처럼 아름답게 흘날리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날 매창은 춘은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있다. 아마도 매창의 마음은 배꽃이 한 송이 흘날리듯 산산조각이 되어 흩어져 버렸을 것이다. 차마 손길이 떨어지지 않아 ‘울며 잡고’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떠나 보내어야 할 임이었다, 이 시조는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서 이별의 가슴 아픔을 극대화하는 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시간은 흘러서 벌써 흘러서 어느 덧 가을이 되어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매창은 아직도 떠나간 임을 생각하며 그 임도 자기를 잊지 않고 있을까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연락도 없는 임과는 천리는 떨어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千里’란 부안에 있는 매창과 서울에 머물고 있는 춘은 사이의 지역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를 포함한다. 임에게서는 언제 오겠다는 연락이 없고 매창 혼자서 외로운 꿈을 꾸며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이 시조는 이렇게 배꽃이 아름다운 날 이별하고, 이별하면서 잡는 아이러니한 구조를 통해서 실연의 아픔을 극대화하고 있다.

「自傷」

京洛三年夢 삼 년이나 서울을 꿈꾸었지만
湖南又一春 호남에는 또다시 봄이 왔어라.

黃金移古意 황금 때문에 옛 마음 저버리고
中夜獨傷神 한밤중 나 혼자서 마음만 상해라.

洛下風流客 서울 사는 풍류객 있어
淸談交契長 청담으로 인연 맺은 지 오래인데
今日翻成別 오늘은 마음 변해 이별하다니
離盃暗斷腸 이별하는 술잔에 애끓어지누나.

一片彩雲夢 한 조각 무지개빛 꿈
覺來萬念差 깨고 나니 수십만 가득해,
陽臺何處是 즐기던 그곳 양대 어디에 있는지
日暮暗愁多 날 저무니 속에선 수십만 가득해라.

夢罷愁風雨 꿈을 깨니 시름겨운 비바람 불어
沈吟行路難 세상살이 어려움을 읊조려 보네
殷懃櫟上燕 들보 위의 정겨운 제비 떼들은
何日喚主人 어느 날에 우리 임을 불러 오려나

매창은 처음 사랑했던 춘은과 지내던 3년 간 잠시나마 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굳게 믿었던 춘은은 ‘황금’ 때문인지 약속을 저버리고 이별을 고한다. 여기서 황금은 단지 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권력, 야망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임과 마시는 이별주는 매창의 애간장을 녹이고 춘은은 그렇게 떠나고 만다. 들보 위의 제비들은 정답게 앉아 있는데 매창은 홀로 꿈에서 깨어 쓸쓸함은 배가 된다. 매창은 춘은과 꿈꾸었던 행복한 인생을 ‘채운몽(彩雲夢)’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구름처럼 붙잡을 수 없는 허망한 꿈이었다. 그 꿈에서 깨어난 매창은 상실감과 외로움에 사무치는 마음을 어찌지 못한다. 매창은 춘은이 떠나간 뒤 이귀와도 3년 정도 만남을 가졌지만 이귀가 귀향을 가게 되면서 또다시 이별을 하게 되었으며, 정신적인 교감과 사랑을 나누었던 허균 또한 서

울에 머무르고 있어 매창은 혼자 외로움을 삼켜야 했던 것이다.

임과 이별하는 순간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 두 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自恨 一」

東風一夜雨 동풍불어 한 밤 동안 비가오더니
柳與梅爭春 버들과 매화가 봄을 다투네
對此最難堪 이 좋은 봄날 견디기 어려운 것은
樽前惜別人 술잔 앞에서 애석하게 님과 이별하는 일

「贈別」

堪嗟時事已如此 일이 벌써 이렇게 됐으니 슬퍼도 참아야지요.
半世功夫學畫油 임께선 반생 동안 그림 배우기에만 공들이시는군요
明日浩然歸去後 날이 밝으면 훌쩍 떠나 버리신 뒤에
不知何地于羈遊 어디로 떠돌아 다니실는지 모르겠군요.

「자한(自恨)」에서는 버들잎과 매화가 다투어 피는 따뜻하고 화사한 봄날에 사랑하는 님과 이별해야만 하는 슬픔이 대조되어 있다. 매창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임과의 이별을 앞두고도 차마 그를 붙잡지는 못한다. 「증별(贈別)」에서도 역시 임과의 이별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속으로 인내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매창은 자신과 사랑을 속삭이던 임도 이제 헤어지고 나면 영영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짐작하지만 그래도 한 동안 임의 소식을 기다리며 애태웠던 듯하다.

「愁思」

昨夜清霜雁叫秋 어젯밤 찬 서리에 기러기는 울어 예고
擣依征婦隱登樓 님의 옷 다듬다 말고 다락에 올라 보니
天涯尺素無緣見 하늘은 가이 없고 임의 소식은 알 길 없어
獨倚危欄暗結愁 쓸쓸히 난간에 기대인 체 수심만 끝이 없구나.

「故人」

松柏芳盟日 송백처럼 영원하자 맹세했던 날
恩情與海深 사랑은 깊고 깊은 바닷속 같았는데
江南青鳥斷 멀리 떠난 님께선 소식이 끊어졌으니
中夜獨傷心 밤마다 외로워 마음만 아프구나.

「春思」

東風三月時 동풍 불어 삼월이라
處處落花飛 곳곳에 꽃이 저 흩날리네.
綠綺相思曲 거문고 뜯으며 임 그리워 노래해도
江南人未歸 강남으로 가신 님은 돌아오시질 않아라.

위의 세 편은 모두 매창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 서술하고 있어 다양한 이미지의 표현이나 문학적 형상화의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이 작품을 통해 이별을 겪은 직후 매창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매창은 이별 후 ‘송백처럼 영원하자’며 사랑을 약속하며 행복해했던 한때를 떠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 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소식마저 끊고 찾아오지 않는다. 매창은 사랑하던 님이 자신을 언제고 떠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혹시나 임이 맹세를 지켜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거문고를 연주하고 난간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행동은 모두 님에 대해 희망과 기대를 접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희망과 기대도 오래 가지는 못한 듯 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창은 님에 대해 체념하게 되고 상실감과 고독으로 괴로워한다.

「秋夜」

露濕青空星散天 이슬은 촉촉한데 별들은 반짝이고
一聲叫雁塞雲邊 하늘에는 기러기 구름가에 날고
梅梢淡月移欄檻 맑은 달빛 매화나무에서 난간으로 옮겨갔는데
彈罷瑤琴眠不眠 瑤琴을 타고 났는데도 잠은 안 오네.

별들이 반짝이는 밤 울면서 구름가를 지나가는 기러기의 이미지는 쓸쓸하고 조용한 이 시의 분위기를 한층 더하게 해준다. 매창은 ‘맑은 달빛이 매화나무에서 난간으로 옮겨 갔다’며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매창은 한 밤중 괴로운 자기의 심사를 瑤琴으로 달래려 하지만 마음만 심란해질 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매창은 한 밤중 괴로운 자기의 심사를 요금(瑤琴)으로 달래려 하지만 마음만 심란해질 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閨怨」

離懷悄悄掩中門	이별이 서러워 중문을 닫았노라.
羅衫無香滴淚痕	비단 소매엔 향기 없는 눈물 자국뿐
獨處深閨人寂寂	외로운 규방에 사람 없어 적막한데
一庭微雨鎖黃昏	온 뜰의 부슬비에 황혼마저 잠겼구나.

「春怨」

竹院春沈鳥語多	뜨락엔 봄이 깊어 새들은 노래하나
瑤琴彈罷相思曲	거문고를 끌어다가 상사곡을 뜯었어라.
殘粧含淚捲窓紗	눈물만 머금고 사창을 걷어보니
花落東風燕子斜	동풍에 꽃은 지고 제비들은 비껴 나네.

「규원(閨怨)」에서 매창은 이별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중문을 닫아버린 행위로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매창의 소매엔 눈물이 젖고, 매창의 뜰엔 부슬비가 젖어 슬픔의 이미지가 대비되어 드러나며, 중문을 닫는 행위, 황혼마저 잠긴 풍경은 모두 매창이 마음을 닫고 자신의 고독과 괴로움에 침잠해가고 있음을 잘 나타내 준다. 그러나 「춘원(春怨)」에서 매창은 지금까지와 는 다른 모습을 작품 속에서 보여 준다. 끝없이 자기 세계에 빠져 들어 한탄하는데서 벗어나 차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보려는 의지를 내보이려 하는 것이다. 봄이 깊어 대나무 숲에는 잎이 무성해지고 새들은 그 속에서 사랑을 속삭이듯 정답게 지저

된다. 따뜻한 봄날의 이러한 아름다운 정경이 더 해질수록 매창의 시름은 깊어져 홀로 상사곡을 연주하게 된다. 그러나 거문고를 연주하여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잠시, 금새 자신의 외로움에 눈물짓게 된다. 하지만 마지막 구적을 보면 지금까지 이별의 감정에만 몰입하여 괴로워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의 외부로 시선을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문을 닫아걸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매창은 이제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머금고 사창을 걷어 올려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자기 세계에만 침잠하여 허우적대던 감정을 다잡는 것이며, 자연에 시선을 돌려 감정을 순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매창의 작품 중에는 자연을 관조하는 시들도 상당 수 있는데 이는 매창이 이러한 감정 변화를 겪고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된 후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매창이 말년에 지은 것으로 추측되는 작품들인데, 단순히 임을 그리며 마음을 넘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되짚어 보는 듯 하다.

「贈別」

我有古秦箏	나에겐 오래 된 진나라 쟁이 있어
一彈百感生	한 번 타면 온갖 느낌 생겨난다네.
世無知此曲	세상에는 이 곡조 아는 이 없고
遙和緱山笙	머언 옛적 왕자교의 생황에다 화답하리라 ⁶³⁾

매창의 곁을 늘 지켜 주는 것은 오직 오래된 쟁(箏) 하나뿐이다. 쟁을 연주하면 매창이 담아두었던 모든 응어리들이 솟구쳐 곡조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처음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믿었던 춘은도 서울로 올라간 뒤 15년간 소식을 끊었다. 자신의 재주를 이해하고 사랑해 준 허균도 매창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님은 아니었다. 매창은 평생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 ‘세상에는 이 곡조 아는 이’가 없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매

63) 주나라 靈王이 태자 緱이 솔직하게 간하다가 폐하여 서민이 되었다. 생황을 잘 불어서 봉황의 울음소리까지 내었다. 浮丘 선인과 만나서 30여년이나 송고산에 노닐다가, 緱氏山 마루에서 회학을 타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올랐다고 전해진다.

창은 결국 선계로 올라갔다는 생(笙)⁶⁴⁾의 연주에나 화답하겠다고 말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 고찰한 것처럼 매창의 한시가 오직 한 사람 촌은만을 그리워하며 지어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매창은 자신과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 상징적인 임을 그린 것으로 다음 시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굳힐 수 있다.

「自恨薄命」

舉世好竿操瑟	세상사람 낚시질 좋아하지만 나는 거문고 잡네
此日方知行路難	오늘 문득 알음은 행로의 어려움이네
別足三慙猶未遇	발을 빼이고 세 번 부끄러움 아직 만나지 못해
還將璞玉泣荊山	옥덩이와 함께 돌아와 형산에서 눈물 흘리네.

세상은 낚시질을 좋아한다고 한다. 낚시질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서 얻는 행위로 세속적인 의미로는 재물을 쌓는 등의 욕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창은 정작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거문고를 타는 것을 좋아한다. 물질을 얻기보다는 음악을 연주하고 도를 알아가는 것을 더욱 중요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삶은 세속적인 인간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전(轉), 결(結) 부분에서는 화씨의 이야기가 인용되었다. 화씨는 옥돌을 알아보지 못한 두 왕에서 두 번의 발잘림을 당했지만 결국은 옥돌의 진가를 알아주는 문왕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매창은 세 번이나 부끄러움을 당하고도 아직 임자를 못 만났다고 말한다.

여기서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매창의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준 유희경, 이귀, 허균을 말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매창의 진가를 알아주지 않는다. 매창은 자신이 바로 귀한 옥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느 누구도 옥의 빛이 제대로 발하도록 알아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매창은 그 세 사람을 향해, 더 나아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울음을 터트리는 것이다.

64) 笙-생황(옛 중국의 악기)

다. 자연의 이치와 운명에 대한 순응

매창은 자신의 시세를 한탄하는 데서 벗어나 자연을 감상하면서 인생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지니게 된다. 자신의 신분과 임과의 이별에서 얻은 한을 노래하는 작품에서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면, 자연미를 노래한 작품에서는 그 아름다움을 형상화하여 표현한 것들이 많다.

매창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도솔(개암사), 어수대, 용안대, 천층망, 월명암, 백마강, 동해 등을 돌며 자연을 감상하면서 시상을 얻었으며, 자신의 세계에서만 침잠하여 괴로워하던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登千層菴」

千層隱佇千年寺

瑞氣祥雲石遶生

清磬響沉星月白

萬山楓葉鬧秋聲

천층 산 위에 그옥이 천년사가 서 있고

성서로운 구름 속으로 돌길이 났어라.

맑은 풍경소리 스러지는 속에 별빛 달빛만 밝은데

온 산은 단풍이 들어 가을 소리가 가득해라.

이 시에서 매창은 오래된 절을 둘러싼 자연의 모습을 상서롭고 고요한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다. 천층산 위에 오래 된 절이 하나 서 있는 그곳은 상서로운 구름 속에 돌길이 나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맑은 풍경 소리와 별빛, 달빛은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가 공존하는 것으로 아무도 없어 자칫 적막할 수 있는 자연의 모습을 섬세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로 감싸주고 있으며, 산이란 산마다 색채 고운 단풍이 뒤덮고 있는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적 이미지인 ‘가을 소리가 가득하다’고 표현하여 세련된 문학적 형상화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정의 토로 없이 시청각적 이미지로 탁월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며, 삶에 대한 여유로 움마저

물어나고 있어 앞의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閑居」

石田茅屋俺柴扉 돌밭 초당 사립문을 닫고 지내며
花落花開辨四時 꽃 지고 피는 걸로 계절을 알지요.
峽裡無人晴晝永 산속에는 사람 없고 해는 어이 저리 긴고.
雲山烟水遠帆歸 구름 끝 먼 바다에 돛단배가 돌아오네.

「한거(閑居)」에서는 매장은 시비 많은 현실세상과는 문을 닫고 지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세상과는 달리 자연은 여전히 꽃이 피고 꽃이 지며 순환의 원리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 매장이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보고 세월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에 순응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매장은 사람도 하나 없고 해만 길게 비추는 자연 속에서 인간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지만, 구름 끝 먼 바다에서 돌아오는 돛단배를 바라보며 반가워하기도 한다.

이는 정중동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며, 매장이 조용히 자연 속에 살고자 하면서도 현실에서의 행복했던 삶을 떠올리게 됨을 의미한다.

「自恨 三」

翠暗籠烟柳 버들엔 푸르스름 안개가 끼고
紅迷霧壓花 꽃잎도 붉으스름 안개에 눌렸네.
山歌遙響處 나무꾼의 노래는 멀리서 메아리쳐 오고
漁笛夕陽斜 고기잡이의 피리소리는 석양에 비껴오네.

이 작품의 제목은 자한(自恨)이지만 내용은 자연에 대한 감상을 담고 있다. 이 시에서는 버들과 꽃잎의 풍경이 푸른색과 붉은색의 대비로 잘 나타나 있으며, 나무꾼의 노래 소리와 고기잡이의 피리소리가 메아리치고 석양에 비껴와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자한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밝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이루

며,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 기(起), 승(承)과 전(轉), 결(結)의 대비가 함께 뒤섞여 자연의 모습을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泛舟」

參差山倒影江波 들쭉날쭉 산 그림자 강 물결에 어리고
垂柳千絲掩酒家 수양버들 천 가닥이 주막을 덮었구나.
輕浪風生眼驚起 작은 물결 바람결에도 자던 백로가 놀라 깨고
漁舟人語隔煙霞 고기잡이 말소리는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네.

이 시도 위의 시와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이미지와 청각적인 이미지를 이용한 전개방식을 이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려내고 있다. 일체의 감정은 배제한 채 강물에 비친 산 그림자와 주막을 가린 수양버들은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잠들어 있던 백로가 작은 물결에도 놀라 깨는 모습과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고기잡이의 말소리는 고요한 가운데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다.

「江臺卽事」

四野秋光好 사면의 들에 가을 햇별이 좋아
獨登江上臺 홀로 강둑에 올랐어라
風流何處客 어느 곳의 풍류객인지
携酒訪余來 술병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네.

매창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부안 일대의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내부로만 향해 있던 시선을 자연으로 돌리며 한 단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제껏 자신의 인생을 비판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인정하며 조금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사면 들판이 가을빛으로 물든 가운데 혼자서 강 언덕 정자에 올라있는 매창은 술병을 들고 자신을 찾아오는 풍류객을 맞이하고 있다. 자연을 감상하고 즐기는 가운데 낯선 풍류객과도 술을 마시며 정담을 나누는 모습은 매창이 어느 정도 자연 속에서 인생을 즐길 알게 됐음을 나타내 주는 작품이다.

또한 매창은 자연을 감상하면서 점차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기대어 쉴 수 있는 세계를 동경하며 노래하기도 하였다.

「尋眞」

遠山浮翠色 먼산은 푸른 빛 하늘 높이 떠 있고
柳案暗烟霞 버드나무 강언덕은 안개 속에 잠겼어라.
何處靑旗在 푸른 깃발 펴려있는 곳 그 어디덴가
魚舟近杏花 고깃배는 살구꽃 핀 마을로 다가가네.

이 시 속에 등장하는 자연은 현실 속의 자연이라기보다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산은 푸른빛만 보일 만큼 멀리 있어 하늘에 떠있는 것 같고, 버드나무 언덕은 안개 속에 잠겨 있는 이 곳에서 인간사를 뜻하는 고깃배는 살구꽃 핀 마을로 다가가고 있다.

그러나 매창이 찾고 있는 곳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마을이 아니라 푸른 깃발이 펴려있는 곳이다. 푸른 깃발은 멀리 보이는 산의 푸른 깃발과 대비 되고 있으며, 이 곳은 바로 매창이 편안히 쉬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곳, 동경의 세계를 뜻한다.

하지만 그렇게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풍류를 즐기던 매창도 인간의 유한한 인생이 모두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다음에 제시된 작품은 삶의 무상감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遊扶餘白馬江」

水村來訪小柴門 물가마을 초가집을 찾아오니
荷落寒塘菊老盆 연꽃은 쓸쓸하고 국화가 늙었도다
鴉帶夕陽啼古木 갈가마귀 떼지어 석양고목에 울고
雁含秋氣渡江雲 기러기는 가을 기운을 머금고 강을 건넌다
休言洛下時多變 서울영화 잘 변한다 누가 말했나
我顧人間事不聞 나는 인간사 듣고싶지 않으니
莫向樽前辭一醉 술잔 앞에서 취하는 일 사양하지 마시오

信陵豪貴草中墳 호탕하던 신릉군도 무덤 속에 있다네.

매창은 백마강을 노니면서 아름다운 풍경 대신 삶의 허무감을 맛보았던 듯하다. 강가 마을 초가집을 찾았을 때 그의 눈에 들어 온 것은 아르답고 풍요로운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 쓸쓸한 연못에, 늪어버린 국화, 울고 있는 갈가마귀와 고목이었다. 이는 모두 무상함을 안겨주는 이니지들로 삶의 허무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이 시를 창작한 시기는 매창의 말년 때쯤일 것으로 추정하며, 자연을 감상하며 지은 작품 중 유일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호탕하던 신릉군도 무덤 속에 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인간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있는 매창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누구나 인생은 한번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 들인 매창이 취하는 행동은 술잔을 앞에 놓고 한번 취하는 것이다. 매창은 인간사와 서울의 시속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는 현실을 초월하여 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작품들은 자연을 감상하며 그 정경을 표현한 작품들로 감정이 절제된 묘사 위주의 표현이 주된 것들이었다. 따라서 매창이 자연경관, 생활주변, 대인간의 贈詩등 자기로부터 거리를 가진 대상을 시화했을 때는 문학성을 지닌 주조를 이루고, 정과 한, 고독, 고리움 등에 대한 것은 서술적이 된다는 지적은 매창 문학의 본질을 잘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매창은 자연을 감상하며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선계이다. 매창은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참선에 힘쓰고자 했으며, 선계를 동경하는 내용을 담아 작품을 창작하였다.

2. 유여시

유여시의 시문은 이미 그의 생전에 많이 판각되었다. 『무인초(戊寅草)』는
 승정11년(1638년) 유여시의 나이 21될 때 지어졌는데, 수록된 작품으로는 시
 (詩) 106수, 사(詞) 31수, 부(賦) 3편이 있으며, 책의 앞 부분에 진자룡의 서문
 이 있다. 이 문집은 진자룡에 의해 판각되었다. 『호상초(湖上草)』는 왕연명
 (汪然明)이 유여시 본인의 필사본을 근거로 『무인초』가 나온 이듬해인 승정
 12년(1639년)에 판각되었는데, 수록된 시가 35수이다. 또 『유여시척독(柳如是
 尺牘)』은 유여시가 왕연명에게 보낸 서간 31통이 실려 있는데, 역시 왕연명에
 의하여서 판각되었다. 책의 앞 부분에는 설림(雪林)의 「유여시척독소인(柳如是
 尺牘小引)」이라는 서(序)가 있다. 이 세 문집은 절강도서관(浙江圖書館)에 수
 장되어 있었는데, 1996년 전국도서관문헌 마이크로필름복제중심(中華全國圖書
 館文獻縮微復制中心)에서 이 책들을 영인 출판하고자 하였을 때 절강도서관의
 곡휘지(谷輝之)에 의하여서 처음 편집되었다. 책은 2000년 상해고적출판사에서
 『유여시시문집(柳如是詩文集)』이란 이름으로 출판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여시 관련 자료로는 가장 편리한 책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⁶⁵⁾

유여시의 시는 이 외에도 다른 문집에 실려 있는 작품이 적지 않다. 『동산
 수화집(東山酬和集)』 2권은 전겸익이 유여시를 비롯하여 그의 지인들과 창화
 한 시들을 모은 시집인데, 여기에는 전겸익의 시뿐만 아니라 그의 지인들의 시
 수십 수를 포함하여서 유여시의 시 18수도 실려 있다. 또 전겸익의 문집인
 『목재유학집(牧齋有學集)』에도 유여시의 시가 몇 수 실려 있고, 추의(鄒漪)가
 집한 『유여시시(柳如是詩)』에는 고체시와 근체시가 29수 실려 있다.⁶⁶⁾ 곡휘

65) 유여시 시문과 관련 자료를 수록한 책으로는 『유여시시문집(柳如是詩文集)』 이외
 에도 범경중(范景中)이 편찬하고 주서전(周書田)이 집교(輯校)한 『유여시집(柳如是
 集)』(中國美術學院出版社, 1999.12.)이 참고할 만하고, 유여시의 생평이나 일사(佚事)
 등과 관련된 자료를 모은 책으로는 역시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편찬한 『柳如是事
 集』(中國美術學院出版社, 2002.3.)을 참고할 만하다. 장중항(張中行)의 「柳如是」
 (『독서(讀書)』, 1981.5, Z1期)에 따르면, 『柳如是事集』 이전에 유여시의 사적과
 관련된 청대의 각종 문헌을 모은 것으로는 설원회포거사(雪苑懷圃居士)가 기록하고,
 1930년대 초 문자 동맹사(文字同盟社)가 간인하였다고 하는 『柳如是事集』이 있다.

66) 『유여시시(柳如是詩)』는 추의(鄒漪)가 편찬한 『詩媛十名家集』 十卷에 실려 있
 다. 『유여시시(柳如是詩)』는 원각본은 전하지 않고, 지금 전하는 것은 장종상(張宗
 祥)에 의해 전해오는 초본이라고 한다. 추의(鄒漪)는 자(字)가 류기(流綺)이고 강소성
 (江蘇省) 무석(無錫) 사람이다. 「유여시시소인(柳如是詩小引)」의 말미에는 “량계주

지가 편찬하고 상해고적출판사에서 발행한 『유여시시문집(柳如是詩文集)』에 서는 『동산수화집(東山酬和集)』 2권을 부편일(附編一)로 실고 있고, 유여시 문집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겸익의 문집이나 기타 타인의 글에 보이는 유여시의 시 10여 수와 사 1수, 유촉(遺囑) 한 편을 부편이(附編二)에서 『유여시시문보집(柳如是詩文補集)』이란 이름으로 실고 있다.

『유여시시문집(柳如是詩文集)』에는 이외에도 고령(顧苓), 심규(沈虯) 등이 쓴 유여시 전기 4종, 전조오(錢肇鰲)의 「질직담이 · 유여시일사(質直談耳 · 柳如是佚事)」 등 35개의 단편 잡기기록, 및 임운봉(林雲鳳), 왕국유(王國維), 원매(袁枚) 등의 제영(題詠) 78수를 부록(附錄)으로 모아 두었다.

지금 전해오는 유여시의 문집을 보면 그의 문학작품은 역시 시가 중심이 되어 있다. 유여시의 창작활동은 그녀의 나이 23세가 되는 숭정13년(1640)의 겨울 우산(虞山 : 지금의 상숙[常熟]) 전겸익(錢謙益)의 반야당(半野堂)을 방문하는 것으로 전후를 나눌 수 있다.⁶⁷⁾ 그의 시는 『무인초(戊寅草)』의 106수, 『호상초(湖上草)』의 35수, 『유여시시(柳如是詩)』의 29수, 『동산수화집(東山酬和集)』의 18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집에 산재해 있는 10여수 등으로 약 200수가 전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무인초(戊寅草)』, 『호상초(湖上草)』, 『유여시시(柳如是詩)』에 실려 있는 시는 모두 170수인데, 이들 작품은 『유여시척독(柳如是尺牘)』과 함께 대부분은 유여시가 20세 초반 이전에 지은 작품들이다.⁶⁸⁾ 유여시가 23세 이후에 지은 작품으로는 『동산수화집(東山酬和

사의류기제(梁溪鄒斯漪流綺題)"라 하였는데, '양계(梁溪)'는 그의 출신지인 무석(無錫)의 양계(梁溪)를 가리키고, 류기(流綺)는 그의 자(字)이다. 그의 이름은 기록자에 따라서 '추의(鄒漪)', 또는 '추사의(鄒斯漪)'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추의(鄒漪)'로 통일하였다. 장중항(張中行)은 「柳如是」에서 『柳如是詩』에 “고금체시 이십구수(古今體詩 二十九首)”가 실려 있다고 말하면서, 『柳如是詩』의 편자를 '추의(鄒漪)'라 하였는데, 이는 '추의(鄒漪)'의 잘못으로 여겨진다. 중국서망(中國書網 sinoshu.com)에서 소개한 이 책의 서지사항에 따르면 (中國書網에서 이 책을 비롯한 각종 문헌의 선본에 대하여 유료로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柳如是詩』에 대한 영인본은 \$ 400에 제공한다고 함), 이 책은 청(淸) 순치(順治) 12년(1655년)에 추씨(鄒氏)의 예의제(鰲宜齋)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필자도 鄒漪가 편찬한 『柳如是詩』를 아직 구해보지는 못하였다.

67) 劉勇剛, 「從雲間到虞山」(『浙江大學學報 · 人文社會科學版』 第34卷 第5期, 2004.9.) p.134

68) 장중항(張中行)은 앞에서 인용한 「柳如是」란 글에서 「『무인초(戊寅草)』, 『호상

集』에 실린 18수와 『목재초학집(牧齋初學集)』이나 『목재유학집(牧齋有學集)』처럼 다른 사람들의 문집에 보이는 몇 십 수의 작품이 전부라 할 수 있다.

가. 신분에 한탄

유여시의 시에는 사물에 기탁하여 자신의 마음과 신세를 읊은 시들이 적지 않다. 그녀가 노래한 대상으로는 특히 버드나무가 많은데, 버드나무 이외에도 향초나 국화, 대나무, 나비 등을 묘사하여 자신의 신세나 마음을 대신 읊기도 하였다. 먼저 버들꽃에다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버들꽃(楊白花)」 시를 살펴 본다.

楊花飛去淚霑臆	버들꽃 날아가니 눈물이 가슴을 적시고,
楊花飛來意還息	버들꽃 날아오니 마음이 도로 차분해지네.
可憐楊柳花	어여쁘다. 버들꽃이여.
忍思入南家	어찌해 남가에 들어 갈 생각했나.
楊花去時心不難	버들꽃 떠나갈 적 마음 편했는데
南家結子何時還	남가에서 열매 맺고 언제나 오려는지.
楊白花不恨	버들꽃 탓하지 않으려나,
飛去入閨闌	규방에 날아 들어온 것을,
但恨楊花初拾時	다만 한스러운 것 버들꽃 처음 주을 때.
不抱楊花鳳窠裏	봉황 금침에서 버들꽃 품지 못했음을.
却愛含情多結子	오히려 정을 품고 열매 많음 좋아하네.
願得有力知春風	바라건대, 봄바람에 힘을 얻어서
楊花朝去暮復雜	버들꽃 아침저녁으로 떠나가기를.

초(湖上草)』, 『유여시시(柳如是詩)』는 유여시가 20세를 갓 넘겼을 때 지은 시이다.’고 하면서, 『柳如是詩』에 대해서는 ‘이 책이 정식으로 간행된 적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중국 고대로부터 버드나무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柳’자가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 달라’는 의미의 ‘留’자와 해음(諧音)임을 활용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는 떠나가는 이에게 버드나무가지를 꺾어 머리에 꽂아 주기도 하였고, 사(絲)와 사(思)의 해음관계를 이용하여서 버들가지가 비단실(絲)처럼 길게(長) 늘어져 있다고 말함으로써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는 뜻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유여시는 버드나무에 대한 특별한 편애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그의 성이 원래 양(楊)씨이었다가 후에 류(柳)씨로 바뀐 것과도 관계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의 시에는 양류(楊柳)를 주제로 지은 시작품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버드나무(楊柳)」 2수 첫 수의 “수년간 몇 번이나 버들가지는 천 자 길이나 되었을 것인데, 버들가지 끌어당겨 길게 한들 이별과 바꿀 뿐이네(年來幾度絲千尺, 引得絲長易別離)”라고 한 말이라든지, 둘째 수에서 “기억컨대 봄바람 앞에서 버드나무 길게 가지 드리울 때 아득히 정신이 나간 듯한 것도 원래는 다 그리움 때문이었네(憶得臨風大垂手, 銷魂原是管相思.)”라고 한 말, 그리고 「버들꽃」 시에서 “버드나무와 버들 꽃 모두 정말 미운데, 가랑비 부슬부슬한 이때 그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네(楊柳楊花皆可恨, 相思無奈雨絲絲)”라고 한 말들은 모두 그러한 해음과 상징을 활용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상인한 「양백화(楊白花)」 시는 시의 형식이 5언과 7언이 혼재한 잡언체일 뿐만 아니라, 구수도 13구의 홀수인 데다가, 시의 운자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무운시(無韻詩) 같은 매우 자유로운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시어도 매우 평이하고, 시상의 표현방법도 억지부림이나 까탈스러움이 없어 시를 읽고 해독하기에 매우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렇긴 하니 시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엔 쉽지 않다. 시인이 버들꽃을 완전히 의인화하여서 버들꽃 입장에서 시를 지은 것인지, 아니면 시인이 관찰자입장에서 시를 지은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다.⁶⁹⁾ 그래서 어떤 구절은 번역을 하여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69) 劉燕遠씨는 『柳如是詩詞評注』, 北京古籍出版社, 2000년, p.58의 이 시에 대한 간평(簡評)에서 “시인은 버드나무에 생각을 부여하여서(詩人把楊花賦與思想)”라고 말하면서 버드나무를 의인화한 것으로 해설하였다. 유씨는 이 시가 버드나무의 입장에서 쓴 것으로 보아서 첫 구의 ‘淚’, 둘째 구의 ‘意’, 다섯째 구의 ‘心’, 아홉째 구의 ‘恨’,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인한 「楊白花」에서의 버들꽃은 일반적인 버들나무의 상징과는 다르게 사용되었으며, 시인은 이 시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과 인생역정을 이 버들꽃에 투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에서는, 버들꽃이 유력한 힘의 도움으로 봄바람과 알게 되어, 아침에 떠났다가도 저녁이면 돌아올 수 있는 자유로운 비상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다. 시인은 그러면 서도 그 버들꽃이 궁극적으로 귀착할 수 있는 ‘봉황이 사는 곳’과 같은 정착지를 찾아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기루출신인 시인 자신의 인생역정을 버들꽃의 모습에 투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여시는 전검익과 결혼하지 전까지는 신분이 기생출신이었던지라, 항상 누군가에게 몸을 맡길만한 사람을 찾아 다녔다. 몸과 마음을 평생토록 맡길만한 안식처를 찾아다니던 시인의 안타까운 마음은 「잠든 나비를 읊조리다(咏睡蝶)」 시에 잘 나타나 있다.

曲徑疏籬來往遊	굽은 길과 성긴 울타리를 오가며 노닐더니
沉沉罷舞枕枝頭	조용히 그 춤을 그치고 나뭇가지 끝을 베개로 삼네.
香偷韓掾身猶困	향기를 훔친 한수(韓壽)는 몸이 오히려 곤경에 빠졌고
魂繞莊周夢更幽	영혼을 맴돌던 장자는 꿈속이 더욱 헛갈렸네.
似飲花漿千日醉	꽃 즙을 먹고서 천 일은 취해 있을 듯한데
却閑苔影一簾愁	무심한 이끼 그림자만 주렴 가득 수심을 일으키네.
東風無賴憑吹醒	봄바람이 무료하여 잠든 나비 깨워 일으키니
又趁狂蜂惱畫樓	다시 또 미친 벌 따라서 채색누각을 맴도네.

이 시는 굽은 길과 성긴 울타리를 오가며 노닐다가, 나뭇가지 끝을 베개로 삼아 곤히 잠든 나비를 노래한 시이다. 바깥 돌계단에 무심히 자란 이끼 그림자가 외로운 규방의 주렴에 비쳐오자, 시인은 문득 수심에 잠긴다. 이즈음에 무

열두째 구의 ‘願’, 열한째 구의 ‘愛’ 등의 주체를 모두 버드나무로 보았고, 시의 해설도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시를 버드나무의 입장에서 쓴 것으로 보지 않고, 시인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본 것으로 해석하여서, 앞에서 언급한 글자의 주체는 모두 시인 자신으로 보았다.

정한 봄바람은 무료하였던지 팬스레 곤히 잠든 나비를 깨워 일으킨다. 봄과 영혼이 모두 지친나비는 설 곳을 찾아 다시 채색 누각을 맴돌고 있다. 시인이 묘사한 잠든 나비는 바로 시인 자신의 모습이다. 지친 영혼이 이젠 사랑의 안식처를 찾았나 싶었지만, 무정한 봄바람 때문에 다시 새로운 곳을 찾아나서야 하는 시인의 안타까운 신세를 나비의 모습 속에 투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의 3, 4구는 전고를 사용하였는데, 모두 만당시인 이상은(李商隱)의 시의(詩意)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3구는 「무제(無題)」(來是空言去絕蹤) 4수 가운데 두 번째 작품에 나오는 “가충의 딸은 주렴을 통해 한수의 젊음을 훔쳐보았네(賈氏窺簾韓掾少)”를, 4구는 「금슬(錦瑟)」 시의 “장자는 새벽꿈 속에서 나비에 미혹됐네(莊生曉夢迷胡蝶)”를 각각 활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수와 가충의 딸 이야기는 『진서(晉書)』에 보이고,⁷⁰⁾ 장자(莊子)의 호접몽(胡蝶夢) 이야기는 『장자·기물론(莊子·齊物論)』에 보인다.⁷¹⁾ 이상은은 전고를 사용할

70) 한수는 서진(西晉)의 권신이었던 가충(賈充)의 막료이었다. 가충은 한수가 일처리에 능력도 있고, 외모도 출중하여서 그를 불러 자시의 막료로 사는다(‘韓掾’의 ‘掾’은 ‘아전’, ‘하급관리’의 뜻으로서 한수가 가충의 막료신분임을 말한 것이다.) 가충은 집안에 연회가 있을 때 반드시 그를 참석하게 하였는데, 가충의 딸 가오(賈午)가 규방에서 몰래 그를 훔쳐보았다. 그러다가 가오의 마음을 짐작한 그녀의 시종이 중간역할을 하여 한수가 가오가 거처하는 곳의 담을 넘어오게 하고, 두 사람은 몰래 사통하게 된다. 한수는 가오의 몸에서 기이한 향내가 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 묻자, 가오는 한수의 관심에 호응하여서 아버지가 황제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서역의 향을 몰래 훔쳐와서 그것을 한수에게 전하고, 한수는 그 향주머니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지낸다. 그들의 밀회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데, 마침내 가오의 배가 점점 불러 오르기 시작하였다. 한수가 품은 향은 그 향내가 한 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특수한 향이었기 때문에, 향주머니를 가슴에 보관하고 있던 한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기이한 향기가 남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딱의 배가 불러움을 이상히 여기고 있던 가충은 자신이 황제에게서 하사받은 향내가 한수에게서 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딸의 종을 심문한 뒤에 그의 딸이 한수와 정을 통했음을 알게 된다. 가충은 한수를 데릴사위로 입적하는 조건으로 두 사람을 결혼시킨다. 이후 한수의 아들 가시(賈謐)의 성이 한씨(韓氏)가 아니고 가씨(賈氏)인 것은 한수가 가충의 집에 데릴사위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실제 향을 훔친 이는 가충의 딸인 가오인데도 시에서는 한수가 훔친 것으로 표현한 것은 남성중심의 전통의식이 반영된 표현이고, 또 ‘한수의 몸이 곤경에 처했다’는 것은 향낭을 가슴에 품고 있다 보니, 한 달 이상 향냄새가 발하는 것으로 피할 수 없었던 사실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으로는, 한수가 가오로 하여금 향을 훔치게 한 결과로 그녀 집안의 평생 데릴사위로 묶여 버린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이 구절이 시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분명하지는 않다. 전고의 사용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때 원래의 고사내용을 그대로 용전(用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구속됨이 없이 매우 창의적으로 응용하였기 때문에, 그의 시에 활용된 전고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유여시는 이상은이 활용한 전고를 다시 자기 식으로 변용하였기 때문에, 비록 이 시에 활용된 고사의 내용을 모두 파악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시에서 활용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상은의 「무제(無題)」 4수의 둘째 수와 「금슬(錦瑟)」시가 각각 마지막 두 구인 “사랑하는 마음일랑 봄꽃과 다투듯 키우지 마라. 한 치의 사랑은 한 치의 절망만 안겨줄 뿐이네(春心莫共花爭發, 一寸相思一寸灰)”와 “이런 심정 기다리다 보면 추억이라도 될까요? 단지 이별한 그 당시에 이미 망연자실하였는데 말입니다.(此情可待成追憶, 只是當時已惘然.)”를 시의 종지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상은의 시구를 변용한 「잠든 나비를 읊조리다(咏睡蝶)」시의 3,4구는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회한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시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시인의 고뇌를 잠들었던 나비가 봄바람의 깨움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 고뇌하듯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투영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이별에 대한 숙명적 고뇌

유여시와 사랑을 나눈 이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가사(幾社)의 송징여(宋徵與)와 진자룡을 들 수 있다. 유여시와 송징여와의 사랑은 송징여 집안의 반대와 송징여의 심약한 성격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진자룡과는 잠시 동거하는 생활까지 하였으나, 역시 진자룡의 부인과 가족들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다. 유여시는 진자룡과 헤어지고 난 뒤에 왕연명의 소개로 사삼빈(謝三賓)을 잠시 만나지만, 곧 그와 절교한다. 그리고 다시 왕연명의 소개로 전겸익을 만나 그와

71) 장자가 나비가 되어 나는 꿈에서 깨어난 뒤에, 자신이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지금 나비가 꿈을 꾸어 장자가 되어 있는지 미혹해했다는 고사이야기이다.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다. 유여시는 이렇게 당대의 명사들과의 사귀를 계속 추구하였으니, 그것은 자신의 몸을 평생 의탁할 곳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명사들과 교류하면서 유여시가 가장 아쉬워 하였던 이별은 진자룡과의 이별이었다. 이제 여기에서는 진자룡을 중심으로 그녀가 시를 통하여 이별의 슬픔을 전개한 시들을 몇수 살펴보기로 한다.⁷²⁾

1633년 가을 진자룡이 회시(會試)를 위하여서 북경으로 갈 때 유여시가 그에게 지어준 「송별(送別)」 2수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其一)

念子久無際	당신 생각하는 마음 오랫동안 끝이 없었는데
兼時離思侵	요며칠은 이별의 생각이 진하게 다가오네요.
不予識愁量	내 스스로도 근심의 양을 알 수 없으니
何期得澹心	어느 시기에나 마음이 담담해질 수 있을런지요.
要語臨歧發	중요한 말 이별에 임하여 일어나지만
行波託體沈	흐르는 물결에 몸을 맡기고 가라앉으셨네.
結想自然深	그리워하는 마음 질로 깊어지리.

(其二)

大道固綿麗	큰 길 정말 아름다워도
鬱爲共一身	울적하기로는 일심동체이라.
言時宜不盡	(전송하며) 말할 때는 의당 모두 말하지 않아야 하리
別緒豈成真	헤어진다는 생각이 어찌 진짜로 이뤄지기야 하겠는가?
衆草欣有在	무성한 풀들은 흔연히 그렇게 있고
高木何須因	높은 나무는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紛紛多遠思	분분히 심원한 생각 많이 하소서
遊俠幾時論	그대가 험객인지 아닌지는 언제쯤 논할 수 있을까요.

72) 유여시가 진자룡, 전겸익과의 사랑을 노래한 연애시에 대한 연구로는 강정만의 「유여시의 애정시를 통해서 본 그녀의 생애연구」(한국중국문화학회의 『중국학논업』 제12집, 2001년)를 참고할 것.

진자룡이 회시참가를 위하여 북경으로 갈 때, 이때 유여시의 나이는 16세이고, 진자룡은 26세이었다. 유여시는 이미 16세의 나이에 남녀간 이별의 감정을 깊이 경험하였던 것이다.

첫 수에서는 님과의 이별을 앞에 두고 며칠 동안 계속 그리움이 깊어 갔다는 말로 시작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이 많은 수심을 언제나 평온하게 할 수 있을 지상대에게 묻고 있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이제 이별하고 난 뒤에는 서로를 마음에 두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깊어지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둘째 수의 첫 구에 쓰인 ‘큰 길(大道)’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님이 가야할 큰 길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큰 길을 의미하기도 한다. 회시에 응하여 경사로 가는 길이니 당연히 큰 길인 것이요, 급제하여 관리가 되는 길이니 치국의 대도인 것이다. 3, 4구는 엄밀히 보면 운자의 쓰임 때문에 도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헤어진다는 생각이 어찌 진짜로 이뤄지기야 하겠는가만, 전송하며 말할 때는 정말로 헤어지기라도 하듯이 모두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5, 6구는 초목에서 비유를 취하여서 진자룡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세속에 아부하지 말고 학문의 길에서 자강불식(自強不息)하길 권면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구는 평소 명사들과 교류할 때 스스로를 ‘동생’이라 불렀던 시인의 남성적인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나라의 위기를 구하고 백성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유희(遊俠)의 정신으로 진자룡을 격려했다.

사랑과 이별을 알기에 시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보지만, 시인이 이 시를 통하여 펼쳐낸 이별의 서정은 재자가인의 어떤 이별시에 비하여도 그 품격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 특히 둘째 수의 3, 4구는 송별시의 명구로 삼을 만하다. 사랑하는 님을 전송할 때는 마치 정말로 이별이라도 할 듯이 마음 속 생각을 모두 말해서는 안된다. 헤어질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어찌면 정말로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635년 봄에 진자룡과 남루(南樓)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던 유여시는 이해 첫 여름에 진자룡의 본처인 장유인(張孺人)에 의하여 진자룡과 이별하고 횡운산(橫雲山) 산기슭으로 이거(移居)한다. 비록 헤어지긴 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시문으로 서로 교류하여서, 같은 제목으로 창화한 시가 지금까지도 여러 작품

이 남아 있으니, 「초가을(初秋)」 8수도 바로 이때 지어진 시이다. 먼저 진자룡이 유여시를 위하여서 7월의 「초가을(初秋)」 8수를 짓자, 유여시가 그를 이어서 역시 7월로 된 「초가을(初秋)」 8수를 짓는데, 여기서는 그 가운데 첫 번째 작품을 살펴본다.

雲聯遠秀正秋明	구름은 멀리 뻗어난 경물과 이어져 바야흐로 가을이 밝고
野落晴暉直視輕	들판엔 가을햇살 떨어지니 사물을 바로 보기 쉽다.
水氣相從烟未集	물 기운 따르니 안개 아직 모이지 않고
楓林虛極色難盈	단풍 숲은 청허한 기운이 극하니 색을 채우기 어렵다.
平郊秔稻朝新沐	평평한 교외는 메벼와 찰벼가 아침에 새로 목욕한 듯하고
大澤鳬鷺夜自鳴	큰 못에는 오리와 갈매기가 밤에 저들끼리 울고 있다.
莫爲武陵愁足理	무릉이 수심을 다스리기에 족하다 말하지 마세요.
龍堂新月滌江城	용당 위의 초승달이 강성(江城)을 씻어 낼 듯 비추고 있답니

다.

이 시는 가을의 원경을 묘사하는 데에서 시작하고 있다. 첫 구에서 여섯째 구까지는 모두 가을의 경물을 묘사하고 있다. 1, 2구는 가을의 특히 뻗어난 경물을 그리고 있지만, 3, 4구에서 보듯이 아직은 초가을이라서 가을안개가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고, 단풍도 제 색깔이 나오지 않고 있다. 5, 6구에서 묘사한 바, 아침이면 새로 목욕하는 메벼와 찰벼의 모습과 저녁이면 저들끼리 울음소리 내는 오리와 갈매기의 모습은 바로 님과 헤어져 혼자 지내는 시인의 외로운 삶을 그려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의 주제는 마지막 두 구인 7, 8구에 있다. 이 마지막 두 구는 진자룡의 「初秋」 8수 여덟 번째 작품 가운데 역시 마지막 두 구에 해당하는 “무릉에 머물게 한 것은 제 뜻이 아닙니다만, 구름을 찌르는 작품 중에 몇 번째 해당하는 글은 지을만하겠군요”에 대한 회답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구인 “용당 위의 초승달이 강성을 씻어 낼 듯 비추고 있답니다(龍堂新月滌江城)”에도 유여시의 감춘 뜻이 있다. ‘용당(龍堂)’은 원래 ‘교룡같은 짐승을 채색으로 화려하게

그러 '넋은 집'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진자룡의 집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진자룡의 이름 가운데 한 글자인 '용' 자가 들어간 단어를 교묘하게 사용한 것이다. '강성(江城)'은 물론 진자룡이 살고 있는 송강성(松江城)을 가리킨다. 따라서 마지막 구에서 "용당 위의 초승달은 강성을 씻어 낼 듯 달빛을 비추고 있다"는 말은 '지금은 우리가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달빛 비치는 송강성의 당신 집에서 함께사는 날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고 말하고 듯하다. 매우 상징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시구라 여겨진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 시는 시인이 진자룡과의 헤어지고 난 뒤에 느끼는 외로움과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함께 사는 날이 있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언외(言外)에 매우 함축적으로 표현한 시라 할 수 있다.

유여시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칠서(七夕)를 맞이한 진자룡은 유여시에 대한 그리움을 「칠서(七夕)」 2수로 표현해 내었다. 이제 유여시도 그의 시에 화답하여서 같은 제목의 「칠서(七夕)」 시를 지었다.

芙蓉夜湧鰓魚颺	부용지 저녁엔 쏘가리가 세찬 바람처럼 뛰어오르는데
此夕莒簞來夢知	이런 밤의 능소화와 대나무는 침도 알아본답니다.
爲有清虛鶴閣晚	원앙루각 저녁엔 맑고 공허한 가운데만 있으니
無勞幽詭蝶花滋	꽃이 넘쳐나도 그웁이 나비 속이려는 수고가 없네,
仙人欲下防深漠	선인이 내려와서 깊은 적막 막아주시려는지
蒼影翩然入寶湄	희끗한 그림자 펄럭이며 물길 가로 들어오네.
已是明雯星露會	벌써 밝은 구름 나와서 별과 이슬이 만났는데
鳥啼燈外見來遲	까마귀는 등불 바깥에서 울기만 할 뿐, 보아하니 오길 더디

하네요.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견우와 직녀의 두 별이 일은 하지 않고 사랑만 속삭이다가 옥황상제(玉皇上帝)의 노여움을 사서 일 년에 칠석 날 저녁에 한번만 은하수를 건너 만날 수 있었다 한다. 이때 까치와 까마귀가 날개를 펴서 다리를 놓아 견우와 직녀가 건너는데, 이 다리를 오작교(烏鵲橋)라고 한다.

첫 두 구는 칠석 날 밤 부용지 수중의 쏘가리가 세찬 바람처럼 노닐고, 능소화가 달빛 아래 대나무 숲을 덩굴처럼 감고 올라가 은은하게 피어 있는 모습을 매우 생동감 있게 그려내었다. 둘째 구에서 유여시는 진자룡에서 래몽아(來夢兒)로 자칭하고 있는데, 래몽아는 수양제(隋煬帝)가 광릉을 갈 때마다 항상 시침(侍寢)하게 하였던 시비(侍婢) 한준아(韓俊娥)의 별명으로서 ‘꿈을 불러오는 아이’란 뜻이다. 한때는 함께 동거까지 하였던 사이이니, 이렇게 자칭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진자룡이 이 시를 읽게 되면 더욱 친밀감을 느낄 것이다. ‘래몽아’라는 말은 실제로 진자룡의 글에도 보인다.⁷³⁾ 3, 4구는 남원(南園)의 남루(南樓)에서 함께 살 때의 달콤한 생활을 기억하면서, 두 사람이 떠난 그곳이 지금은 공허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5, 6구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지는 않지만, 님이 곧 오실 것 같은 분위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7, 8구는 별과 이슬이 동시에 출현하여 벌써 날이 새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 견우와 직녀를 위해 오작교를 놓아줄 까치는 오지 않음을 묘사하였다. 까치는 등불 밖에서 그냥 울음소리만 낼 뿐 오길 더디 하고 있다. 헤어진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줄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

7월 7일은 견우와 직녀가 일 년에 단 한 번이기는 하나 오작교를 통하여서 상봉하는 날이다. 진자룡의 래몽아로 자칭한 시인이 이 날을 주제로 한 님의 시를 받고서 감상이 없을 수 없다. “까마귀는 등불 바깥에서 울기만 할 뿐, 보아하니 오길 더디 한다.”는 말에서 유여시의 이 시는 금방이라도 다시 만날 것만 같은 님에 대한 초조하 기다림이 애절하게 묘사된 시라고 할 수 있다.

진자룡은 칠석이 지난 한 달여쯤 뒤에 유여시와 헤어진 뒤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팔월십오야(八月十五夜)」 시를 통하여 표현한 바가 있다. 이 시에 화답하여서 유여시도 같은 제목의 시를 지어 진자룡과 헤어지고 난 뒤의 처량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바가 있다.

73) 陳子龍 『江都絕句同讓木賦』 (施塾存, 馬祖熙 校『陳子龍詩集』, 上海古籍出版社, 2006 년.참조)

滌風初去見迂芳 쓸어갈 듯 하던 바람 막 지나니 먼 꽃이 보이는데
 招有深冥隱桂芒 깊은 어둠 불러와 달빛에 숨는다.
 翠鳥趾離終不發 물총새는 발이 땅을 떠났는데 끝내 날아오르지 못하고
 綺花人向越然涼 아름다운 꽃은 사람이 마주하자 더욱 처량해지네.
 蓮魚窈窕浮虛澗 연꽃 아래 고기는 조용히 사람 없는 계곡물 위로 떠오르고
 烟柳沉沉拂淡簾 버드나무 안개는 자욱히 담록색 대나무를 스치네.
 已近清萍動霏漪 이미 맑은 부평같은 신세 되어 걸핏하면 잔물결에 흩어지는
 데
 秋藤何傲亦能蒼 가을 등나무가 무슨 오기로 또 푸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진인각(陳寅恪)씨는 『柳如是別傳』에서 이 시를 숭정(崇禎)8년(1635년) 유여시가 진자룡과 헤어진 뒤 아직 송강(松江)을 떠나기 전에 지은 것으로 단정하였다. 칠석이 지난 뒤 한 달여쯤 진자룡은 송강의 옛집에서 집안사람들과 모여 함께 중추절을 보내며 달을 감상하고 있었지만, 마음 속에 걸리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유여시에 대한 생각이었다. 이에 「팔월십오야(八月十五夜)」 2수를 짓는데, 그는 이 시에서 유여시와 헤어진 뒤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잘 표현해 내었다. 같은 제목의 유여시의 「팔월십오야(八月十五夜)」 시는 바로 진자룡의 시에 대한 응답시이다.

유여시 역시 이 시를 통하여서 그녀가 진자룡을 떠난 뒤의 쓸쓸한 심정을 표현하였다. 그녀는 자신을 큰 바람이 쓸고 간 뒤 저녁 달빛 속에 숨어 있지만, 사람이 마주하면 더욱 처량해 지는 기화(綺花)에 비유하기도 하였고, 또 비상하려고 발을 올렸지만 끝내는 비상하지 못하는 예쁜 물총새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진자룡과 헤어진 뒤에는 부평초 같은 신세가 되어서 작은 물결에도 정처 없이 떠다녀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 시는 부평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가을 등나무처럼 시들어버린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시인의 쓸쓸한 심경과 홀로 힘들어 하는 모습이 자자구구(字字句句)에 드러나 보인다.

유여시의 시를 보면, 비록 짧은 시간이었긴 하지만, 그녀가 일생에서 가장 사

랑하였던 이는 진자룡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유여시는 18세의 어린 나이에 진자룡을 만나서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던 그와 잠시 동거를 하기도 하였다. 유여시는 전임 재상의 첩을 지내기도 하였던 기생출신의 신분이었던지라, 진자룡과의 만남은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자룡은 명말청초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만주족 정권인 청(淸)에 저항하여 태호(太湖)에서 의병을 일으켰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남경으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물에 투신하여 순국한 애국시인이었다. 유여시는 이러한 진자룡의 인품과 포부에 이끌려 그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지만, 그것은 그녀의 뜻대로만 되질 않았다. 그녀의 시 가운데 진자룡과의 이별을 읊은 시에는 바로 그러한 이별의 안타까움이 진속하게 표현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후일 여결로 불리게 되는 그녀도 사랑하는 남정네 앞에서는 결국은 한 명의 연약한 여인에 불과하였음을 알게 해준다.

다. 자연에 순응하는 여류의 감정

유여시에게도 다른 많은 시인들처럼 순간적으로 바라본 사물이나 계절의 변화를 담은 경물 앞에서 즉흥적인 감흥을 일으켜 지은 시가 적지 않다. 여기서는 시인이 계절의 특정 경물에서 감상을 일으켜 지은 시작품 5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봄날의 경물을 앞에서 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일으킨 「홀로 앉아서(獨坐)」 2수를 살펴본다.

(其一)

春時成獨坐	봄날 홀로 앉아 있으니
淸瑟誤芳年	청랭한 분위기가 꽃다운 나이를 망쳐 놓구나.
碧渚烟鬟冷	푸른 물가는 안개 젖은 머릿결 차갑게 하는데
靑溪玉夢還	맑은 계곡은 아름다운 꿈에서 깨어나게 하네.
靈風長似昔	좋은 바람은 언제나 지난날과 같지만

樂水不如前 물을 좋아하는 마음은 전과 같지 않네.
 因何紅草色 무엇 때문에 풀색이 붉은 것이지?
 却看燕鶯憐 제비와 피꼬리가 도리어 불쌍히 여겨주네.

(其二)

昨暮愁思大 어제 저녁에는 그리움이 매우 컸었는데
 如今倍欲傷 지금은 배나 되어 마음 상할 정도이네
 神仙自高暢 신선들은 저들끼리 고아하게 소요하고
 花鳥任輕揚 새와 꽃들은 산뜻한 자연에 몸을 맡기네.
 玉柙多春態 옥함 속 장식물은 봄의 자태 다양한데
 金鉤盡晚涼 황금빛 달빛은 서늘한 저녁 내내 가득하구나.
 不知今夜月 모르긴 해도 오늘 밤의 달은
 眞悔照空房 빈방을 비추고 있어서 정말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홀로 앉아서(獨坐)」는 두 수로 이루어져 있다. 첫 수에서는 봄날 활짝 핀 꽃들이 모두 풀 위로 떨어져서, 풀 위에 덮인 꽃으로 인해 풀색마저 붉어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 시인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봄은 벌써 다 가고 있고, 그래서 형성된 쓸쓸한 분위기는 꽃다운 젊음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그 서글픈 마음을 달래주기라도 할 듯이 제비와 피꼬리가 구슬픈 울음소리를 발하고 있다 것이다.

둘째 수는 봄날 저녁 밝게 뜬 달로 인해 생기는 님에 대한 그리움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운 사람과 소통의 수단이 없던 과거에는 하늘의 달만이 유일한 매개물이었다. 시인은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어제 저녁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오늘 저녁은 그 그리움이 배나 더 깊어졌다. 이런 날 이런 밤에 하늘나라의 신선이나 지상의 꽃과 새들은 봄의 정취를 맘껏 즐길 수 있으리라. 심지어 옥함 속에 담긴 노리개나 장식물도 봄을 맞아 다양한 자태를 뽐내는 듯하다, 사랑하는 님에 대한 시인의 그리움이 얼마나 깊었으면, 또 봄의 밤을 혼자 보내는 외로움이 얼마나 컸으면 ‘오늘 밤의 달은 나의 빈방을 비추고 있는 것을 정말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을까? 전체적으로 보아 「홀로 앉아서(獨

坐)」 2수는 저물어 가는 봄에 대한 진한 안타까움과 봄날 저녁을 혼자 보내는 아픈 외로움을 여성의 입장에서 잘 묘사한 시라고 할 수 있다.

유여시는 감성이 매우 섬세한 여성으로서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이별을 생각하는 시를 짓기도 하였다. 그녀가 진자룡과 함께 여행하던 중에 초여름의 경물을 보고서 문득 이별을 떠올리면서 지은 시로서 「용담정사로 놀러갔다가 누각에 올라서 짓다 - 이때 큰 바람이 불어서 ‘품’ 자를 화답하는 운자로 사용하였다(遊龍潭精舍登樓作, 時大風和韻)」 시를 살펴본다.

琢情青閣影迷空	푸른 누각에서 시상을 다듬을 때 그림자가 허공에서 흔들려
서	
畫舫珠簾半避風	꽃배의 주렴으로 돌아오니 반쯤은 바람을 피하겠네.
縹緲香消動魚鱗	그윽한 꽃향기 흩어지며 대문의 고리를 흔들고
玲瓏枝短結愁紅	영롱한 꽃가지 키가 낮아 우물 벽에 걸려 있네.
同時蝶夢銀河裏	은하수에서 함께 호접몽을 꾸었고
并浦鸞潮玉鏡中	달 속에서 포구 나란히 난 새처럼 날아 다녔다.
歷亂愁思天外去	혼란을 겪은 근심스런 생각은 하늘 바깥으로 버렸지만
可憐容易等春蓬	가련하다, 내 사랑 쉽게 봄 쭉처럼 되어버릴까 하노라.

이 시는 시인이 진자룡과 동거를 하다가, 진자룡의 본처에 의하여서 헤어짐을 강요받은 뒤에 1635년 초여름에 함께 백룡담(白龍潭)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 지은 시이다. 배안에서 진자룡이 먼저 「추담곡(秋潭曲)」이란 제목의 시를 지어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 오자, 유여시가 이에 대하여 화답한 시이다.

시의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마침 큰 바람이 불어 올 때 진자룡의 시에 대한 화답시를 지었다고 하였으니⁷⁴⁾, 첫 구에서 누각의 그림자가 허공으로 흩어지

74) 시의 제목에 “時大風和韻”이라 하였는데, 이는 “마침 큰 바람이 불길래, ‘風’ 자를 화답운으로 시를 짓는다”는 뜻이다. 진자룡의 「秋潭曲」 시는 7언 고시로서 모두 8구로 되어 있는데, 첫 구에 압운한 ‘風’을 포함하여서 둘째 구와 넷째 구의 ‘中’, ‘東’과, 여섯째 구와 여덟째 구의 ‘水’, ‘子’가 운자로 사용되었다. ‘風’, ‘中’, ‘東’은 ‘東’운에 속하고, ‘水’, ‘子’는 ‘紙’ 운에 속하니, ‘東’ 운에서 ‘紙’ 운으로 환운한 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유여시는 진자룡의 시에 화답하면서 ‘風’이 속한 ‘東’ 운을 사용하여서 8구의 7언 고시를 지었다. 운자를 수구에 압운한 ‘空’을 포함하여서, 순서대로 ‘風’,

는 것은 바로 그 바람 때문이었을 것이다. 누각 위에서 꽃배로 돌아온 뒤 바라본 봄날의 바깥 경물은 꽃향기의 그윽함과 꽃가지의 아름다움으로 대변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향기로움과 아름다움은 사랑하는 님과 함께 은하수와 달 속에서 노닐었던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그런데 마지막 두 구에서는 시상이 갑자기 돌변하고 있다. 진자룡의 본체에 의하여 이별이 강요되면서 일어나는 그 근심스러운 생각을 아무리 하늘 밖으로 던져버린다고 하여도, 지금의 사랑이란 언젠가는 바람에 휘날리는 봄 쭉처럼 한순간에 끝나버릴 것이니, 시인은 그것을 안타가워하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일어난 바람에서 시상이 시작하여서 그 바람에 의하여서 시상이 끝을 맺고 있다.

유여시는 봄이면 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변화하는 자연의 경물 앞에서 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주저없이 읊어 내었다. 이러한 그녀의 시작태도는 청루(靑樓) 출신이라는 그녀의 특수한 이력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녀의 시 가운데는 계절의 경물 가운데에서도 특히 가을의 경물 앞에서 감상을 일으킨 작품이 많은데, 그러한 시로서 「달밤에 누각에 올라서 짓다(月夜登樓作)」 시를 살펴본다.

香乾欹雀下簾遲	향기가 다해도 까치는 주렴에서 내려오길 더디하며
腥血屏風斗一枝	선홍색 붉은 병풍에서 가지 하나를 다투는구나.
應有聲多吹落木	바람불어 나뭇잎 지니 웅당 소리가 많이 날 것이다.
況看星炯耗清池	밝은 별빛이 맑은 연못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음
에라.	
秋原鶴氣今方縱	가을 들판에는 학의 기운이 한창 넘쳐나는데
明月蘭姿不誤時	밝은 달과 난초의 자태는 때를 놓치지 않네
爲是穿針最佳近	바느질하며 직녀성에게 소원 빌기에 아주 좋을 때인데
鷄臺人惹又相思	투계대 위의 사람들이 또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네.

‘紅’, ‘中’, ‘蓬’이 사용되었다.

시인은 첫 두 구에서 실내의 성홍색 병풍 위의 경물을 먼저 묘사한 뒤에 다시 3, 4구에서는 실외의 경물을 묘사하고 있다. ‘학기(鶴氣)’를 언급한 것은 예로부터 ‘학에는 신령한 기운이 있어서, 야반(夜半)의 시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속설과 관계된다.⁷⁵⁾ 5, 6구는 ‘가을 들판이 한 밤중이 되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밝은 달과 아름다운 난초가 자태를 부리고 있다.’ 뜻이다. 시의 마지막 두 구는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펼친 것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풍습에 7월7일 칠석에는 부녀자들이 바느질하면서 바느질을 잘 할 수 있는 재능을 내려 달라고 직녀성에 기원하는 풍습이 있으니, 이를 언급한 것이고, 마지막 구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투계대(鬪鷄臺)에서 놀던 일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린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 시는 시인이 가을날 달밤에 누각 위 내려 본 경물과 그 경물로 인해 촉발된 님에 대한 그리움을 묘사한 시라 할 수 있다.

사군자(四君子)라 불리는 매(梅), 난(蘭), 국(菊), 죽(竹)은 역대의 모든 문인들이 사랑하며 가까이하였다 시를 짓는 이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것의 모두가 이 사군자를 주제로 자신의 모습을 즐겨 투영시켜 왔는데, 유여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유여시가 혜란(蕙蘭)을 통하여서 순결하고 단아한 자신의 모습을 묘사한 「혜란을 읊다(咏蕙蘭)」 시를 살펴본다.

一春長是艷陽成	봄은 언제나 밝은 양광이 만든 것인데
碧霧晴霞蕙草輕	푸른 안개와 맑은 노을 아래 혜초 산뜻하네.
青蘂有香皆是影	푸른 꽃은 향기를 풍겨내니 모두 그림자 같고
黃鸞無援獨多情	노란 꽃술은 양광을 받지 않아도 홀로 다정하네.
春風縹緲何時見	봄바람 아득하니 언제 다시 만날 것인가?

75) 『春秋說題辭』에 “鶴知夜半”이란 말이 있고, 그 주(注)에 “학은 물새로서 한 밤중에 수위가 그 생기를 감응시키면 더욱 기뻐하여 소리내어 운다(鶴, 水鳥, 夜半水位感其生氣, 則益喜而鳴.)”고 하였다. 『抱朴子·內篇·至理』에는 “마침 우연히 조금이라도 깨닫는 바가 있는 것은 마치 학이 야반을 알아차리고, 제비가 때를 아는 것과 같을 뿐으로서 다른 일도 다 아는 것은 아니다(適偶有所偏解, 猶鶴知夜半, 燕知戊己, 而未必達於他事也.)”라 하였다. 劉燕遠의 『柳如是詩詞評注』, 北京古籍出版社, 2000년, p.129에서 전인함.

明月清新向此生 밝은 달이 맑고 신선한 금생에서이리라.
 空惹深閨無限思 부질없이 깊은 규방에 무한한 그리움만 불러일으키니
 紫蘭花裏自分明 자색 난초 꽃 가운데서도 저만은 분명하네.

이 시는 혜란을 노래한 시이다. 혜란은 난초의 하나로서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꽃을 피우는데, 색은 황록색이고 향기가 있어서 관상용으로 제공피기도 한다. 굴원(屈原)이 「離騷」에서 혜란과 같은 향초를 여자에 비유한 이래로 혜란이란 말을 활용한 “추란추혜(春蘭秋蕙)”, “자란수혜(滋蘭樹蕙)”, “란혜지자(蘭蕙之姿)” 등의 표현은 모두 외모와 바탕이 아름다운 여인을 칭하는 말로 쓰여 왔다.

시인은 이 시에서 먼저 푸른 안개와 맑은 노을을 배경으로 산뜻하게 자란 혜란의 모습을 언급한 뒤 이어 마치 그림자처럼 허공으로 흩어지는 꽃향기와 양광을 받지 않아도(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홀로 다정한 모습을 지킬 줄 아는 그 단아함을 묘사하였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혜란화는 자란화 무리에 섞여 있어도 분명히 구별될 정도로 매우 단아하고 청초하여서, 공연히 규방의 여인에게 님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만 불러일으킨다고 말하였다. 혜란 꽃에 대한 시인의 이러한 칭상은 사실은 시인 자신에 대한 칭상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 시는 시인 자신의 순결하고 단아한 모습을 혜란 꽃에 기탁하여서 읊어 낸 시라고 할 수 있다.

유여시는 혜란과 같은 난초 이외의 매화, 국화, 대나무를 모두 노래한 바가 있는데, 이 가운데 대나무를 읊은 「늦가을 국화를 읊조리다(咏晚菊)」 시를 살펴본다.

感爾多霜氣 많은 사물이 서리 기운 때문에 가을을 떠났지만,
 辭秋遂晚名 그대는 가을이 깊어가도 (서리를 이겨내는) 명성을 이루었네.
 梅冰懸葉易 매화의 얼음 같은 바탕에 잎사귀 매달길 쉽게 하고
 籬雪洒枝輕 울타리에 눈이 내린 듯 가지에 서리를 뿌려도 산뜻하기만 하네.
 九畹供玄客 넓은 밭에 심어서 천상의 나그네에게 제공하니

長年見石英 오랫동안 천지의 영기를 먹는 것으로 여겨지네.
 誰人間搖落 군가 국화는 어찌하여 가을 서리에도 지지 않느냐고 묻지만
 自起近丹經 그것은 본래 도가의 경전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네.

시인은 국화를 매우 좋아하였다. 그녀가 국화를 주제로 시를 쓴 작품으로는 이것 말고도 「가을이 다할 때 저녁에 멀리 조망하다(秋盡晚眺)」 2수가 있다. 역대로 국화를 좋아하고 그를 노래한 이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서 동진(東晉)의 도연명(陶淵明)은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따서 아득히 남산을 바라본다(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고 노래한 바가 있고, 송(宋)의 이청조(李清照)는 “황혼이 진 뒤에 동쪽 울타리에서 술을 마시니, 그윽한 국화향기가 소매에 가득하다(東籬把酒黃昏後, 有暗香盈袖.)”고 노래한 바가 있다.

원래 국화는 다른 꽃 보다 늦게 피면서도 가을의 서릿발에도 잘 견디므로 은밀한 군자의 상징으로 잘 사용된다. 도연명과 이청조처럼 국화의 고결함을 크게 숭상하고 있었던 데다가, 이름마저도 유은(柳隱)으로 개명하였을 정도로 한때는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싶은 생각을 지녔던 시인이 서리를 이겨내는 국화의 오상지절(傲霜之節)을 노래한 것은 바로 국화에 기탁하여 자신이 모습을 그려낸 낸 것이라 할 수 있다.⁷⁶⁾

국화의 오상지절을 노래한 유여시는 또 세속에 아부하지 않는 대나무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묘사하기도 하였으니, 그러한 시로는 「대나무 읊다(咏竹)」 시를 들 수 있다.

不肯開花不趁妍 꽃을 피우려고도 않고, 아름다움을 다투지도 않는데
 蕭蕭影落硯池邊 대나무 그림자는 쓸쓸히 연지 주변으로 떨어지네.

76) 「咏晚菊」시 역시 시어는 평이하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뜻이 분명하지 않은 시구와 사회가 있는데, 5,6구의 ‘현객(玄客)’과 ‘석영(石英)’이 그러한 예이다. 진인각(陳寅恪)은 ‘石英’의 ‘石’은 발음의 동일함으로 인하여서 ‘食’이 아니면 ‘餐’이 잘못 쓰여진 것일 거라고 추론한 바가 있는데, 본고에서 “石”의 해석은 그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또 현객(玄客)을 ‘천상의 나그네(上天之客人)’로, ‘英’을 “천지의 영기(天地之靈氣)”로 해석한 것은 劉燕遠의 해설을 따랐다. 『柳如是詩詞評注』, 北京古籍出版社, 2000년, p.164~165.

一枝片葉休輕看 가지 하나의 한 조각 대나무 잎도 가볍게 보지 마라
曾住名山傲七賢 일찍이 명산에 살 때는 죽림칠현도 무시하였단다.

이 시는 제화시(題畫詩)이다.⁷⁷⁾ 시의 내용으로 보아서 벼루가 하나 있고, 그 옆으로 대나무가 서 있는 모습으로 여겨진다. 시인이 묘사한 대나무는 꽃을 피우지도 않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혼자 우뚝이 서 있는 모습이다. 꽃을 피우지도 않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은 바로 고상한 인격과 순정한 품성을 지닌 채 세속에 아부하지 않는 선비에 비유된다. 일찍이 명산에 살 때는 죽림칠현도 무시하였다고 한 말에서 대나무의 의인화는 극치에 이른다. 대나무를 통하여서 한편으로는 선비의 품성을 노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인 자신의 지향하는 모습을 노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여시는 혜란을 통하여서는 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도 홀로 다정한 모습을 지킬 줄 아는 단아함을 묘사해 내었다. 또 그녀는 국화를 통해서도 서리를 이겨내는 굳센 지조를 노래하였고, 대나무를 통해서도 세속에 아부하지 않는 고상한 인격과 순정한 품성을 추구하였다. 그러니 그녀의 이러한 시들은 병도 없이 앓는 소리를 내를 공허한 ‘무병신음(無病呻吟)’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가치관이 그대로 투영된 ‘외로운 영혼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우국우민의식

유여시는 명말 청초의 격동기를 산 여인이다. 그녀는 젊었을 때 애국지사 진 자룡을 중심으로 한 기사(幾社)의 명사들과 교류를 하면서 남성 못지 않은 비분강개한 기상을 키웠었다. 그녀는 또 남송의 항금(抗金) 명장 한세충(韓世忠)과 그의 처 양홍옥(梁紅玉)의 기상을 흠모하였으며, 전겸익과 결혼한 뒤에는 명이 망한 뒤 자결하지 않은 남편을 꾸짖기도 하였고, 이후에는 그와 함께 반

77) 谷輝之輯 『柳如是詩文集』(上海古籍出版社, 2000.10, 上海)에서는 이 시를 『附編二·柳如是詩文補輯』에 넣으면서 시의 제목을 ‘咏竹’이라 하였고, 范景中·周書田輯校 『柳如是集』(中國美術學院出版社, 1999.12, 杭州)에서는 이 시를 『柳如是詩文拾遺』에 넣으면서 시의 제목을 ‘題畫竹’이라 하였다.

청복명 활동에도 크게 종사하였다. 그러한 그녀였기에 봄날의 경물 앞에서도 가을의 서정을 읊고, 그러한 가을의 서정을 통하여서 기울어 가는 명조의 운명을 애달파 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시로서 「달밤에 호심정에 올라서(月夜登湖心亭)」 시를 살펴본다.

碧草河西水上亭	푸른 풀 하서의 물가 정자는
和烟和月復空冥	안개와 달과 어울리고 다시 하늘 높이
芙蓉曲斷金波冷	부용곡 노래 끊기니 물위의 달빛이 차갑고
楊柳姿深天外青	버드나무 자태 깊어가니 하늘 밖까지 푸르다.
湧夜何人吟落木	달빛이 솟아오르는 이 밤 누군가 나뭇잎 지는 노래 읊조리는
데	
春江一望却侵星	한번 바라보니 봄 강은 별까지 침범할 듯하다.
遙憐處處烽烟事	멀리서도 안타깝다, 곳곳에서 봉홋불 올리는 일이
長嘯無心閣自憑	무심히 길게 고함지르곤 혼자 누각에 기대노라.

시인은 자연경물 가운데 특히 달밤을 좋아한 듯한데, 지금 전해오는 그의 작품 가운데 달밤과 관계되는 작품만도 10여 수는 된다. 다섯째 구의 ‘나뭇잎 지는 노래 (落木)’는 그 아래 구의 ‘봄 강(春江)’과는 계절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落木’이 실제로 가을에 낙엽이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의 쇠락’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달빛이 솟아오르는 이 밤 누군가 나뭇잎 지는 노래를 읊조린다.”고 하였지만, 그 누군가는 바로 시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은 내분과 외환으로 전란이 이어지면서 명조(明朝)가 기울어 가는 것을 직감하지만, 무력감에 어찌 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길게 한 번 소리 지르고, 혼자 누각에 올라 상념에 잠길 뿐이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시인이 서호의 호심정(湖心亭)에서 봄날 달밤의 경물을 바라보면서도 낙엽지는 가을의 서정을 연상하며 기울어가는 명조의 암울한 시국을 걱정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하는 유여시의 시는 역 200수로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170수는 그녀가 23세 이전에 지은 작품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유여시가 23세 이전에 지은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그녀의 시세계를 ‘신분에 대한 한탄’, ‘식물의 빗댄 가치관의 투영’, ‘자연에 순응하는 여류의 감정’, ‘이별에 대한 숙명적 고뇌’, ‘반청복명 활동’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그 각각을 살펴본다. 그녀의 시는 계절의 경물 앞에서 감상(感傷)을 일으키는 시이든, 외물에 기탁하여 자신의 마음과 신세를 읊은 시이든 간에 모두 ‘이별에 대한 숙명적 고뇌’을 주제로 한 시처럼 사랑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과 한 사람에게 정착하지 못한 자신의 안타까운 신세를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이때의 시가 모두 그녀가 매우 젊었을 때의 시이고, 또 기녀출신으로서 자신의 몸을 맡길만한 명사(名士)를 찾아다녔던 시인의 특수한 삶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러한 시들은 병도 없이 신음을 내는 ‘무병신음(無病呻吟)’의 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삶과 가치관을 투영시킨 ‘외로운 영혼의 외침’이라 할 수 있다. 또 「잠든 나비를 읊조리며(咏睡蝶)」 시를 비롯한 몇 수의 시에서 보듯이, 그녀의 이러한 외침 속에는 전대의 역사와 전고에 대한 그녀의 해박한 지식이 녹아들어 있어서, 그녀의 시는 시를 읽는 이로 하여금 그녀의 신분과 나이에 걸맞지 않은 장중한 예술적 미감마저도 느끼게 한다.

IV. 이매창과 유여시의 작품 비교

<표1>에서 나타나듯이 이매창과 유여시의 작품을 살펴보면 제재로 신분에 대한 한탄, 님과의 이별, 자연과 시인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여시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제재분류 외에도 창수증별, 그리고 우국우민의 의식을 제재로 창작된 작품도 있다. 다음은 이 세 가지 분류에 따라 두 시인의 작품 내용을 분석하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표1>이매창과 유여시의 작품 제재 분류표

구분	이매창(李梅窓)	유여시(柳如是)
신분에 대한 한탄	「贈醉客」, 「彈琴」, 「自恨」, 「自恨二」, 「籠鶴」, 「鞦韆」, 「病中愁思」, 「愁思二」, 「自傷三首」	擬古詩十九首之「青青河畔草」, 「冉冉孤生竹」, 「庭中有佳樹」, 「去者日已疏」, 「楊白花」, 「咏睡蝶」
님과 사랑	「贈別」(五絶), 「贈別」(七絶), 「自傷二」, 「自恨一」, 「贈友人」, 「病中」, 「春愁二首」, 「故人」, 「春思」, 「秋思」, 「閨怨二首」, 「春怨」, 「贈別」, 「自恨薄命」, 「憶昔」, 「閨中怨二首」, 「記懷」, 「梨花雨」(시조)	「送別」, 「初秋」, 「七夕」, 「八月十五夜」, 「曉發舟至武塘二首」, 「西陵十首」, 「西冷二」, 「小至日京口舟中」, 「冬日泛舟」, 擬古詩十九首之「行行重行行」, 「凜凜歲雲暮」, 「孟冬寒氣」, 「迢迢牽牛星」, 「遣懷二」(古體詩), 「西洲曲仿古作」, 「傷歌」, 「寒食雨夜十絶句」, 「懷人」, 「爲郎畫眉」,

		「楊柳」(二首), 「楊花」, 「西河柳花」, 「六憶詩」(六首), 「懊儂詞」, 「初秋八首」, 「七夕」, 「懷人夢江南」(十九首), 「詠風箏」, 「聽雨」(二首), 「憶夢」, 「添病」, 「夜景」, 「寄書」, 「五更」, 「憶舊」, 「重遊」, 「落花」, 「雨中游斷橋」, 「上巳」, 「清明行」, 「夢江南懷人 九」
자연의 감정	「登千層庵」, 「遊扶餘白馬江」, 「閑居」, 「江臺卽事」, 「尋眞三首」, 「自恨 三」, 「泛舟」, 「登月明庵」, 「早秋」, 「登御水臺」, 「夜坐二首」, 「閑居」, 「登龍安臺」, 「寫懷」, 「伏次韓巡相壽宴時韻二 首」, 「贈畫人」, 「仙遊三首」	「西冷 一」(七律), 「春日我聞室賦」, 「庚辰除夕守歲」, 「新巳元日」, 「上元夜泊舟虎丘西溪小飲」, 「奉和陌上花三首」, 「楔后五日浴場池四首」, 「中秋出遊二首」, 「雨中游斷橋」. 「西冷二首」(七絕), 「題顧橫波夫人墨蘭圖十首」, 「題畫竹」, 「題畫梅」, 「題山水人物圖冊八首」, 「賦范司馬嘉連作」, 「金明池詠寒柳」, 「垂楊碧」, 擬古詩十九首之「西北有高樓」, 「涉江采芙蓉」, 「回車駕言邁」,

		「城東高且長」，「遣懷一」(古體詩)，「曉仙謠」，「白燕庵作」，「獨坐二首」，「初夏感懷四首」，「聽鍾鳴」，「悲落葉」，「五日雨中」，「遙夜感懷」，「長歌行三首」，「月夜登樓作」，「咏晚菊」，「咏蕙蘭」，「咏竹」，「遊龍潭精舍登樓作，時大風和韻」，「游鴛湖作」，「觀芙蓉池」，「採蓮曲」，「秋夜雜詩四首」，「月夜舟中聽友人絃索」，「秋深入山」，「九日作」，「秋盡晚眺二首」，「冷泉亭作」，「西湖八絕句」，「游淨慈」，「遊龍井新庵」，「西湖采蕪」，「今日良宴會」，「題祁幼文寓山草堂」，「皎皎明月光」，「人生不滿百」，「驅車上東門」，「于忠肅祠」，「岳武穆祠」，「劍術行」，「月夜登湖心亭」
우국우민의 식		

1. 신분에 대한 한탄

앞에 이매창과 유여시의 생애를 통하여 두 시인의 그 당시에 풍채와 재능이 당대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녀라는 신분은 두 사람에게서는 고통스러운 낙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시인의 작품 중에서 신세를 제재로 창작한 작품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여긴다. 먼저 매창의 작품부터 살펴보겠다.

「愁思 二」

平生耻學食東家	떠돌며 밥 얻어 먹기를 평생 부끄럽게 여기고
獨愛寒梅映月斜	달빛이 비치는 차가운 매화를 혼자서 사랑하네.
時人不識幽閑意	그윽한 내 뜻을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고
指點行人枉自多	행인들 지나다니며 손가락질하네.

기(起)에는 매창은 자신이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의 기녀이기 때문에 평생 부끄럽게 여긴다는 처지를 아려 주고, 승(承)에는 매창이 좋아하는 차가운 달의 매화 가지를 묘사하여 자신도 ‘한매(寒梅)’처럼 고결한 품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뜻한다. 전(轉)과 결에는 ‘한매(寒梅)’가 고결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뜻을 알아주지 않은 것처럼 매창이 기녀라는 미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품성을 제대로 보지 않고 신분에만 치중하여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매창이 신분 때문에 사람들의 경시를 당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신분에 대한恨을 표현하고 있다.

「自恨」

春冷補寒衣	봄날이 차서 얇은 옷을 꿰매는데
紗窓日照時	사창에는 햇빛이 비치고 있네.
低頭信手處	머리 숙여 손길 가는 대로 맡긴 채
珠淚滴針絲	구슬 같은 눈물이 실과 바늘 적어누나.

「자한(自恨)」은 ‘햇살이 비치는 비단 창’에서 바느질을 하며 자신의 서러운

신세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시에 ‘冷’자는 하나의 말인데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봄이라는 계절과 호응하게 ‘春冷’을 표현한 뿐만 아니라 매창이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마음까지도 추워짐을 즉, ‘心冷’ 표현하기도 한다.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직접 불만이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까지 추워진다는 것으로 애절하고 한스러운 심정을 드러낸다.

「病中愁思」

空閨養拙病餘身	병들어 빈방에서 본분 지키며
長任飢寒四十春	가난과 추위 속에 40년 일세.
借問人生能幾許	인생이 산다 하면 얼마나 되나
胸懷無日不沾巾	근심으로 울지 않은 날이 없다네.

위 작품은 시인이 기녀 신분이어서 고달픈 현실 속에서 병든 몸으로 독수공방의 모습을 그렸다. 사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와서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본다. 이것은 매창이 인생을 살아야 얼마나 산다고 한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삶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 서러움을 표현했다. 그러나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胸懷無日不沾巾’이라는 생활을 지내는 것이다. 마지막 구에는 시인의 눈물 속에서 미친한 신분과 기구한 운명에 대한 한스러움이 나타나 있다.

유여시도 이매창과 같은 기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뛰어난 문재를 인정을 받아 名妓로 널리 불렸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자 집에 몸종으로 팔려갔고 주인집에서 쫓겨난 후에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기녀가 되었다. 고달프고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던 유여시는 자신의 작품 속에 비참한 신세에 대한 가슴 속 심정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줬다. 다음은 그러한 작품 중에서 대표적인 시 2수를 통하여 그녀의 심리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다.

「青青河畔草⁷⁸⁾」

飈飈華館風	아름다운 집에는 거센 바람 휘휘 불고,
鳬鳬玄嶺草	검은 고개에는 풀이 바람 따라 움직이네.
習習翔絳晨	붉디붉은 아침놀 하늘에 널리 퍼져,

78)劉燕遠 『柳如是詩詞評注』,北京古籍出版社, 2000. p.4.

淫淫睹窗眇 움직이는 경치 멀리서 바라다보네.
 翼翼衆奇分 이 번성한 모습이 무척 기묘하고,
 曙曙凌青照 넓은 바다의 파도처럼 가까워지네.
 羈望久難慰 경치를 봐도 마음이 계속 답답한데,
 星漢長飄飄 은하수는 길이 바람에 흔들리네.
 佳期安可尋 좋은 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랴?
 綴目成新眺 눈을 잠시 감으면 새 모습이 보이겠지.

이 시에 드러난 ‘거센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풀들’은 유여시 자신을 상징한다. 온산과 벌판에 가득한 풀들은 거센 바람을 맞고도 계속 안강하게 버텨내고 있다. 이런 웅장한 모습은 끝없이 넓은 바다에 굴러가는 파도처럼 보인다. 유여시는 이런 웅장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연상하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하여 기생이 되어서는 사람들 앞에서 심적으로 힘든 날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억지로라도 기쁘게 웃는 표정을 지어야 하는 정신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며 지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답답하고 복잡한 심정은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았다. 결국 시인은 자신의 여러 가지 소원은 마치 은하수처럼 요원하여 실현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강한 의지로 뜻을 굽히지 않았던 유여시는 과연 현실 앞에서 머리를 숙였을까? 그에 대해서는 바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눈을 잠시 감으면 새 모습이 보이겠다고 말한 것처럼 시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참한 운명에 압도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다음 유여시의 「버들꽃(楊白花)」⁷⁹⁾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楊花飛去淚霑臆 버들꽃 날아가니 눈물이 가슴을 적시고,
 楊花飛來意還息 버들꽃 날아오니 마음이 도로 차분해지네.
 可憐楊柳花 어여쁘다. 버들꽃이여.
 忍思入南家 어찌해 남가에 들어 갈 생각했나.
 楊花去時心不難 버들꽃 떠나갈 적 마음 편했는데
 南家結子何時還 남가에서 열매 맺고 언제나 오려는지.
 楊白花不恨 버들꽃 탓하지 않으려나,

79) 劉燕遠 『柳如是詩詞評注』,北京古籍出版社, 2000. p.57.

飛去入閨闈 규방에 날아 들어온 것을,
 但恨楊花初拾時 다만 한스러운 것 버들꽃 처음 주을 때.
 不抱楊花鳳窠裏 봉황 금침에서 버들꽃 품지 못했음을.
 却愛含情多結子 오히려 정을 품고 열매 많음 좋아하네.
 願得有力知春風 바라건대, 봄바람에 힘을 얻어서
 楊花朝去暮復雜 버들꽃 아침저녁으로 떠나가기를.

이 작품에서는 유여시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훔날리는 버들개지에 비유했다. 시에 있는 버들개지는 단지 하나의 식물을 뜻한 게 아니라 시인을 지칭하고 있는 상징물도 된다. 버들개지가 날아갈 때는 눈물 속에 이상과 소망을 담고 있고, 그 이상과 소망을 이루고자 날아갔는데, 날아올 때는 그런 이상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했지만 체념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버들개지가 남쪽 人家에 날아가 열매를 맺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버들개지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유여시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여시는 버들개지처럼 표박한 생활을 지내고 있고, 기녀라는 신분 때문에 보통여자처럼 사랑하는 님과 있을 수 없고,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나타나듯이 버들개지는 원망하지 않고, 다시 규수의 내방으로 날아 들어간다. 유여시더 평생 동안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행복한 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다. 즉, 마지막 구에서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 버들개지가 아침저녁 계속해서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은 바로 유여시가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다.

이매창과 유여시는 어렸을 때부터 생활이 어려워 도처를 떠돌았고, 성장해서는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을 겪고도 다른 이들 앞에서는 슬픔을 참고 웃어야 하는 비참한 기녀의 삶을 이어갔다. 이러한 비슷한 삶을 연명해나갔기에 두 사람의 내적 정서가 상통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차이점이 있음을 앞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매창의 신세를 제재로 한 작품에서는 애한(哀恨)의 정서를 지니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반면에 유여시의 시가에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정서를 드러낸다고 추정해 본다.

2. 사랑과 이별

애정시는 기녀문학의 가장 특색 있는 부분이어서 이매창과 유여시의 이 부분의 작품은 이별의 슬픈, 사랑의 충정, 재회의 바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의 정서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가. 이별의 슬픈

기녀라는 신분 자체가 당시의 일반 여성들과는 달리 많은 남성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자연히 그들의 삶에는 이별의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매창과 유여시도 예외 없이 사랑하는 남과 이별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두 시인의 작품 중에서 이별을 내용으로 한 작품이 적지 않았다. 다음은 두 시인이 이별을 면할 때 정서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떻게 나타난 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이매창의 작품부터 살펴보겠다.

<自傷 二>

洛下風流客	서울 사는 풍류객 있어
清談交契長	청담으로 인연 맺은 지 오래인데
今日翻成別	오늘은 마음 변해 이별하다니
離盞暗斷腸	이별하는 술잔에 애끊어지누나.

「自恨 一」

東風一夜雨	동풍불어 한 밤 동안 비가오더니
柳與梅爭春	버들과 매화가 봄을 다투네
對此最難堪	이 좋은 봄날 견디기 어려운 것은
樽前惜別人	술잔 앞에서 애석하게 남과 이별하는 일

「贈別」

堪嗟時事已如此	일이 벌써 이렇게 됐으니 슬퍼도 참아야지요.
半世功夫學畫油	임께선 반생 동안 그림 배우기에만 공들이시는군요
明日浩然歸去後	날이 밝으면 훌쩍 떠나 버리신 뒤에
不知何地于羈遊	어디로 떠돌아 다니실는지 모르겠군요.

위 시에서는 이별을 앞둔 매창의 심정이 묘사되었다. ‘락하풍류객(洛下風流

客)’은 매창이 평생동안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유희경을 짐작할 수 있다. ‘명일 호연귀거후(明日浩然歸去後)’라는 말은 매창이 사랑한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슬퍼도 참아야 된다는 뜻을 표현했다. 그러나 ‘대차최난감(對此最難堪)’이라는 말도 매창이 님과 헤어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매창에게 님과 헤어짐을 견디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은 매창이 헤어짐을 면할 때에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매창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님과 헤어져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위 세 작품이 매창이 이별을 면할 때 서운하지만 속절없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유여시도 진자룡의 정실부인의 반대로 그와 헤어지게 되었다. 다음은 유여시의 작품을 통하여 이별에 대한 그녀의 심정이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送別 一」⁸⁰⁾

念子久無際	그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끝이 없는데,
兼時離思侵	날마다 이별의 아쉬움이 스며든다네.
不自識愁量	근심의 양이 얼마인지 알 길 없으니,
何期得淡心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마음 가질 것을 기약할까?
要語臨歧發	갈림길에 이르러 소중한 언약을 하고,
行波托體沈	일렁이는 물결은 떠나가는 배를 붙잡아두네.
從今互爲意	이제부터 서로 위하는 마음 굳게 다지니,
結想自然深	서로 그리워하는 정은 저절로 깊어지네.

「送別 二」⁸¹⁾

大道固綿麗	큰 도리는 참으로 이어지고 아름답거늘,
郁爲共壹身	환하게 빛나서 함께 한 몸이 되는 듯하네.
言時宜不盡	이별을 고할 때 말로 다 표현하지 마오.
別緒豈成真	이별의 정서가 어찌 실체가 되었는가?
衆草欣有在	잡초들은 들판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高木何須因	큰 나무가 어찌 그것에 의지하리요?
紛紛多遠思	심원한 생각은 잇달아 떠오르는데,
遊俠幾時論	어느 때에나 遊俠을 논할 수 있을까?

80) 劉燕遠 『柳如是詩詞評注』,北京古籍出版社, 2000. p.82.

81) 위의 책, p.83.

「송별 일(送別 一)」은 승정6년(1633)가을, 진자룡이 會試에 응시하기 위해 북경으로 가면서 두 사람이 이별하는 상황이다. 사랑하는 님 떠나고 나면 그 훗날을 기약할 수 없기에 유여시의 마음은 심히 무거웠다.

「송별 이(送別 二)」에서는 ‘言時宜不盡, 別緒豈成眞’이라는 시구를 통해 유여시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때 느꼈던 아쉽고 우울한 정서를 남김없이 드러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구에서는 이별은 슬프지만 진자룡이 고결한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라에 충성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를 바라고 있다.

「송별 일(送別 一)」에서는 주로 情人과 헤어질 때 불안하고 우울한 정서가 많이 들어가있는 반면, 「송별 이(送別 二)」에는 情人과 헤어지는 게 아쉽고 슬프지만 이런 이별의 부정적인 정서에만 잠긴 게 아니라 마지막에 진자룡에게 고결한 품성을 지키고 나라와 백성들에게 충성해야 할 것을 상기시킨 것으로 통하여 단순히 이별의 정서를 표현한 것과 달리 애국주의를 표현한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曉發舟至武塘 一」⁸²⁾

木影固從混	물결에 비치는 나무그림자는 어지러이 흔들리는데,
水雲脫衆冷	물안개는 깨끗한 강물 위에서 일어나는구나.
魚波已相截	물고기는 물에서 이미 떠났는데,
鳥景信能冥	오리는 놀던 곳에서 멀리 떠났네.
漠愼風聊出	적막한 가운데 잠시 바람이 일고,
滋深霧漸形	질은 습기는 점차 안개로 변하네.
還思論異者	다시금 탁월한 이를 그리워하는데,
何處有湘靈	어느 곳에 湘水の 영령이 있을까?

승정8년(1635)가을에 유여시는 진자룡의 정실부인의 반대 때문에 할 수 없이 진자룡을 떠나 다시 성택진 귀가원으로 가게 되었다. 이 시는 진자룡과의 이별을 앞두고 유여시가 느끼는 심정이 잘 묘사된 작품이다. 제2구의 ‘어파이상절(魚波已相截)’은 자신과 진자룡이 이미 헤어졌음을 뜻한다. 여기서는 자신과 진자룡의 관계를 물고기와 물의 관계에 비유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파이상절(魚波已相截)’이라는 말은 유여시가 진자

82) 劉燕遠 『柳如是詩詞評注』,北京古籍出版社, 2000. p.144.

를 떠나면 물고기가 물이 없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제5,6구에서는 사방이 적막한 가운데 이는 바람과 강가의 습기에서 변화된 안개를 묘사했다. 여기는 시인이 자연풍경을 그리기 위하여 바람과 안개를 묘사한 게 아니라, 바람과 안개의 묘사를 통하여 진자룡에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진자룡은 자신의 능력을 크게 발휘해서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격려와 확신을 표현한 것이다. 제7구의 ‘논이자(論異者)’는 바로 뛰어난 의론을 견지한 진자룡을 가리키고, 마지막 구의 ‘상령(湘靈)’은 굴원(屈原)을 가리킨다. 중국의 대표적인 애국 시인 굴원(屈原)은 상수 부근의 루라강(淚羅江)에 스스로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한다. 이 작품에서는 유여시가 굴원(屈原)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진자룡도 굴원(屈原)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 것도 표현했다.

위 작품을 통하여 두 시인이 이별에 대한 공통적으로 슬픈 감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차이점도 있다. 이매창이 이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애원(哀怨)의 정서를 표현함을 알 수 있고 유여시는 님과 이별의 슬픔을 진자룡이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는 격려 속에서 추스르고 쇄탈(灑脫)의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추정해 본다.

나. 사랑의 충정

이매창과 유여시가 사랑하는 님과의 헤어져도 모두 이별로 님과의 사랑이 그치지 않고 님을 그리우면서 기다렸다. 두 시인의 많은 작품에서 님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표현했다. 다음 작품을 통하여 두 시인이 사랑에 대한 충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이매창의 작품부터 살펴보겠다.

「故人」

松柏芳盟日	송백처럼 영원하자 맹세했던 날
恩情與海深	사랑은 깊고 깊은 바닷속 같았는데
江南青鳥斷	멀리 떠난 님께선 소식이 끊어졌으니
中夜獨傷心	밤마다 외로워 마음만 아프구나.

위 시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떠난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이별 후 사랑했던 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추억을 회상한 것이다. 그러나 님과

같이 보냈던 즐거운 시간을 회상할수록 그리움은 더욱 깊어진다. 그러므로 매창이 자신의 깊은 그리움을 작품에 담게 되었다.

「閨怨」

離懷悄悄掩中門	이별이 서러워 중문을 닫았노라.
羅衫無香滴淚痕	비단 소매엔 향기 없는 눈물 자국뿐
獨處深閨人寂寂	외로운 규방에 사람 없어 적막한데
一庭微雨鎖黃昏	온 뜰의 부슬비에 황혼마저 잠겼구나.

相思都在不言裡	그리워하는 마음이 모두 말없는 가운데 있지만,
一夜心懷憂伴絲	하룻밤의 시름으로 머리카락이 세었어라.
欲知是妾相思苦	이 몸의 그리워하는 괴로움을 알고 싶거든,
須試金環減舊圓	반드시 금가락지의 옛 테두리 닳았는지 살펴야 하리.

위 작품에는 매창이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면서 님이 계속 안 오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운 모습을 보여 줬다. 혼자 깊은 규방에 앉아 님을 그리운데 말로도 할 수 없고 님에 대한 상사와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님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애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위 작품의 구절구절마다 시인의 그리움과 정이 느껴진다.

유여시가 진자룡과 헤어진 후에 다시 귀가원으로 돌아가 기녀로 살았지만 그에 대한 사랑은 변치지 않았다.

「七夕」

芙蓉夜湧鰓魚颺	부용지 저녁엔 쏘가리가 세찬 바람처럼 뛰어오르는데
此夕荳筲來夢知	이런 밤의 능소화와 대나무는 첩도 알아본답니다.
爲有清虛駕閣晚	원앙루각 저녁엔 맑고 공허한 가운데만 있으니
無勞幽詭蝶花滋	꽃이 넘쳐나도 그웁이 나비 속이려는 수고가 없네,
仙人欲下防深漠	선인이 내려와서 깊은 적막 막아주시려는지
蒼影翩然入寶湄	희끗한 그림자 펄럭이며 물길 가로 들어오네.
已是明雯星露會	벌써 밝은 구름 나와서 별과 이슬이 만났는데
鳥啼燈外見來遲	까마귀는 등불 바깥에서 울기만 할 뿐, 보아하니 오길 더디

하네요.

음력 7월7일은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단 한번 오작교를 건너 상봉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다. 칠석 밤에 쏘가리도 출렁이는 부용지(芙蓉池)에 즐겁게 노닐고, 이러한 아름다운 밤에 능소화와 대숲도 달콤한 꿈을 사람들에게 실어 온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시인이 진자룡과 같이 동거했던 원앙루(鴛鴦樓)가 생각난다. 지난 좋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나비가 꽃에 미련을 버려서 꽃이 무성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떠나서 원앙루(鴛鴦樓)가 지금 썰렁하고 적막하겠다고 한탄한다. 선녀도 지나간 고독에 시달려 1년에 단 칠석날에 한번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므로 시인도님과 재회하기 어렵다는 것을 연상하게 되었다. 이 때 제6구에서 시인이 눈에 제1,2구의 유쾌한 경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처량한 경치만 재빠르게 눈가에 들어온다고 해서 시인의 쓸쓸하고 암울한 심정을 드러낸다. 제7구에서는 선명한 구름 일고 새벽이 다가왔다고 해서 칠석이 이미 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구에서는 칠석이 지났는데 까마귀들이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오작교를 만들어 주지 않았으니, 사랑하는 님을 만날 길이 없음을 뜻하고 있다. 즉, 시인이 현실 속에서 님과 만날 수 없어 님을 그리우면서 기다려야 하는 처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다음의 시에도 이별 후 진자룡에 대한 유여시의 사모의 정과 바람이 잘 드러나 있다.

<夢江南·懷人·一>

人去也	님 떠나갔네,
人去畫樓中	畫樓에서 떠났네.
不是尾涎人散漫	다른 이의 질투 없다면,
何須紅粉玉玲瓏	화장도 장신구도 필요 없다네,
端有夜來風	다만 밤에 바람 따라 오신다네.

이 사는 유여시가 진자룡과 헤어진 후에 진자룡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작품이다. 제3구에서 ‘미연(尾涎)’이라는 말은 『한서·외척전·효성조황후전(漢書·外戚傳·孝成趙皇后傳)』에 의하면 한나라 때 조비연(趙飛燕)의 이야기에 나온 말이다. 조비연(趙飛燕)은 한나라 때 가회 출신인데 황제의 총애를 받아 황후가 되었다. 이에 다른 이들의 질투를 초래했다. 심지어 자신의 친여동생도 질투심에 비열한 수단으로 조비연(趙飛燕)을 모함하였고 결국에 조비연

(趙飛燕)은 황제의 총애를 잃게 되었다. 그때부터 ‘미연(尾涎)’은 질투를 의미한다. 여기서 ‘미연(尾涎)’은 진자룡의 정실부인의 질투와 반대를 의미한다. 시인은 다른 이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자신들의 사랑의 굳건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구에서 언젠가 님이 바람을 따라서 자신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즉, 시인이 님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에서 언급하듯이 유여시가 처했던 시대는 전란이 빈번한 시대였다. 유여시가 항상 자신의 그리움을 그 때의 사회상황을 결합하여 표현한다.

「遣懷」 83)

設想自堅確	평소에 품은 포부는 결코 변치 않으니,
百物曾不逾	온갖 일들을 겪어도 내 마음은 변치 않으니.
冥激最感人	원대한 포부는 사람을 가장 감동시키고,
失玩徒須臾	부귀영화는 다만 한 순간뿐이네.
上志豁素期	위로는 평소의 소망을 저버릴 생각을 하시더라도,
下志結根株	아래로는 나무뿌리처럼 대단한 뜻을 품으소서.
朱顏定無方	붉은 얼굴은 영원히 간직될 수 없고,
交袂光亦殊	입은 옷은 색깔이 또 달랐지요.
羅詞情四際	아름다운 시어를 모아 재능을 사방에 떨쳤고,
織意安能拘	시를 지으며 어찌 재능의 구속을 받았을까?
皎皎東西岑	동서쪽의 새하얗고 밝은 산봉우리.
不言神先趨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그곳으로 달려가네.
紫蘭蔭飛蓋	자줏빛 난초꽃은 바람에 흔들리는 일산에 가려지고,
絳節煥華區	붉은 부절은 화려한 자리를 환하게 하네.
泛泛若愁思	그대를 사모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끝이 없지만,
願子自無虞	바라건대 그대는 스스로 걱정하지 마시라.

명말은 만주에서 후금(後金)이 발흥하여 중원(中原)을 호시탐탐 노렸던 혼란기였다. 이때 유여시는 어떠한 시련을 겪더라도 명조에 대한 일편단심은 변치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제3,4구에서 진자룡에게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대장부로

83) 劉燕遠 『柳如是詩詞評注』,北京古籍出版社, 2000. p.38.

서의 원대한 포부를 가지라고 주문했다. 제5구의 ‘소기(素期)’는 진자룡이 그녀와 행복한 삶을 바라는 것을 지칭한다.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어 이런 소망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녀는 진자룡에게 다시 한번 진충보국의 충절을 당부했다. 제7구부터 제10구까지는 그녀와 진자룡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화답시를 주고받으며 재능을 마음껏 펼쳤던 시절을 회고한 것이다. 제11구는 진자룡의 고고한 인품을 뜻하여, 제12구에서는 유여시의 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제13구의 ‘자란(紫蘭)’은 곧 유여시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진자룡이 대업을 성취하여 난을 받고 지나갈 때 자신은 멀리서 나만의 은은한 향기를 뿌려 그의 앞날을 축복하겠다는 것이다. 제7연의 후구도 진자룡이 황제에게 부절을 받고 대업을 성취하여 군계일학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낸 것이다. 유여시는 마지막 15,16구에서 다시 한번 진자룡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지만, 그의 장래를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고 진자룡에 대한 그리움을 큰 인물이 되라는 당부의 말 속에 감추었다.

위 작품을 통하여 이매창과 유여시가 님과 헤어져도 님에 대한 사랑이 모두 변치 않았고 사랑에 대한 충정한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두 시인이 님을 그리우면서 기다릴 때의 심정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매창은 님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님이 계속 안 오기 때문에 ‘상사병(相思病)’에 걸려서 모든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고 ‘심문(心門)’을 닫게 되었다. 유여시도 이매창과 같이 오랫동안 진자룡을 기다리면서 재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도 진자룡에게 큰 인물이 되라는 당부를 했다. 두 시인이 모두 님에 대한 일편단심인데 이매창의 작품에서는 밝고 긍정적인 것이 아닌 비애(悲哀)임을 드러내고 있고 유여시는 적극적인 기대(期待)의 정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다. 재회의 바람

이매창과 유여시가 님과 헤어진 후에 모두 님을 기다리면서 님과 재회를 바라고 있다. 다음은 두 시인이 재회를 바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작품을 분석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광해군 즉위년인 1609년 정월에 허균이 매창에게 준 간찰을 보면 매창의 참선 여부를 묻고 참선이 ‘유익신필의(有益身必矣)’라고 하며 선관을 권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매창이 현실 속에서 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여 재회의 바람을 허무한 선계에 기탁하였다. 다음은 이 부분의 작품을 살펴보

도록 하겠다.

「記懷」

梅窓風雪共蕭蕭	매창에는 바람과 구름이 다 같이 쓸쓸한데,
暗恨幽愁倍此霄	그윽한 그리움과 시름이 이 밤에 배가 되네.
他世緱山明月下	후세에 緱山에서 달빛 아래 태어난다면,
鳳簫相訪綵雲衢	봉황의 피리 불며 오색구름 길에서 만나리라.

이 시에는 매창의 님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의 사랑에 대한 실현의 장소가 선계로 설정되었다. 起에서 매창에 쓸쓸한 바람과 구름은 사실 매창이 현실 속에서 당한 좌절을 뜻한 것이다. 승(承)에서는 님과 재회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 그리움과 시름이 더하게 되었다. 전(轉)에서는 현실 속에서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현실이 존재하지 않은 선계로 통하는 ‘후세에 구산(緱山)에서 달빛 아래’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상한 것이다. 結에서는 선계에서 사랑하는 님과 다시 만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매창이 님과 재회하는 희망을 선계에 기탁했지만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녀에게는 재회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보인다.

「籠鶴」

一鎖樊籠歸路隔	새장이 잠기어 돌아갈 길 막혔으니
崑崙何處聞風高	곤륜산 어느 곳에 남풍원이 솟았는가
靑田日暮蒼空斷	푸른 들엔 해가 지고 하늘도 끊어진 곳
緱嶺月明魂夢勞	구경의 밝은 달 혼몽도 괴로워라
瘦影無憐愁獨立	아윈 모습으로 짝 없이 시름겨워 홀로 서있으니
昏鴉自得滿林噪	황혼의 갈가마귀 숲에 가득하여 지저귀네
長毛病翼摧零盡	긴 깃털 병든 날개 죽음을 재촉하니
哀唳年年億九臯	슬피 울며 해마다 깊은 못을 생각하네.

「寫懷」

結約桃源洞裏仙	무릉도원의 신선과 언약할 제는,
豈知今日事淒然	오늘처럼 처량할 줄 어찌 알았으랴?
幽懷暗恨五絃曲	남모를 그리운 정 거문고에 얹으니,
萬意千思賦一篇	천만 갈래 생각이 한 곡조에 실려지네.

塵世是非多苦海	속세엔 시비가 많아 고통이 많은 바다인데,
深閨永夜苦如年	규방의 밤은 길기도 해서 마치 일년인 듯하네.
藍橋欲暮重回首	남교에 날 저물어 또 다시 돌아다봐도.
靑疊雲山隔眼前	푸른 산만 첩첩이 눈앞을 가리는구나.

매창은 현실에서 세인들이 자신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참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매창이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꾸준히 지키며 이러한 현실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매창의 이런 심정은 바로 ‘조롱 속의 학’처럼 자유에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고통의 바다와 같은 삶의 무게로 하룻밤이 일년 같으며, 무릉도원의 신선과 언약을 맺은 것도 허무하기만 하다. 첩첩이 눈앞을 가리는 푸른 산은 더욱 더 현실을 암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매창이 선계에서 님과의 재회를 실현하는 것도 난관이 중첩하다고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작품을 통해 매창이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결코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贈友人」

曾聞東海降詩仙	일찍이 동해에 詩仙이 내렸다고 하던데,
今見瓊詞意悵然	구슬 같은 글귀지만 그 뜻은 서글프네.
緱嶺遊蹤思幾許	緱山の 선인이 노닐던 곳이 어디쯤인가 생각하고,
三清心事是長篇	三清의 심사를 장편으로 지었네.
壺中歲月無盈缺	술 단지 속의 세월은 차고 기울지 않지만,
塵世青春負少年	속세의 청춘은 젊은 시절을 저버렸네.
他日若爲歸紫府	훗날 붉은 仙府로 돌아가거든,
請君謀我玉皇前	그대는 옥황상제 앞에서 나와 살도록 맹세하기를 부탁하네.

매창이 시비가 많은 현실에서 세인들의 경시를 당하면서 살아 왔다. 이 작품에서는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속세의 청춘은 잠깐 동안인 것처럼 겪고 있는 고통도 멀지 않은 날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2구에서는 언젠가 선계에 돌아가서 옥황상제 앞에 맹세하고 사랑하는 님과 영원히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유여시도 이매창과 같이 현실에서 님을 다시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재회의 바람을 꿈에 가탁하게 되었다.

「夢江南・懷人 九」

人去也	사람이 떠났네
人去夢偏多	떠나가니 꿈만 자주 꾸네
憶昔見時多不語	그 옛날 만날 때는 못 다한 말이 많더니
而今偷悔更生疏	이제 와서 후회하는 마음 더욱 생소하구나
夢里自歡娛	꿈에서만 혼자 즐거워할 뿐

이 사는 유여시와 진자룡이 헤어진 후에 진자룡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유여시가 진자룡과 같이 있었을 때는 달을 구경하면서 옛날과 지금의 일을 이야기하거나 시를 읊을 수 있었다. 그러나 헤어진 후에는 안타깝게도 진자룡과는 꿈에서만 만날 수 있다. 꿈에서는 진자룡과 같이 시를 지으면서 즐거운 얘기를 나눈다. 꿈에서 진자룡과 유여시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즐긴다.

「寒食雨夜 九」⁸⁴⁾

年年風雨盡平生	해마다 비바람 속에 평생을 살았건만,
夢里春暉作意行	꿈속에서만 봄 경치를 마음대로 보았네.
惹起鴛河半江水	鴛河에 가득찬 물이 넘실대니,
愁人自此不勝情	근심스러운 나도 이제는 그 정을 참기 어렵네.

이 시에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일을 겪고 살아온 유여시는 진자룡과 헤어진 후에 꿈에서 진자룡과 만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꿈속에서조차 ‘원하반강수(鴛河半江水)’ 즉 유여시와 진자룡이 사랑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여시는 꿈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왔다. 더 이상 그런 고통을 참을 수 없고 꿈에서 이루어진 사랑도 이제는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매창과 유여시가 재회의 바람으로 한 작품에서 허무한 꿈과 선계에 기탁하여 님과 재회를 바라는 모습을 모두 보여 주고 있지만 유여시는 허무한 꿈에서 깨어나 더욱 이성적으로 처리하게 되었다는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두 시인이 허무한 꿈과 선계에 기탁하거나 이성적으로 처리하거나 재회를 바라는 것 자체가 공통적으로 사랑에 대한 열망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추정해 본다.

84) 劉燕遠 『柳如是詩詞評注』,北京古籍出版社, 2000. p.67.

3. 자연과 시인의 감정

한시에서 자연을 읊은 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매창과 유여시의 작품에서도 자연이 많은 시의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자연 자체를 묘사하는 것보다 ‘차물서정(借物抒情)’, ‘차물언지(借物言志)’라는 의도가 더욱 강하다. 다음은 두 시인의 자연을 내용으로 창작한 작품을 분석하면서 작품에서 드러낸 감정이나 포부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매창의 시를 살펴보면 자연을 묘사하는 작품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작품에 대해 최영이가 이렇게 분류했다: ‘이매창 초기의 작품은 찬(讚)과 설옹, 상사로 애탄(哀歎)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작가 자신이 소재에 대한 시적 성숙을 거치지 않고 창작한 연유로 시적인 표현의 질이 낮은데 비해, 중기 작품에 이르러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독특한 감각이 드러난 발전을 보였다.⁸⁵⁾ 그러므로 매창의 문학적 가치가 높은 중기 작품을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登千層菴」

千層隱竹千年寺	천층 산 위에 그옥이 천년사가 서 있고
瑞氣祥雲石逕生	성서로운 구름 속으로 돌길이 났어라.
清磬響沉星月白	맑은 풍경소리 스러지는 속에 별빛 달빛만 밝은데
萬山楓葉鬧秋聲	온 산은 단풍이 들어 가을 소리가 가득해라.

이 시에서는 매창이 숲 속을 거닐며 자연을 완상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기(起)에서는 천층산 위에 오래 된 절이 하나 서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천층산과 천년사라는 말은 바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면서 신비스러운 분위기도 만들었다. 승(承)에서는 계속 천년사의 주변 환경을 묘사했다. 성서로운 구름 속에 돌길이 하나 있어 더욱 신비감이 감돈다. 전(轉)에서는 맑은 풍경소리 스러지는 속에 밝은 별빛과 달빛을 보인다. 맑은 풍경소리와 밝은 별빛, 달빛은 동태와 정태의 이미지의 교체로 천년사 주변의 정숙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더욱 부각시켰다. 결에서는 시인이 시선을 들어 바라보니 온 산이 단풍에 덮여 가을 소리가 가득하다고 감탄했다. 마지막구에 시인의 감탄은 사실은 시 전체에서 묘사한 풍경에 대한 감탄한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하여 자연 속에서, 시인의 인

85) 최영이, 「매창 문학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7. p.67.

생을 즐기는 여유로움도 느껴진다.

「泛舟」

參差山倒影江波	들쭉날쭉 산 그림자 강 물결에 어리고
垂柳千絲掩酒家	수양버들 천 가닥이 주막을 덮었구나.
輕浪風生眼驚起	작은 물결 바람결에도 자던 백로가 놀라 깨고
漁舟人語隔煙霞	고기잡이 말소리는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네

「泛舟」의 경우 起에서는 강물에 비친 산 그림자를 묘사했다. ‘參差’이란 시어를 사용하여 산의 그림자가 시각적으로 더욱 생동하게 표현했다. 承에서는 주막을 가린 수양버들을 묘사했다. 轉에서는 잠들어 있던 백로가 작은 물결에도 놀라 깨는 모습을 묘사하여 동태적인 생동감을 만들어 주었다. 結에서는 고기잡이 말소리가 안개 너머에서 들려온다고 하여 섬세한 시적 분위기를 한층 돋우고 있다.

「江臺卽事」

四野秋光好	사면의 들에 가을 햇벌이 좋아
獨登江上臺	홀로 강둑에 올랐어라
風流何處客	어느 곳의 풍류객인지
携酒訪余來	술병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네.

사면 들판이 가을빛으로 물들어 혼자서 강 언덕 정자에 올라 그것을 감상하는 가운데 그곳을 찾은 낯선 풍류객과 술을 마시며 노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매창의 초기시에 보여주던 것과는 달리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하고 자연 속에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여유로운 모습이 나타나 있다.

지금까지 매창의 자연을 감상하면서 여유롭게 즐기는 모습과 자연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면하기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평생 동안 기녀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세인의 경시를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매창이 결국은 자연속에서 한스러운 심정을 잊어버리지 못하여 자연을 통하여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게 되었다. 이 점은 다음 작품을 통하여 실증할 수 있다.

「自恨 三」

翠暗籠烟柳	버들엔 푸르스름 안개가 끼고
-------	-----------------

紅迷霧壓花 꽃잎도 붉으스름 안개에 눌렸네.
 山歌遙響處 나무꾼의 노래는 멀리서 메아리쳐 오고
 漁笛夕陽斜 고기잡이의 피리소리는 석양에 비껴오네.

기와 承에서는 오독한 연기가 푸른 버들을 감싸고 흐릿한 안개가 붉은 꽃잎을 누른 모습을 묘사했다. 전와 결에서는 나무꾼의 노래 소리와 고기잡이의 피리소리를 묘사했다. 이어서 기, 승과 전, 결이 같이 시각과 청각의 풍경을 묘사하여 시 전체에서 정태와 동태적인 분위기가 공존하게 되었다.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인이 자연을 즐기는 흥미를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목은 「자한」으로 지은 게 어떤 의도가 있을까? 기와 승에서는 묘사한 것을 보면 쉽게 ‘논물과 한’으로 점철된 시인의 인생을 연상할 수 있다. 시인이 버들, 꽃잎처럼 현실속에서 비참한 운명의 온갖 탄압을 받고 있다. 시 전체에는 자연 풍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연풍경을 통하여 시인이 버들과 꽃잎에 자신을 비유하여 담담하게 한스러운 심정을 드러낸다.

「遊扶餘白馬江」

水村來訪小柴門	물가마을 초가집을 찾아오니
荷落寒塘菊老盆	연못은 쓸쓸하고 국화가 늙었도다
鴉帶夕陽啼古木	갈가마귀 떼지어 석양고목에 울고
雁含秋氣渡江雲	기러기는 가을 기운을 머금고 강을 건넌다
休言洛下時多變	서울영화 잘 변한다 누가 말했나
我顧人間事不聞	나는 인간사 듣고싶지 않으니
莫向樽前辭一醉	술잔 앞에서 취하는 일 사양하지 마시오
信陵豪貴草中墳	호탕하던 신통군도 무덤 속에 있다네.

이 작품에서는 인간사의 흥망성쇠와 모든 시비에서 벗어나 매창이 말년에 쓸쓸한 마음을 달래려고 백마강가를 거닐면서 지은 것⁸⁶⁾으로 보인다. ‘국노(菊老)’, ‘고묘(古墓)’, ‘분(墳)’의 시어에서는 삶의 허무함을 느끼게 한다. 까마귀와 석양, 울면서 강을 건너지는 기러기의 시어 역시 삶의 무상함을 더욱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 전체에서는 쓸쓸한 가을 풍경을 그렸다. 시인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그려진 쓸쓸한 가을 풍경을 통하여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었다.

유여시는 오월(吳越)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名士들과 시문을 주고받으며

86) 정광순, 「매창 한시 문학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43.

교류했고, 또한 산수풍경을 즐기면서 많은 작품을 썼다. 다음은 유여시의 자연을 내용으로 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秋夜雜詩 一」

密密水新視	물은 조용히 흐르며 변해가고,
漻漻虫与恒	쓸쓸하게 사람도 물처럼 변해가네.
星河淡未直	은하수는 담담히 빛나고,
雀鳥气全殄	참새도 모두 집에 돌아갔네.
雜草形人甚	잡초들이 사람처럼 무성한데,
稠梧久已乘	빽빽한 오동나무는 그것들을 누른 지 오래라네.
犹餘泯漠意	오히려 세상일에 담박한 뜻이 남아 있어,
清夕距幽藤	맑은 저녁에 그윽한 등나무를 멀리 바라보네.

고요한 밤하늘에 못별이 조금씩 반짝이고, 새들도 모두 집에 들어갔다. 무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풀들이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듯 고요한 밤에 오로지 시인과 등나무만이 서로를 멀리 바라보고 있다. 시인 자신도 마지막 구에 ‘맑은 저녁에 그윽한 등나무를 멀리 바라보다’고 하는 것처럼 이미 자신과 속세를 잊고 완전히 이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 도취되었다.

「秋夜雜詩 二」

湫壁如人意	시원한 암벽은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
澄崖相近看	물과 산은 서로 가까운데서 바라보네.
數紋過清瀨	수많은 물결이 모래 위를 흘러가고,
多折造微湍	자주 꺾여서 작은 여울을 이루네.
云實鏤深樹	하늘에 구름은 많아져 나무가 되고,
清霜落夜蘭	밤부터 난초엔 맑은 서리가 맺히네.
此情更大渺	이런 마음은 더욱 크게 아득해지거늘,
百藥竟其端	마침내 온갖 병을 치료할 영약이라네.

이 작품은 하늘이 높고 날씨가 상쾌한 가을밤에 창작한 작품이다. 제1구에서 ‘시원한 암벽은 사람의 마음인 것 같다’는 말은 시인의 상쾌한 기분을 아려 주었다. 제2구부터 제6구까지는 시인이 섬세하게 고요한 가을밤 풍경을 그려 주었다. 제2구에서는 서로 가까운데서 바라보는 물과 산을 묘사하여 제3,4구에서

는 수많은 물결이 모래 위를 흘러가고 자주 꺾여서 작은 여울을 이루는 것을 묘사했다. 시선이 올라가 하늘에 구름이 많아져 마치 나무처럼 보인다. 다시 시선이 내려 보면 난초 위에도 밤부터 맺힌 이슬들이 유난히 맑고 산뜻해 보인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유여시가 모든 고민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자연 풍경이 바로 백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영약이라고 감탄했다.

「秋夜雜詩 三」

月流西竹澗	달빛이 대숲 계곡 사이에 비추며,
惑雜放虛云	텅 빈 구름 사이에 흩어져 있네.
桂影空沉瓦	계수나무 그림자는 헛되이 기와에 잠기고,
松姿不虐群	소나무의 자태는 다른 것에 기대지 않네.
魚飛稻冥冥	물고기는 헤엄치고 벼들은 미풍에 흔들리는데,
鷗去荻紛紛	솔개는 떠나고 물 억새가 어지럽네.
惟當感時候	다만 이때를 만나 계절을 느끼니,
相與恣靈文	홀륭한 문장을 짓기 좋은 때라네.

이 시에는 절묘한 달빛에 비쳐진 소나무와 계수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1구에서 제4구까지는 달, 구름, 계수나무 그리고 소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조용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고 제5구와 제6구에서는 헤엄치는 생선, 움직이고 있는 논벼, 날아가는 솔개 등으로 동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부분과 뒷부분은 선명한 비교가 되어 있고, 또한 동정이 결합된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가을밤 경치 속에서 시인이 자연스럽게 홀륭한 문장을 짓기 좋은 때라고 감탄한다.

지금까지 본 매창의 자연을 내용으로 지은 시에는 매창이 자연을 완상하며 자연의 진미를 묘사하거나 풍류를 즐기거나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려 했지만, 결국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매창의 이 부분의 작품에서 암울(暗鬱)한 정서가 주도적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유여시도 이매창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완상하면서 자연미를 찬미하는 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것보다는 유여시가 자연을 통하여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꺾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결심을 낸 것처럼 자신의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인생관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유여시의 이 부분의 작품에서는 격양(激昂)의 정서가 들어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4. 종합적 비교

이매창과 유여시는 어렸을 때부터 생활이 어려워 도처를 떠돌았고, 성장해서는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을 겪고도 다른 이들 앞에서는 슬픔을 참고 웃어야 하는 비참한 기녀의 삶을 이어갔다. 이러한 비슷한 삶을 연명해나갔기에 두 사람의 내적 정서가 상통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차이점이 있음을 앞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매창의 신세를 제재로 한 작품에서는 哀恨의 정서를 지니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반면에 유여시의 시가에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정서를 드러낸다고 추정해 본다.

두 시인 공히 이별에 대한 슬픈 감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분명 차이점도 있다. 이매창이 이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哀怨(哀怨)의 정서를 표현함을 알 수 있고, 유여시는 님과 이별의 슬픔을 진자룡이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는 격려 속에서 추스르고 灑脫(灑脫)의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추정해 본다. 이매창과 유여시 모두 님과 헤어져도 님에 대한 사랑이 모두 변치 않았고 사랑에 대한 충정한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두 시인이 님을 그리워하면서도 기다릴 때의 심정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매창은 님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오지 않는 님 때문에 ‘相思病’에 걸려 모든 일에 대한 의식과 관심을 잃었고 ‘心門’을 닫게 되었다. 유여시도 이매창과 같이 오랫동안 진자룡을 기다리면서 재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도 진자룡에게 큰 인물이 되라는 당부를 했다. 두 시인이 모두 님에 대한 일편단심인데 이매창의 작품에서는 밝고 긍정적인 것이 아닌 悲哀(悲哀)임을 드러내고 있고 유여시는 적극적인 期待(期待)의 정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매창과 유여시가 재회의 바람으로 한 작품에서 허무한 꿈과 선계에 기탁하여 님과 재회를 바라는 모습을 모두 보여 주고 있지만 유여시는 허무한 꿈에서 깨어나 더욱 이성적으로 처리하게 되었다는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두 시인이 허무한 꿈과 선계에 기탁하거나 이성적으로 처리하거나 재회를 바라는 것 자체가 공통적으로 사랑에 대한 열망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추정해 본다.

지금까지 본 매창의 자연을 내용으로 지은 시에는 매창이 자연을 완상하며 자연의 진미를 묘사하거나 풍류를 즐기거나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매창의 이 부분의 작품에서 암울(暗鬱)한 정서가 주도적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유여시도 이매창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완상하면서 자연미를 찬미하는 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것보다는 유여시가 자연을 통하여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꺾끗하게 살아

야 한다는 결심을 낸 것처럼 자신의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인생관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유여시의 이 부분의 작품에서는 격양(激昂)의 정서가 들어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유여시도 이매창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완상하면서 자연미를 찬미하는 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것보다는 유여시가 자연을 통하여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끈끈하게 살아야 한다는 결심을 낸 것처럼 자신의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인생관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유여시의 이 부분의 작품에서는 격양(激昂)의 정서가 들어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매창과 유여시의 시세계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차이점은 우국우민의식의 발로에서 발견된다. 이매창의 시상은 주로 사랑, 이별, 고뇌, 등에 관한 부분이지만, 유여시의 시 특징은 그의 삶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점, 기생이지만 사회, 정치적인 부분까지 포함한다는 점, 창수증별과 같은 내용의 시에서 나타나듯 유여시의 시세계가 조금은 더 넓었다 할 수 있다.



V. 결론

본고는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기녀시인 이매창과 유여시를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와 교유관계 그리고 처했던 시대와 사회문화적 배경 및 두 시인의 작품을 형식, 내용 측면에서 비교 검토하면서 두 시인의 위 두 방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사회문화 환경, 교류했던 남성, 그리고 자신의 성격과 경력 등 여러 가지 요소들과 결부시켜 두 시인의 작품 속에서 서로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이 생긴 원인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매창과 유여시의 작가의식이 형성되는 배경을 고찰했다. 제2장에서는 이매창과 유여시의 생애와 교유관계를 소개했다.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매창과 유여시의 작품 세계에 들어갔다. 이 장에서는 2절로 나뉘어 고찰했다. 제1절에서 이매창의 작품은 신분에 대한 한탄, 진정한 임을 향한 갈망, 자연의 이치와 운명에 대한 순응 3부분으로 이매창의 한시 특징을 분석했다. 제2절에서 유여시의 작품은 신분에 대한 한탄, 이별에 대한 숙명적 고뇌, 자연에 순응하는 여류의 감정, 우국우민의식 4부분으로 유여시의 한시의 특징을 분석했다.

제4장에는 이매창과 유여시의 작품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두 시인의 작품의 내용에 따라 신분에 대한 한탄, 사랑과 이별, 그리고 자연과 시인으로 분류해 봤다. 두 시인의 작품 내용을 비교했을 때 같은 분류에 속하는 작품이라도 나타난 정서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신분에 대한 한탄에 속하는 두 시인의 작품에는 이매창이 주로 애환이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유여시의 작품에는 낙관적인 정서가 느껴진다. 사랑과 이별이라는 분류에 속하는 작품들이 각 이별의 정회, 사랑의 충정, 재회의 바람으로 분류하여 이별의 정회라는 소재목에 속하는 매창의 작품에서는 애원이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 유여시는 쇠탈(灑脫)의 정서를 표현했다. 사랑의 충정이라는 소재목에 속하는 매

창의 작품에서는 비애를 많이 느껴졌고 유여시는 기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재회의 바람이라는 소제목에 속하는 매창과 유여시의 작품에서는 모두님과 재회하는 바람을 허무한 꿈이나 선계에 기탁한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유여시는 꿈에서 깨어나 더욱 이성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두 시인의 재회의 바람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지만님과 재회를 바라는 자체가 공통적으로 사랑에 대한 열망의 정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으로 추정해 봤다. 자연과 시인이라는 분류에 속하는 매창의 작품에서 매창이 자연미를 완상하면서 여유롭게 인생의 의미를 찾는 모습도 보여 주고 있지만 자연을 통하여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하며 암울(暗鬱)한 정서가 주도적인 것으로 추정해 봤다. 유여시는 자연을 통하여 자신의 운명이 순탄치 않지만 당당하고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고 결심하며 격앙된 정서를 표현했다.

본고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녀문학 비교작업의 일환으로 이매창과 유여시를 비교 연구하였다. 이것은 한·중 기녀문학 더 나아가 한·중 여성문학 비교 연구하는데에 밑거름이라고 여기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초위에 한국과 중국 기녀문학, 나아가서는 한·중 여성문학의 전반적인 비교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 한·중 문학사에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VI. 참고문헌

한국단행본

- 金用淑(1979), 『朝鮮朝女流文學의 研究』, 淑明女子大學校出版部
- 金用淑(1990), 『韓國 女俗史』, 民音社.
- 김상홍외 2인(1991), 『韓國文學思想史』, 啓明文化社.
- 張宏生, 張雁 編(2001), 『古代女詩人研究』, 湖北教育出版社.
- 李能和著, 李在崑 옮김(1992), 『朝鮮解語花史』, 東文選文藝新書 29.
- 金明姬(1993), 『문학과 달과 여인』, 白山出版社.
- 金明姬(2002), 『허부인 난설헌 시 새로 읽기』, 이회.
- 金明姬(1987), 『許蘭雪軒의 文學』, 集文堂.
- 文德守(1974), 『現代韓國詩論』, 宣明文化社.
- 김여주(2004), 『조선후기 여성문학의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민병도(1950), 『조선역대여류문집』, 을유문화사.
- 이능화(1992), 『조선해어화사』, 이재곤 옮김, 동문선.
- 이수웅(1987), 『중국창기문화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종묵(2002),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 조광국(2004), 『한국문화와 여류』, 월인.
- 조동일(1991),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 조동일(1994),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
- 김상홍외 2인(1991), 『韓國文學思想史』, 啓明文化社, .
- 金智勇(1973), 『歷代女流漢詩文選』, 大洋書籍.
- 나손선생추모논총간행위원회(1991), 『韓國文學作家論』, 現代文學.
- 한국고전여성문학회(200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월인.
- 허경진(1997), 『梅窓詩選』, 평민사.
- 허경진(1982), 『허균의 시화』, 민음사.

- 박영호(1999), 『許筠文學과 道敎思想』, 태학사.
- 許米子(1996), 『韓國女性文學研究』, 태학사.
- 김명희(2003), 『조선시대 여성문학과 사상』, 이희.
- 김민성(2003), 『梅窓全集:李梅窓의 文學과 人生』, 고글.
- 김석하(1973), 『한국문학의 낙원사상연구』, 일신사.
- 오세영(1980), 『한국낭만주의시연구』, 일조각.
- 이수광(1978), 『지봉유설』, 을유문화사.
- 이이화(1997), 『허균』, 한길사.
- 이혜순 외 7명(1999),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 정비석(1982.), 『명기열전』, 한국출판사.
- 최승범(1999), 「女流詩人の 큰 별 李梅窓」 『梅窓全集』, 고글.
- 김희보 편지(1980), 『漢詩選』, 조로서적 출판부.
- 김성례(1994), 「여성의 자기 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고려원.
- 황패강(1973), 『한국문학작가론』, 형설출판사.
- 이정옥(1995), 『다시 쓰는 여성과 문학』, 평민사.
- 리해산(1995), 『조선 한문학사』, 한국문화사.
- 최병규(1998), 『풍류정신으로 보는 중국문학사』, 예문서원.
- 이혜순 외(1999), 『한국 고전 여성 작가』, 태학사.
- 谷口規矩雄 著 · 鄭盛一 譯(1997), 『아시아역사와 문화』 4, 신서원.
- 이상보(1955), 「여류시조작가론」, 『국어국문학』, 제14집, 국어국문학회.

중국단행본

- 卞敏(1998), 「柳如是是秦淮妓嗎?」, 『南京史志』 3期, 南京市地方志編纂委員會.
- 劉燕遠(2000), 『柳如是詩詞評注』, 北京古籍出版社.
- 蘇同炳(2000), 『中國名女人』, 百花文藝出版社.
- 范景中 · 周書田輯(1999), 『柳如是集』, 中國美術學院出版社.

范景中·周書田編纂(2002),『柳如是事集』 中國美術學院出版社.

高彦頤 著,李志生 번역(2005),『閨塾師』,明末清初江南的才女文化,南京,江蘇人民出版社.

龔斌(2001),『青樓文化與中國文學研究』,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

谷輝之(1996),『柳如是詩文集』,北京,中華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譚正璧(1984),『中國女性文學史話』,天津,百花文藝出版社,年再版.

陶慕寧(1993),『青樓文學與中國文化』,北京,東方出版社.

賈文紅(2004),『中國名人大傳』,光明日報出版社.

한국학위논문

김미란(1995)「19세기 전반기 여류, 서녀 문인들의 문학사적 위치」, 한국고전학회 편,『고전문학과 문학집단』, 집문당.

李麗秋(2003),「韓·中 妓女詩人 薛濤와 李梅窓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姜西衡(2003),「매창문학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文仙知(1980),「梅窓시의 이미지 分析」,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朴鐘洙(1987),「朝鮮朝女流文學研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鄭光順(1989),「梅窓漢詩文學研究」,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崔榮伊(1987),「梅窓文學研究」,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서형(2003),「매창 한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순자(1984),「이매창시문학론」,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규익(1981),「장시조에 나타난 미의식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운식(1981),「조선조 여류시가에 나타난 恨의 분석」,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광순(1989),「梅窓 漢詩 文學 研究」,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원범(1978),「매창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이(1987.), 「이매창문학연구」,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세정(1984), 「란설현, 매창, 옥봉 한시 비교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하(1992), 「여류시조의 특징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명숙(1999), 「페미니즘 시각으로 본 여류시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려추(2003), 「중 한 여류시인 설도와 이매창의 비교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신은경(2003), 「여류시조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姜正萬(2001), 「柳如是의 애정시를 통해본 그녀의 生涯 研究」 『中國學論叢』第12輯,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 학위 논문

- 宋清秀(2005), 「試論明末清初才女文化的特點」 9月, 求索.
- 郭延禮(2002), 「明清女性文學的繁榮及其主要特徵」 6期., 文學遺產.
- 王萌(2004), 「論明清時期女性群體漸趨自覺的創作趨向」 1期., 中華女子學院山東分院學報.
- 楊麗瑩 葉輝(2001), 「從明人女子詩集的編纂看明代婦女文學現象」 1月, 華夏文化.
- 柳素平(2006), 「晚明名妓研究」, 武漢大學 박사학위논문.
- 王艷紅(2006), 「明代女性作品總集研究」, 上海사범대학 석사학위논문.
- 柳素平(2006), 「晚明名妓文化研究」, 武漢大學 박사학위논문.
- 王鴻泰(1999), 「青樓名妓與情藝生活-名清的妓女與文人」, 熊秉真 ; 呂妙芬 編, 禮教與情慾:前近代中國文化中的後/現代性,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蔡茵(2006), 「明清才女 文史飄香」, 暨南大學 석사학위논문.
- 宋清秀(2004), 「明末清初江南知識女性研究」, 北京大學, 박사학위논문.